KLIPS User's Guide 2008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조사자료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User's Guide

KLIPS

목 차

1-9차년도 자료의 주요 특징 ····· i

Ⅰ. 한국노동패널(KLIPS) 소개 ····· 1
1. KLIPS 조사개요 ····· 1
2. 현장실사 및 면접방식 ····· 5

Ⅱ. 표본설계 및 가중치 ····· 16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과정 ····· 16
2. 가중치 부여방식 및 사용방법 ····· 19

Ⅲ. 자료의 주요 특성 ····· 27
1. 설문지 구성 ····· 27
2. 자료 구성 ····· 29
3. 조사내용 ····· 31

Ⅳ. 변수가이드 ····· 40
1. key변수의 이해와 이용 ····· 41
2. 오픈 코드(open code) ····· 53

Ⅴ. 주제별 가이드 ····· 60
1. 가구자료 ····· 60
2. 개인자료 ····· 73
3. 신규자료 ····· 89
4. 직업력 자료 ····· 92
5. 부가조사자료 ····· 98

〈부록 1〉 9차년도 KLIPS 자료를 이용한 문헌 목록 ····· 107

〈부록 2〉 FAQ ····· 111

찾아보기 ····· 168

표 목 차

<표 Ⅰ-1>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 7
<표 Ⅰ-2> 각 연도별 대리응답 비중 ····· 7
<표 Ⅰ-3> 각국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 9
<표 Ⅰ-4> 1-9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 12
<표 Ⅰ-5> 9차년도 비원표본 가구 수 ····· 14

<표 Ⅱ-1> 최종 추출된 조사구와 조사가구 ····· 18
<표 Ⅱ-2> KLIPS 1차년도 조사가구 개요 ····· 19
<표 Ⅱ-3> 가구가중치의 특성 ····· 24
<표 Ⅱ-4> 개인가중치의 특성 ····· 25
<표 Ⅱ-5> 1-9차년도 가중치 변수 ····· 26

<표 Ⅲ-1> 1-9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 28
<표 Ⅲ-2>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 29
<표 Ⅲ-3> 1-9차년도 KLIPS 자료의 구성 ····· 30
<표 Ⅲ-4> 1차년도(1998년) 조사 내용 ····· 31
<표 Ⅲ-5> 2차년도(1999년) 조사 내용 ····· 32
<표 Ⅲ-6> 3차년도(2000년) 조사 내용 ····· 33
<표 Ⅲ-7> 4차년도~9차년도 조사 내용 (공통) ····· 34

<표 Ⅳ-1> 가구의 고유번호 ····· 42
<표 Ⅳ-2> 각 연도별 조사 응답여부 판별 key 변수 ····· 42
<표 Ⅳ-3> 각 연도별 성별 변수 ····· 44
<표 Ⅳ-4> 1-9차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 45
<표 Ⅳ-5> 1-9차년도 연령 변수 ····· 45
<표 Ⅳ-6> 각 연도별 개인용 혼인상태 변수 ····· 47
<표 Ⅳ-7> 각 연도별 학력 변수 ····· 47
<표 Ⅳ-8> 각 연도별 취업/미취업 여부 변수 ····· 50

<표 Ⅳ-9> 각 연도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구분변수 ····· 51
<표 Ⅳ-10> 1-9차년도 종사상 지위 변수 ····· 52
<표 Ⅳ-11> 1-9차년도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 ····· 52
<표 Ⅳ-12> 1-9차년도 근로시간 형태 변수 ····· 53
<표 Ⅳ-13> 각 연도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 53
<표 Ⅳ-14> 각 연도별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코드 변수 ····· 57
<표 Ⅳ-15> 각 연도별 현재(최종) 일자리의 산업코드 변수 ····· 57
<표 Ⅳ-16> 학과 관련 변수들 ····· 58

<표 Ⅴ-1> 1-9차년도 가구원 정보 변수 ····· 62
<표 Ⅴ-2> 1-9차 가구소득 관련 변수 ····· 64
<표 Ⅴ-3> 1-9차년도 가구소득 세부항목 ····· 66
<표 Ⅴ-4> 1-9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 67
<표 Ⅴ-5> 2-9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 ····· 68
<표 Ⅴ-6> 2-9차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 ····· 69
<표 Ⅴ-7> 2-9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 ····· 69
<표 Ⅴ-8> 1-9차년도 주거지 관련 변수 ····· 70
<표 Ⅴ-9>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내용 ····· 72
<표 Ⅴ-10> 평소의 경제활동관련 변수 ····· 74
<표 Ⅴ-11> 1-9차년도 구직활동 관련 변수 ····· 75
<표 Ⅴ-12> 1-9차년도 근로계약 관련 변수 ····· 76
<표 Ⅴ-13> 비정규직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 77
<표 Ⅴ-14> 1-9차 근로시간 관련 변수 ····· 79
<표 Ⅴ-15> 1-9차년도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 ····· 81
<표 Ⅴ-16> 1-9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관련 변수 ····· 81
<표 Ⅴ-17> 1-9차 직업훈련 관련 변수 ····· 82
<표 Ⅴ-18> 자격증 관련 변수 ····· 83
<표 Ⅴ-19> 1-9차년도 사회보험 관련 변수 ····· 84
<표 Ⅴ-20> 5차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관련 변수 ····· 85
<표 Ⅴ-21> 1-9차년도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변수 ····· 86

<표 Ⅴ-22>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 87
<표 Ⅴ-23>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 87
<표 Ⅴ-24> 조직몰입도의 측정 변수 ····· 88
<표 Ⅴ-25> 1-9차년도 기타 변수 ····· 89
<표 Ⅴ-26> 개인자료에 포함된 신규자료의 변수들(9차년도 기준) ····· 91
<표 Ⅴ-27> 직업력 자료의 변수 ····· 95
<표 Ⅴ-28>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99
<표 Ⅴ-29>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100
<표 Ⅴ-30> 6차년도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102
<표 Ⅴ-31> 7차년도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103
<표 Ⅴ-32> 8차년도 부가조사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105
<표 Ⅴ-33> 9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 106

그림목차

[그림 Ⅰ-1]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 12
[그림 Ⅰ-2]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 13
[그림 Ⅰ-3] 신규조사자의 특성 ····· 15

[그림 Ⅳ-1] 개인의 고유번호 ····· 43
[그림 Ⅳ-2] 경제활동상태의 구분 ····· 50
[그림 Ⅳ-3] 산업코드 및 직업코드 대분류 ····· 56

[그림 Ⅴ-1] 직업력 자료의 구조 ····· 93

FAQ 목차

FAQ. 노동패널 잘 쓰는 방법?
Q1. 노동패널자료를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없을까? ····· 113
Q2. SAS나 SPSS 파일을 다른 통계패키지 파일로 바꾸고자 할 때 ····· 114
Q3. 신규자료를 꼭 써야하는 이유, 그리고 개인자료와 신규자료 합치기 ····· 115
Q4. 개인자료와 부가자료 합치기 ····· 117
Q5. 가구자료와 개인자료 합치기 ····· 119
Q6. 직업력자료에 개인의 성별, 연령 붙이기 ····· 120
Q7. 원가구와 분가가구의 차이 ····· 122
Q8. hhid~hhid06 중에서 어떤 것을 가구 id로 사용해야 할까? ····· 123
Q9. 15세 이상 가구원 수, 15세 미만 가구원수 구하기 ····· 125
Q10.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 추출하기 ····· 127
Q11. 가구자료에서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추출 ····· 129
Q12. 사교육 자녀번호와 엄마번호 사용하기 ····· 132
Q13. 사교육 이용기관의 변동사항 : 연도별 차이 ····· 137
Q14.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방법 ····· 138
Q15.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의 차이점 ····· 141
Q16. 생활비 항목에 대한 설명 ····· 142
Q17. 금융자산과 부채 변수 구성하는 방법 ····· 143
Q18. 부동산 자산의 시가 관련 문항의 구조 ····· 146
Q19. 2, 3차년도 가구자료의 주택종류와 평수 ····· 147
Q20. 지니계수 구하기 ····· 148
Q21.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구하기 ····· 149
Q22. 개인의 인적특성(성별, 연령, 학력) 변수들이 필요할 때 ····· 151
Q23. 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 구분의 기준 ····· 152
Q24. 경제활동상태 변수 만들기 ····· 154
Q25. 노동패널자료의 정규/비정규직 비중은 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낮을까? ···· 156
Q26.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변수에 결측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 159
Q27. 임금 및 소득 변수의 평균값 추이가 들락날락하고, 너무 큰 값이 나올 때 ····· 161
Q28. 개인자료에 부업 관련 정보를 붙이고자 할 때 ····· 162
Q29. 부모님의 학력,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 163

1-9차년도 자료의 주요 특징

노동패널 1-9차년도 release 버전 사용시 이용자들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기 바란다.

1. 개인자료와 신규자료의 통합

이전 KLIPS의 개인자료를 이용하실 때는 신규자료의 관련 변수 값을 일일이 붙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개인자료와 연결될 수 있는 신규자료상의 해당 관측치들을 통합시켰다. 그러나, 신규조사자에게만 묻는 설문(만14세 당시 성장지, 부모님의 교육수준, 직업, 종교, 군복무 등) 은 이전과 같이 신규자료에서 해당 변수들을 추출하여야 한다. **관련설명:본문 30,91페이지,FAQQ3**

2. 혼인상태 가공변수 제공

KLIPS에서 개인의 혼인상태를 묻는 문항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었으므로, 연구자들이 직접 혼인상태를 통일시켜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부터는 보다 간편하게 혼인상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혼인상태를 1. 미혼 2. 기혼 3. 별거 4. 이혼 5. 사별의 값을 갖도록 가공하였다. **관련설명:본문46페이지**

3. 주거상태 변화 가공변수 제공

KLIPS 가구용 자료의 주거지 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2차와 3차 자료에서 입주 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기는 전년도 조사 이후 이사하였거나 이사하지 않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2, 3차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했다. 그러나 8차자료부터는 해당변수를 가공하여 붙여두었으므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 해당변

수를 사용하면 된다. 관련설명 : 본문 FAQ Q19참조).

4. 7-9차년도 변수명 일치 및 변수색인 파일 활용

7, 8, 9차년도 가구용, 개인용 자료는 해마다 들고 나는 변수를 제외하면 변수명이 일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3개년도 자료를 통합해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각 차수를 표시하는 p07***, p08***, p09***의 7, 8, 9만 통일시키면 뒤의 세 자리는 일치하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9차년도에서 각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변수명으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홈페이지의 변수색인 파일(엑셀 파일)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같은 의미를 갖는 변수라 할 지라도 차수에 따라 코드 값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코드북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Ⅰ. 한국노동패널(KLIPS) 소개

1. KLIPS 조사개요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노동시장도 질적·양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올바른 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통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지속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0차 조사(2007년)까지 완료되었다.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KLIPS의 각 조사년도별 조사결과 및 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LIPS의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2차년도(1999년) 88%, 3차년도(2000년) 81%, 4차년도(2001년) 77%, 5차년도(2002년) 76%, 6차년도(2003년) 77%, 7차년도(2004년) 77%, 8차년도(2005년) 77%, 9차년도(2006년)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 원표본 가구 탈락율은 1-2차 12%, 2-3차 7%, 3-4차 4%, 4-5차 1%로 안정화되다가 6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성공률이 오히려 1% 포인트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

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패널 표본에 처음으로 편입된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자용 자료는 개인용 자료의 모든 정보와 함께 1차 조사 당시 파악했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회고적(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는 기업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 업종과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 개인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부가조사는 한해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차, 4차, 6차, 7차, 8차, 9차년도에 각각 조사되었다. 우선 3차년도에는 만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4차년도에는 만4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년도에는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6차년도에는 만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7차년도에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응답자들의 근로시간 변화와 여가사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8차년도 조사에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9차년도 조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성장과정 , 학업 및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KLIPS 자료를 통하여 기대되는 바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 결정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자료의 유형으로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와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등이 있다. 횡단면 자료란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표본들이 어떤 값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미시적인 경제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시계열 자료는 주어진 표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패널 자료는 노동시장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횡단면 자료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횡단면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관측할 수 없는 개인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를 통제함으로써 시간의 경과 혹은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횡단면 자료

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간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을 분석할 수 있다.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그리고 동시생태효과(cohort effect)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패널 자료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패널자료의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LIPS 자료는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KLIPS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예로는 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최초의 직장에서부터 전직·이직 과정을 거쳐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친 직업경로에 대한 이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 개인이 교육, 훈련,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쌓아가는 과정과 이것이 일자리 진입에 미치는 영향,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KLIPS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한 주제들이다.

KLIPS는 다른 일회성 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 명의 개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자료생산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표본 추출, 설문지의 구성 등과 같은 조사설계(survey design)가 결정되면 조사가 진행되는 한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 추출, 설문 설계 등과 같은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본 조사 이전에 철저한 예비조사(pilot survey)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조사 대상인 표본이 결정되면 패널 조사가 진행되는 한 동일한 표본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응답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사 또는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표본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설문 내용이 방대하며 내용 또한 개인의 소득, 고용상태 등 민감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매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조사된 자료는 원자료 형태가 아닌 클리닝(cleaning)과정과 가공과

정을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KLIPS 1개년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KLIPS 자료의 학문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 현장실사 및 면접방식

2.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2.1.1 가구용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가구용 조사 대상은 KLIPS의 원표본 가구인 5,000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분가가구이다.

□ 설문은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면접원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개인용 설문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개인용 설문 대상은 각 연도별 조사대상 가구에 소속된 만15세 이상의 개인이다.

□ 이중 1차년도 조사당시 원가구원들이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추적조사한다.

• 분가가구원의 조사추적 원칙

- 반드시 추적해야 하는 가구원 -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과 그 자녀)
  예) 1998년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원가구로 선정되어 조사됨

  → 2000년 12월 형과 아우가 같이 대전으로 분가하여 나왔음
  → 2001년 3월(4차년도 조사일 이전) 형이 또 부산으로 분가하여 나감
  → 이 경우 대전에 살고 있는 동생은 물론 부산으로 분가한 형도 추적조사해야 함
  → 또한 형은 대전에 살고 있는 동생가구(신규가구)의 분가 가구원이 됨

- 추적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원 - 원가구원이 아닌 경우
  예) 1998년 서울에서 사는 한 가구가 원가구로 선정되어 조사됨

  → 2001년 12월 가구주의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함께 살게 됨(1998년 당시 따로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가구원이 아님)

→ 2002년 3월 가구주의 아들과 며느리가 분가하여 나감

→ 이 경우 아들과 며느리는 원가구원이 아니므로 추적조사하지 않음

□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되는 기간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 → 직접조사
-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 → 전화조사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우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 대리응답
-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 → 대리 응답
- 면접이나 전화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

- 예 :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

→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대상에서 제외 (단, 이들의 인적사항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함)

□ 질문형태는 면접원이 설문문항을 응답자에게 구두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한다.

□ <표 Ⅰ-1>은 이러한 조사원칙이 각 연도별로 실제로 어느만큼 지켜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차년도에는 89.7%에 이르렀다.
-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7%나 되었지만, 9차년도에는 1.4%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표 Ⅰ-1〉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개인응답자수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면접	64.4	77.7	83.0	83.7	83.8	86.3	88.0	85.4	89.7
(2) 유치	21.7	7.6	5.1	3.3	2.6	1.7	1.8	1.6	1.4
(3) 전화	1.5	7.4	5.3	4.6	3.9	3.8	4.1	2.8	2.9
(4) 면접+전화	2.6	4.7	3.8	4.9	6.4	5.7	3.7	6.1	2.8
(5) 유치+전화	3.7	2.5	1.4	1.2	1.0	0.9	0.4	1.4	0.7
(6) 면접+유치	2.6	0.0	0.9	1.8	1.0	1.3	1.6	1.7	2.3
(7) 면접+유치+전화	0.0	0.0	0.2	0.5	1.3	0.4	0.5	1.0	0.3

□ <표 Ⅰ-2>는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 1차년도 조사당시 대리 응답의 비중은 19.7%수준으로 나타났으나, 9차년도에는 3.0%까지 감소하였다.
- 주요 대리응답 사유로는 조사대상자의 귀가가 너무 늦어 면접 자체가 힘들거나, 혹은 수험생을 둔 부모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녀의 면접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Ⅰ-2〉 각 연도별 대리응답 비중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개인응답자수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본인	74.0	88.6	88.3	83.3	83.8	83.1	85.7	87.3	90.0
(2) 대리인	19.7	11.3	8.1	11.0	9.8	11.2	9.7	5.0	3.0
(3) 본인+대리인	0.4	0.0	3.6	5.5	6.4	5.8	4.7	7.7	7.0

2.1.3 신규조사자용 설문대상과 조사방법

□ 신규조사자란, KLIPS에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을 의미한다. 신규조사자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조사방법은 개인용과 동일하다.

- 대상 1 : 기존가구원 중 작년까지는 만14세였다가 올해 만15세가 된 개인
- 대상 2 : 조사대상이었는데 군복무 등의 이유로 한번도 조사를 하지 못한 개인
- 대상 3 : 분가로 발생하게 된 신규가구원 중 만15세 이상인 개인
- 대상 4 : 기존 가구에 새롭게 추가된 만15세 이상의 개인

2.2 실사 개요

□ 한국노동패널의 현장 실사는 전문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가 1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약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연인원 100여명 정도의 전문 면접원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된다. 면접원 교육은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역별로 설문지의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투입되는 면접원의 수는 실질적으로 조사수행에 필요한 면접원수보다 20-30%가량 많은데, 그 이유는 교육을 받은 면접원 중에서 20-30%가량의 면접원이 패널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 탈락하기 때문이다.

□ 9차년도 실사에 최종수행한 면접원은 서울지역 35명, 부산 12명, 대전 8명, 대구 19명, 광주 12명으로 총 86명이다. 9차년도 실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성공 사유로는 강력거절이 51.6%이며, 이사/추적 불가가 30.2%, 접촉안됨이 6.7%이다. 면접원이 이들 성공하지 못한 가구를 방문한 횟수는 1회가 가장 많은 23.6%이며, 3회 이상 방문한 횟수가 전체의 60%를 상회하였다.

□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회수된 설문을 모두 재검토한 후,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지나친 무응답, 응답 간 논리적인 오류 등을 체크하여 담당 면접자에게 다시 재설문하도록 하였다.

2.3 조사결과

2.3.1 조사결과 개요

□ <표 Ⅰ-3>은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의 표본유지율과 KLIPS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유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 9차년도까지 KLIPS의 원표본 유지율은 76.5%로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OEP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대우패널은 6차년도에 표본유지율이 44%까지 하락하여 조사가 종료되었다.

〈표 Ⅰ-3〉 각국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원표본유지율	유효표본성공율	가구수
2차년도	89.0% (1969)	89.9% (1985)	87.7% (1992)	79% (1994)	87.6% (1999)	87.6% (1999)	4,379
3차년도	86.3% (1970)	86.0% (1986)	81.5% (1993)	66% (1995)	80.9% (2000)	80.9% (2000)	4,044
4차년도	83.7% (1971)	84.9% (1987)	79.9% (1994)	59% (1996)	77.3% (2001)	77.3% (2001)	3,867
5차년도	81.2% (1972)	81.3% (1988)	76.8% (1995)	56% (1997)	76.0% (2002)	76.0% (2002)	3,798
6차년도	78.8% (1973)	79.2% (1989)	77.3% (1996)	44% (1998)	77.2% (2003)	77.3% (2003)	3,862
7차년도	76.6% (1974)	78.4% (1990)	76.0% (1997)	종료	77.3% (2004)	78.0% (2004)	3,863
8차년도	74.1% (1975)	78.9% (1991)	74.1% (1998)	-	76.5% (2005)	77.5% (2005)	3,823
9차년도	71.2% (1976)	78.4% (1992)	72.1% (1999)	-	76.5% (2006)	77.8% (2006)	3,821

주 : 1) 영국의 BHPS는 원표본가구원의 표본유지율임.
2) 원표본유지율: 1차년도 표본인 5,000가구 기준 표본유지율임.
3) 유효표본유지율: 5,000가구중 소멸가구 제외한 표본유지율로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는 4,950, 8차년도 4,935, 9차년도 4,914 가구가 각각 기준이 됨.

□ 1차년도 조사결과

-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KLIPS는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이다.
-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다.

□ 2차년도 조사결과

- 1999년 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379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분가표본 130가구를 포함하여 2차 KLIPS에 조사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이다.
-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제2차 조사는 1차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17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84.4%의 원표본가구원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3차년도 조사결과

- 2002년 3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3차 KLIPS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이다.
- 3차 조사의 총 응답 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17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76.2%의 원표본가구원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4차년도 조사결과

- 2001년 4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248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4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1,651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60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다.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중에서 10,332명을 조사하여 72.4%의 원표본가구원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5차년도 조사결과

- 2002년 5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298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798가구로 76.0%의 표본유지율을 보인다.
- 5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0,966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563명, 신규 조사자는 402명이다.

□ 6차년도 조사결과

- 2003년 6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592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2가구로 77.2%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6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0,1543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0,985명, 신규 조사자는 558명이다.

□ 7차년도 조사결과

- 2004년 7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762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3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7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1,661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1,21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다.

□ 8차년도 조사결과

- 2005년 8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850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23가구로 76.5%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8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1,580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1,199명, 신규 조사자는 381명이다.

□ 9차년도 조사결과

- 2006년 8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5,002가구이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21가구로 76.5%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 8차 조사에 총 응답 가구원은 11,756명이며, 이중 기존 응답자는 11,182명, 신규 조사자는 398명이다.

〈표 Ⅰ-4〉 1-9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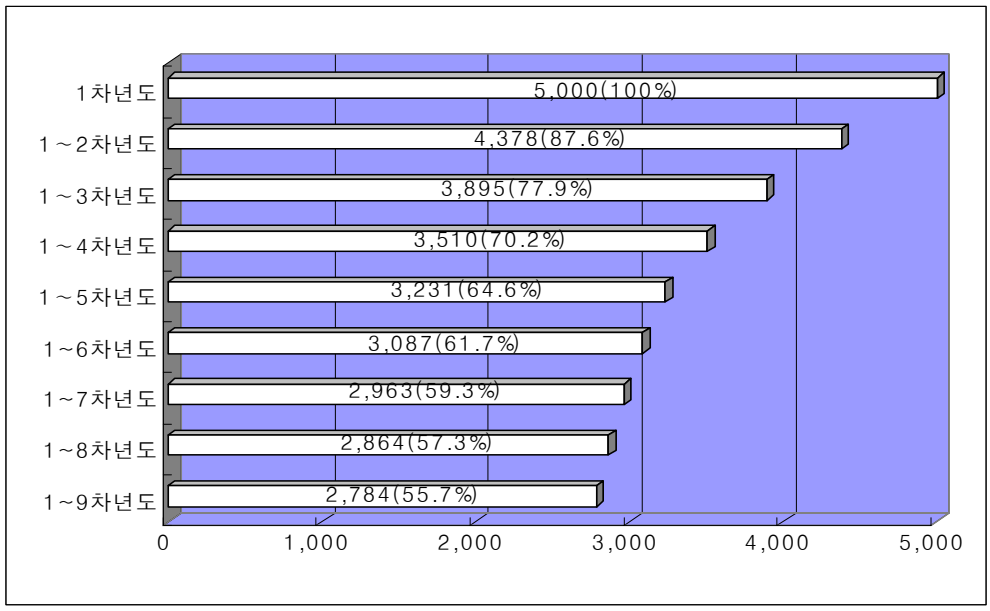
	조사원가구 -소멸가구	조사성공 가구수[1]	원표본 가구수[2]	원표본 유지율[3]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4]	실사 기간
1차조사('98)	5,000	5,000	5,000	100.0	-	13,321	6월~10월
2차조사('99)	5,000	4,509	4,379	87.6	130	12,042	7월~12월
3차조사('00)	5,000	4,267	4,045	80.9	222	11,206	5월~10월
4차조사('01)	5,000	4,248	3,865	77.3	383	11,051	5월~10월
5차조사('02)	5,000	4,298	3,798	76.0	500	10,966	4월~ 9월
6차조사('03)	4,993	4,592	3,862	77.2	730	11,543	4월~ 9월
7차조사('04)	4,950	4,762	3,863	77.3	899	11,661	4월~ 9월
8차조사('05)	4,935	4,850	3,823	76.5	1,027	11,580	4월~10월
9차조사('06)	4,914	5,002	3,821	76.5	1,181	11,756	4월~10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가구 중 유효표본가구 +조사성공 분가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당시 원표본 5000가구 중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임.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중 해당년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2.3.2 계속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비중

〔그림 Ⅰ-1〕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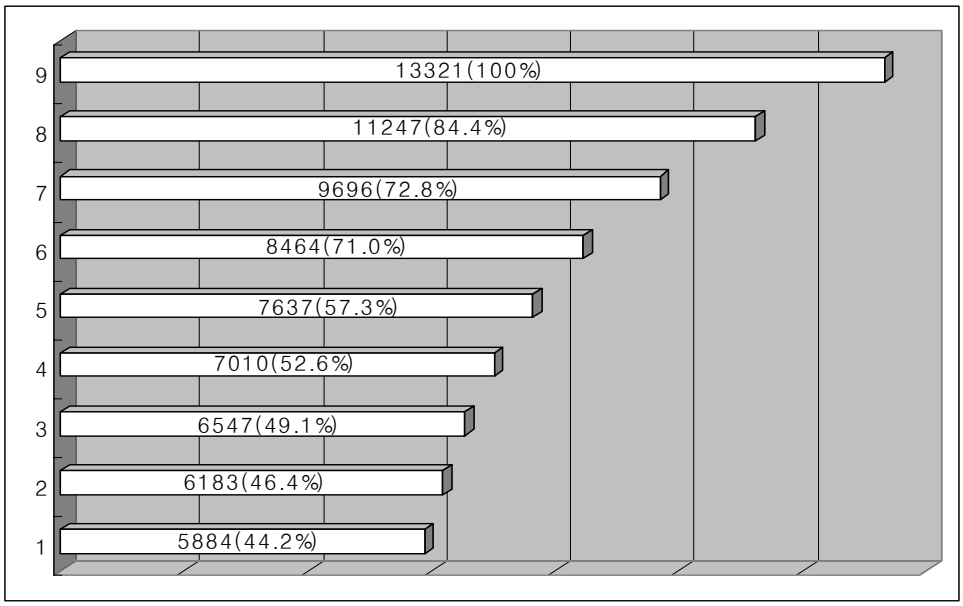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 [그림 I -1]은 KLIPS 조사 연도별로 계속응답 가구수의 비중이다.

- 1~9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784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55.7%에 이르고 있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에 77.9%, 4차년도에 70.2%, 5차년도에는 65.1%, 6차년도에 61.7%, 7차년도 59.3%, 8차년도 57.3%. 9차년도 55.7%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 -2〕 KLIPS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 [그림 I -2]는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이다.

- 1차년도 총 조사 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 포인트, 4차년도에는 9.3% 포인트, 5차년도에는 6.2% 포인트, 6차년도에는 4.7% 포인트, 7차년도에는 3.4% 포인트, 8차년도에는 8.8% 포인트, 9차년도에는 2.2% 포인트가 감소한 5,884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 이처럼 1~9차년도 기간동안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3 분가가구 및 신규조사자

□ 분가가구란 원표본가구인 5,000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혼인 등의 사유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신생 가구를 의미한다.

- 분가가구에는 원표본가구원이 1인이라도 포함된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분가가구 실사 결과

- KLIPS 9차년도 조사성공가구(5,002가구) 중에는 원표본 3,821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1,181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7가구이며, 3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03가구, 4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6가구, 5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6가구, 6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3가구, 7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7가구, 8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0,가구, 9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39가구로 나타났다.

〈표 Ⅰ-5〉 9차년도 비원표본 가구 수

(단위 : 가구수)

	전 체	응답가구	비응답가구
진입시점	1,438 (100.0)	1,181 (100.0)	257 (100.0)
2차년도	222 (15.4)	167 (14.1)	55 (21.4)
3차년도	146 (10.2)	103 (8.7)	43 (16.7)
4차년도	193 (13.4)	156 (13.2)	37 (14.4)
5차년도	181 (12.6)	146 (12.4)	35 (13.6)
6차년도	213 (14.8)	163 (13.8)	50 (19.5)
7차년도	182 (12.7)	157 (13.3)	25 (9.7)
8차년도	162 (11.3)	150 (12.7)	12 (4.7)
9차년도	139 (9.7)	139 (1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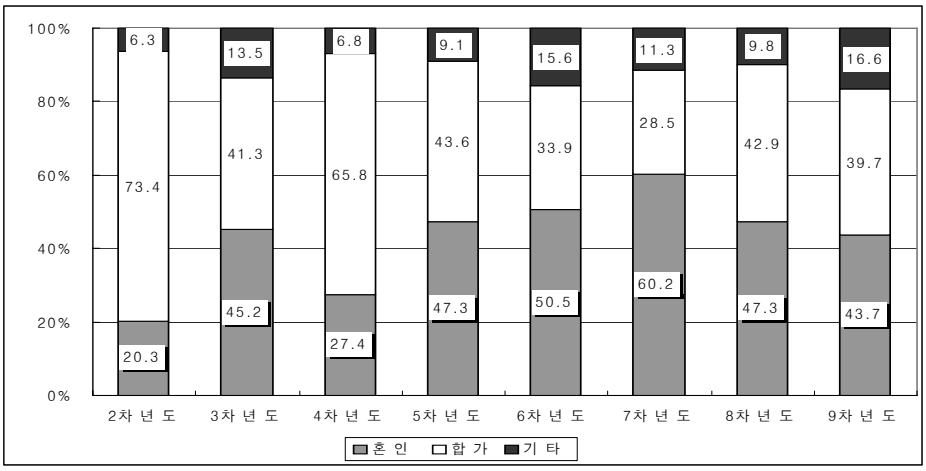
□ 신규조사자란 KLIPS에 처음으로 조사되는 개인으로서, 만15세가 되어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거나 전년도까지 조사되지 못하여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 혹은 분가 등의 사유로 처음으로 조사된 개인을 의미한다.

□ 신규조사자 실사 결과

- 9차년도 KLIPS의 신규 조사자는 398명으로 이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13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조사된 가구원은 185명이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들은 1-9차 조사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9차년도 조사당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두 번째는 비표본가구원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표본 가구원이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8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조사자 126명 중에서 혼인이 55명, 합가가 50명, 기타 1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Ⅰ-3〕 신규조사자의 특성

(단위 : %)



- [그림 Ⅰ-3]를 통해 지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추가이유 중 혼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합가로 인한 추가는 감소하고 있다.

Ⅱ.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표본설계방법 및 표본추출과정

1.1 표본틀과 모집단

□ 표본틀

- KLIPS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표본조사구인 전국의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조사구와 군부지역 2,650조사구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시의 동부 17,353조사구와 시의 읍면부 1,672조사구) 19,025조사구를 표본틀로 삼았다.

□ 모집단

- KLIPS표본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도시 거주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이다.
- 제주도와 병역의무이행자, 시설거주가구(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2 표본추출과정

□ KLIPS의 표본추출방법은 1단계에서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구를 선정하는 2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사용하였다.

- 이를 위해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5가구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는 원칙을 정하였다.
- 예산제약의 문제로 말미암아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최종 조사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997년 통계청이 수행한 고용구조조사의 조사가구가 선정되도록 매칭하였다.

□ 표본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을 기준으로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층(strata)을 구분하였다. 97고특의 층화방법을 따르지만, 시부로 구성된 층만 포함된다.
- 둘째, 각 층에서 조사할 조사구수는 97고특을 따르지 않고,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서의 전국도시조사구(19,025개) 대비 해당 지역의 도시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출할 도시조사구수를 결정하였다. 97고특은 인구크기비례, 실업자수의 상대오차, 예산 등을 고려한 보다 복잡한 절차에 따라 층별 조사구수를 할당하였으므로, 인구크기비례만 고려한 셈인 KLIPS와는 각 층별로 필요한 조사구수가 다르다. 이를테면, 서울지역의 경우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수보다 더 많은 조사구수가 필요하였다.
- 각 층 안에서 조사구를 추출할 때에는 집락추출의 원리가 이용되었다. 이를테면, 한 층에 100개의 조사구가 있다면 모든 조사구에서 한두가구씩 최종 조사가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사구만 선택해 그 안에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사비용의 절감을 위해 통계청 등 대부분의 가구조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 셋째, 각 층에서 조사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계통추출법(systemic sampling)을 이용하였다. 계통추출법은 조사구를 줄세운 다음 등간격으로 일정한 수의 조사구를 표집하는 방식이다. 조사구를 줄세우려면 번호를 할당해야 하는데, 이 번호할당방식도 97고특을 그대로 따랐다. 추출된 조사구가 97고특의 조사구였으면 조사 대상 조사구로 선정했고, 97고특의 조사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97고특의 조사구로 조사 대상 조사구를 대체 선정하였다.
- 넷째, 추출된 조사구 중에서 97고특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의 읍면부 지역에서는 6가구, 기타지역은 5가구를 임의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추출하여야 할 조사구수보다 97고특에서 사용한 조사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조사구에 비해 1가구를 더 추출하였으며, 추가하여 경기도의 동부의 4개 지역에서 5가구 대신 6가구를 추출하였다.

· 참고로, 97고특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조사구의 총 가구수가 40가구 이하인 경우 40가구 전체를 모두 조사하였고, 총 가구수가 40가구 이상인 경우 약 10개 정도의 가구를 하나의 집락으로 묶어 평균 6개 정도의 집락으로 한 조사구를 분할한 후 임의추출로 1개 집락을 선택해 그 집락 북쪽에 있는 세 집락 전체를 조사했다. 나머지 지역은 한 조사구당 50가구 기준으로 위와 같이 했다.

□ 최종적으로 추출된 KLIPS의 5,000가구는 시의 동부 4,582가구 + 시의 읍면부 416가구로 구성된다.

〈표 II-1〉 최종 추출된 조사구와 조사가구

	전체 모집단		10%표본조사구		표본		추출률(%)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조사구	가구수
전국 시부	190,250	11,100,320	19,025	1,110,032	951	5,000	0.4999	0.0450
시의 동부	173,530	10,098,910	17,353	1,009,891	871	4,582	0.5019	0.0454
시의 읍면부	16,720	1,001,410	1,672	100,141	80	418	0.4785	0.0417

□ 2단계에서 추출한 목표표본가구 5,000가구 중 11.3%인 563가구는 이사를 하였으며, 이중 40.1%는 추적 조사에 성공하였다.

※ 최초 표본 추출 단계에서 군부는 제외되었으나, 이후 이사가구 추적 조사 과정에서 군부로의 이주 가구가 발생하여 최종 표본에는 군부지역 가구가 포함되었다.

□ 5,000가구 중 75.5%인 3,773가구를 조사 성공하였다. 강력거절, 이사 후 추적불가 등의 사유에 따라 대체된 가구는 1,227가구인데, 대체를 위해 1,976가구를 접촉하였다. 대체가구 성공률은 62.1%였다. <표 II-2>는 대체과정을 거친 조사구별 최종 응답가구의 가구수와 가구비율이다.

〈표 II-2〉 KLIPS 1차년도 조사가구 개요

	총접촉 가구수	최초접촉 가구수	최초성공 가구수	대체가구 접촉수	대체성공 가구수	최초성공 가구비율	대체성공 가구비율
서울	2,109	1,362	954	747	408	70.0	30.0
부산	600	485	391	115	94	80.6	19.4
대구	452	320	239	132	81	74.7	25.3
인천	414	295	226	119	69	76.6	23.4
광주	197	160	134	37	26	83.8	16.3
대전	188	155	127	33	28	81.9	18.1
울산	150	120	100	30	20	83.3	16.7
경기	1,217	853	617	364	236	72.3	27.7
강원	200	130	94	70	36	72.3	27.7
충북	145	110	86	35	24	78.2	21.8
충남	152	125	107	27	18	85.6	14.4
전북	273	200	151	73	49	75.5	24.5
전남	164	125	101	39	24	80.8	19.2
경북	356	270	205	86	65	75.9	24.1
경남	359	290	241	69	49	83.1	16.9
전국	6,976	5,000	3,773	1,976	1,227	75.5	24.5

2. 가중치 부여방식 및 사용방법

2.1 1차년도 가중치 부여

2.1.1 가중치 부여방법

□ KLIPS는 패널조사이나 1차 조사는 횡단면조사이므로 1차년도의 가중치는 일반적인 횡단면 조사에서의 가중치부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년도 이후에는 횡단면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s) 뿐만 아니라 종단면가중치(longitudinal weights)가 필요하기 때문에 1차년도 횡단면가중치를 부여할 때 2차 웨이브 이후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횡단면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과정을 거친다.

• 1단계 : 표본추출확률(selection probability) 계산

- 대부분의 횡단면조사는 표본추출확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표본추출확률을 계산한다. 이 때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부분포함(incomplete coverage)문제도 동시에 고려된다.

• 2단계 : 무응답(nonresponse) 조정

- 무응답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변수, 예를 들면 표본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료를 통해 표본을 분할하는 방법, 모든 표본의 알려진 성질을 이용하여 회귀분석(또는 로짓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KLIPS에서는 응답가구원과 무응답 가구원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설정하여 응답확률추정치(fitted probability)를 구하였다.

• 3단계 :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 사후층화과정은 표본 데이터의 한계분포를 모집단의 한계분포와 같게 조정하는 과정이며, 표본틀의 과소 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2.1.2 표본추출확률의 계산

□ 표본조사구 추출확률

- 지역별 도시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지역별 전체조사구 중에서 도시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며, 도시조사구중에서 표본조사구로 추출될 확률은 도시조사구 중에서 표본조사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확률

① 서울 및 6대 광역시 : 0.1*(해당 시의 표본조사구수/해당시의 조사구수)

② 도의 동부 : 0.1*(해당 도의 동부 표본조사구수/해당 도의 동부 조사구수)

③ 도의 읍면부 : 0.1*(해당 도의 읍면부 표본조사구수/해당 도의 읍면부 조사구수)

• 최종표본가구 추출확률 = 총접촉시도가구/조사구내 97고특응답가구수

• 가구추출확률 = 조사구추출확률 × 최종표본가구 추출확률

2.1.3 응답률과 면접확률의 계산

□ 일반적으로 응답률조정을 위해서는 무응답가구에 대한 특성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KLIPS 1차년도 조사의 경우 무응답가구의 지역(광역시 또는 기타 도의 동부 및 읍면부) 또는 ED(Enumeration districts : 조사구)를 이용하여 응답률을 계산할 수 있다. KLIPS 1차웨이브의 응답률은 ED내에서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특성이 같다는 가정 하에 ED내에서의 응답률을 면접확률로 이용하였다.

- 응답률 = 최종조사가구수/ED내 총접촉가구수

2.1.4. 1차년도 가중치의 계산

□ 추출확률과 응답확률을 모두 고려한 가구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서울 및 6대 광역시 : 0.1*(표본조사구수/도시조사구수)*(ED내 접촉가구수/ED내 고특조사 가구수)*(최종 성공가구수/ED내 접촉가구수)
- 도의 동부 : 0.1*(표본조사구수/해당 도의 동부 조사구수)*(ED내 접촉가구수/ED내 고특조사가구수)*(최종 성공가구수/ED내 접촉가구수)
- 도의 읍면부 : 0.1*(표본조사구수/해당 도의 읍면부 조사구수)*(ED내 접촉가구수/ED내 고특조사가구수)*(최종 성공가구수/ED내 접촉가구수)

□ 추출된 가구에서는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였으므로 동일 가구내에서는 가구가중치와 가구원가중치는 동일하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감안하면 특정한 가구의 가중치는 가구추출확률과 가구가 속한 지역의 응답률의 곱의 역수로 나타나게 된다.

2.2. 2차년도 이후 가중치 부여

2.2.1. 종단면조사에서 가중치 부여시 고려사항

□ 종단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표본탈락(panel attrition)이 발생한다. 표본탈락은 가구

차원에서 발생하거나 개인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도 발생할 수 있다. 항목무응답의 경우는 가중치부여 방법보다는 보정(imputation)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결혼,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가구에 새로운 개인이 포함되거나 탈락하기도 하며, 표본가구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구원인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종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구원 구성이 달라지게 되어 종단면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구의 개념이 모호해진다.

2.2.2 종단면 개인 가중치 및 가구 가중치 부여 방법론

□ KLIPS의 경우, 미국의 PSID와 동일한 추적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PSID와 동일하게 Duncan(1995)의 가중치 부여방법을 따르고 있다. Duncan(1995)의 가중치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조사년도에서 가구차원의 가중치를 구한다.
  - 이 때 표본추출과정에서 사용된 상이한 추출확률을 감안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상이한 응답률로 보정한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집단의 정보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비율조정(ratio estimating procedure)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이 과정은 횡단면조사의 가중치 부여방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최초 조사년도에서 작성된 가구가중치를 연령이나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원의 가중치로 사용한다.
- 2차 조사 이후부터는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모두 이용한다. 예를 들어 응답여부를 나타내는 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이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며,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2차 조사에서 무응답조정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한다.

- 이 때 2차 조사에서는 존재하지만 1차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비표본가구원(non sample adults)이나 1차 조사 이후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의 경우는 개인차원의 무응답조정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2차 조사에서 산출된 가구원 가중치의 평균을 이용하여 2차 조사의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 평균을 구할 때는 원시가구원의 가구원가중치의 합을 전체 가구원수(비표본가구원+표본가구원)로 나누어 계산한다. 원시표본가구원과의 결혼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구원가중치를 부여한다. 새롭게 태어난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제외하며, (이들이 응답대상가구원이 되었을 때는) 이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가구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 이러한 가중치부여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구 차원의 무응답조정가중치가 산정되며 최초 조사에 존재했던 가구원(즉 원시표본가구원)의 개인차원의 무응답조정가중치가 산출된다. 비표본가구원의 경우는 0의 개인가중치를 가지며 새롭게 태어난 가구원의 경우에는 이들이 태어난 조사년도에서의 가구가중치를 개인가중치로 부여받게 된다.

• 3-9차 조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다.

- 1차 웨이브를 기준으로 3-9차 조사에 존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진입과 탈락을 반복하는 원시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2.2.3 횡단면 개인 가중치 부여 방법론

□ 횡단면 개인 가중치는 가구 가중치의 평균을 해당 가구원 전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 이는 가구가 응답할 경우 가구원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구원의 응답이 아니라 가구의 응답이 조사 참여에 결정적이라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2.3 가중치의 스케일 조정

□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의 총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주어 산출하였다.
-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 가중치 값은 <표 Ⅱ-3> 및 <표 Ⅱ-4>와 같다.
- <표 Ⅱ-3>을 통해 가구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당시 1가구당 평균적으로 2,255가구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차년도 이르면 1가구당 평균적으로 약 2,593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응답 패턴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들이 부여되므로 조사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표준편차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가구가중치의 특성

(단위 : 명)

	사례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1차년도	5,000	11,276,899	2,255	415
2차년도	4,508	11,453,518	2,541	575
3차년도	4,266	11,632,899	2,727	721
4차년도	4,247	11,815,100	2,782	850
5차년도	4,298	12,000,165	2,792	946
6차년도	4,592	12,188,092	2,654	1,001
7차년도	4,762	12,378,982	2,599	1,063
8차년도	4,850	12,575,245	2,593	1,124
9차년도	5,001	12,769,778	2,553	1,175

- <표 Ⅱ-4>에서는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각 연도내에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의 평균값은 동일하다. 또한, 각

각의 가중치가 복원하는 모집단의 수(아래 표에서의 합계치)는 동일하다.

- 그러나,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의 표준편차는 서로 다르며, 횡단면 가중치보다는 종단면 가중치의 변동성(표준편차)이 더욱 크다. 예컨대, 원가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횡단면 가중치 값을 가지지만, 종단면 가중치는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종단면 가중치의 분산이 더욱 크다.
- 가구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중치의 분산(표준편차) 역시 조사차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표 II-4〉 개인가중치의 특성

(단위 : 명)

	개인 사례 수	합계	평균	표준편차	
				횡단면	종단면
1차년도	13,321	30,039,370	2,255	416	-
2차년도	12,039	30,503,448	2,533	577	676
3차년도	11,205	30,974,696	2,764	726	879
4차년도	11,051	31,453,224	2,846	854	1,056
5차년도	10,966	31,939,145	2,913	964	1,215
6차년도	11,543	32,432,573	2,810	1,029	1,314
7차년도	11,661	32,933,624	2,824	1,117	1,446
8차년도	11,580	33,442,416	2,888	1,211	1,609
9차년도	11,756	33,959,068	2,889	1,277	1,720

2.4 가중치 변수명 및 제공형태

□ 1-9차년도 가중치의 변수명은 다음과 같다.

- 9차년도 release 이전에는 KLIPS 홈페이지를 통해 가중치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부터 해당 데이터 셋에 통합되어 제공된다.
- 가구가중치는 각 연도별 가구데이터에, 개인가중치는 각 연도별 개인데이터에 각각 <표 Ⅱ-5>에 제시된 것과 같은 변수명으로 제공된다.

〈표 II-5〉 1-9차년도 가중치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가구 가중치	w1_h	w2_h	w3_h	w4_h	w5_h	w6_h	w7_h	w8_h	w9_h
개인 횡단면 가중치	w1_p	w2_pc	w3_pc	w4_pc	w5_pc	w6_pc	w7_pc	w8_pc	w9_pc
개인 종단면 가중치		w2_pl	w3_pl	w4_pl	w5_pl	w6_pl	w7_pl	w8_pl	w9_pl

2.5 가중치 사용방법

□ 가구수준의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가중치를 활용하면 된다.

□ 개인수준의 분석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중치가 있는데, 분석대상에 따라 적합한 가중치가 달라진다.

- 이를테면, 9차년도 평균임금을 계산하거나 1-9차년도 평균임금 추이를 계산하고 싶다면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하면 된다. 이 경우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해도 통계이론상 문제는 없지만, 종단면 가중치는 원가구원에 대해서만 부여되므로 분석가능 사례수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횡단면 가중치를 활용하면 비표본가구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례수가 늘어나 이론상 분산이 작아지는 장점도 생기므로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추천한다.
- 종단면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 종단면 가중치 사용을 추천한다. 여기서 종단면 분석이란 이행행렬 작성처럼 7차년도에 실업인 사람 중 9차년도 취업으로 바뀐 사람은 얼마나 되나 같은 주제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G. Kalton과 J.M. Brick이 작성한 "Weighting Schemes for Household Panel Surveys (SIPP, No.199)"에 따르면, KLIPS처럼 비원표본가구원이 분가할 경우 추적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패널조사에서는 횡단면 가중치를 이용해 종단면 분석을 할 경우 분석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표본에서 이탈하는 비원표본가구원이 증가하는데, 이들의 무응답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모수 추정에 편의(bias)가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분석기간이 짧을 경우 떨어져 나가는 비원표본 가구원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 사례수를 늘리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종단면 가중치 사용을 권장한다.

Ⅲ. 자료의 주요 특성

1. 설문지 구성

□ KLIPS의 설문지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어진다. 개인용 설문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나뉘어지며, 취업자용 설문은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으로 나뉘어진다.

□ 1998년 1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으로 나뉘고, 개인용 설문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조사와 개인용 설문, 신규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개인공통 설문으로 구성된다. 2000년 3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개인용, 신규용, 부가조사(청년층)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된다. 2001년 4차년도 조사부터는 가구용, 개인용, 신규용, 부가조사 설문으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은 유형설문과 취업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된다. 4차년도 부가조사는 건강과 은퇴였으며, 6차년도에는 중고령자, 7차년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 8차년도 조사에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9차년도에는 청년용에 관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 1999년 2차년도 조사부터 개인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였다. 유형설문은 지난 조사시의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지속여부를 토대로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가구설문이 가구에 관한 정보를 담고 개인설문이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면 유형설문은 개인이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응답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일자리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표 III-1〉 1-9차년도 KLIPS 설문지의 구성

<table>
<tr><th></th><th colspan="3">구 성</th></tr>
<tr><td rowspan="2">1차년도(1998)</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td></tr>
<tr><td rowspan="3">2차년도(1999)</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유형 ①~⑧
개인공통</td></tr>
<tr><td colspan="2">신규용 설문</td><td></td></tr>
<tr><td rowspan="4">3차년도(2000)</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유형 ①~⑧
임금근로자 개인
비임금근로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td></tr>
<tr><td colspan="3">신규용 설문</td></tr>
<tr><td colspan="3">부가조사 설문(청년층)</td></tr>
<tr><td rowspan="9">4차년도(2001)
~
9차년도(2006)</td><td colspan="3">가구용 설문</td></tr>
<tr><td colspan="2">개인용 설문</td><td>유형 ①~⑧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td></tr>
<tr><td colspan="3">신규용 설문</td></tr>
<tr><td rowspan="6">부가조사
설문</td><td>4차년도</td><td>건강과은퇴</td></tr>
<tr><td>5차년도</td><td>없음</td></tr>
<tr><td>6차년도</td><td>중고령자</td></tr>
<tr><td>7차년도</td><td>근로시간과 여가</td></tr>
<tr><td>8차년도</td><td>노동조합과 노사관계</td></tr>
<tr><td></td><td>9차년도</td><td>청년용</td></tr>
</table>

□ <표 Ⅲ-2>는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방법이다.

- 지난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①,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③의 설문을 받는다.
- 지난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는 지속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②,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④의 설문을 받는다.
- 지난 조사 이후 시작되었고 현재도 지속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⑤,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⑦의 설문을 받으며,
- 지난 조사 이후 시작되었고 현재 조사 이전에 끝난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유형⑥, 비임금근로자는 유형⑧의 설문을 받는다.

〈표 III-2〉 일자리 지속을 통한 유형설문의 판별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여부	종사상 지위	현재 계속 여부	유형
있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①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②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③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④
없었다	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⑤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⑥
	비임금	현재도 하고 있다.	유형 ⑦
		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 ⑧

⊙User notes : 유형 설문지는 개인단위가 아닌 일자리 단위로 성립되는 설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일자리 경력에 따라 복수의 유형 설문이 가능하다. 유형설문의 내용 중 현재 지속되는 주된 일자리의 정보는 개인 데이터의 '주된 일자리'에 수록되며, 유형설문의 모든 내용은 직업력 자료에 수록된다.

2. 자료 구성

□ KLIPS 조사는 설문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 구성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가공)하였다. 이중 가구용, 신규조사자용, 부가조사자용 설문지와 가구용 자료, 신규 자료,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은 원래의 설문지와 그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용 설문(유형설문과 개인공통 설문)의 내용은 개인용 자료와 직업력 자료에 담겨져 있으며, 유형설문의 내용이 별도의 자료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 KLIPS의 각 연도별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구자료 : 모든 조사년도별로 만들어지며 가구조사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개인자료 : 모든 조사년도별로 만들어지며, 유형설문지,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 등을 토대로 구성된다.
- 신규자료 : 2차년도 이후부터 만들어지며, 신규조사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부가조사자료 : 3차년도 자료와 4차~9차년도자료에 포함되며, 부가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 직업력자료 : 직업력 자료는 유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력(work history)를 누적한 형태의 자료이므로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 연도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자료만이 존재한다.

※ 1-9차년도 Release 자료에서 개인자료는 신규응답자들을 포함하는 케이스들이다. 즉, 신규자료로 제공되는 케이스들은 개인자료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 14세 당시의 성장지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자료 분석시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를 merge할 필요가 없다.

〈표 III-3〉 1-9차년도 KLIPS 자료의 구성

<table>
<tr><th colspan="3"></th><th>1차년도
(1998)</th><th>2차년도
(1999)</th><th>3차년도
(2000)</th><th>4차년도
(2001)</th><th>5차년도
(2002)</th><th>6차년도
(2003)</th><th>7차년도
(2004)</th><th>8차년도
(2005)</th><th>9차년도
(2006)</th></tr>
<tr><td colspan="3">가구용 자료</td><td>KLIPS
01H</td><td>KLIPS
02H</td><td>KLIPS
03H</td><td>KLIPS
04H</td><td>KLIPS
05H</td><td>KLIPS
06H</td><td>KLIPS
07H</td><td>KLIPS
08H</td><td>KLIPS
09H</td></tr>
<tr><td rowspan="5">개인공통</td><td colspan="2">개인용 자료</td><td>KLIPS
01P</td><td>KLIPS
02P</td><td>KLIPS
03P</td><td>KLIPS
04P</td><td>KLIPS
05P</td><td>KLIPS
06P</td><td>KLIPS
07P</td><td>KLIPS
08P</td><td>KLIPS
09P</td></tr>
<tr><td colspan="2">유형 ①~⑧</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취업자</td><td>임금근로</td><td>○</td><td rowspan="3">○</td><td>○</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비임금근로</td><td>○</td><td>○</td></tr>
<tr><td colspan="2">미취업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신규용 자료</td><td>×</td><td>KLIPS
02N</td><td>KLIPS
03N</td><td>KLIPS
04N</td><td>KLIPS
05N</td><td>KLIPS
06N</td><td>KLIPS
07N</td><td>KLIPS
08N</td><td>KLIPS
09N</td></tr>
<tr><td colspan="3">부가조사 자료</td><td>×</td><td>×</td><td>KLIPS
03Y</td><td>KLIPS
04A</td><td>×</td><td>KLIPS
06A</td><td>KLIPS
07A</td><td>KLIPS
08A</td><td>KLIPS
09A</td></tr>
<tr><td colspan="3">직업력 자료</td><td colspan="9">KLIPS09W</td></tr>
</table>

3. 조사내용

3.1 조사내용

□ KLIPS는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므로 기본적으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이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조사년도별 조사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 <표 Ⅲ-4>는 1차 조사 내용을 설문지 구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1차년도 설문은 가구용, 임금근로자용, 비임금근로자용, 미취업자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4〉 1차년도(1998년) 조사 내용

설문지 구성	조사내용	
가구용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가구원의 지난 1주간 활동 ▪ 자녀 보육 관련 사항	▪ 주거상태 ▪ 가구의 소득 ▪ 최근의 경제위기(IMF)에 관한 견해
임 금	▪ 출생지 및 성장지 ▪ 직업 및 산업과 일자리 형태와 규모 ▪ 일자리의 근무 형태 및 규모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직무 만족도 ▪ 주된 일자리의 임금관련 사항 ▪ 노동조합관련 사항	▪ 현재 일자리 취업방법과 취업경로 ▪ 부업/아르바이트관련 사항 ▪ 이전직장관련 사항 ▪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 정규교육관련 사항 ▪ 경제위기 후 변화사항
비임금	▪ 출생지 및 성장지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창업 방법 ▪ 이전 직장 관련 사항 ▪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 경제위기 후 변화사항	▪ 직업 및 산업과 일자리 규모 및 매출액과 소득 ▪ 직무 만족도 ▪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사항 ▪ 현재 직장 지속여부와 희망하는 일자리 ▪ 정규교육관련 사항
미취업	▪ 경제활동상황 ▪ 구직활동관련 사항 ▪ 이전직장 및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일자리 관련 사항 ▪ 만 15세 이후 일자리 경력 ▪ 정규교육관련 사항	▪ 희망하는 일자리관련 사항 ▪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 경제위기 관련 사항

□ 2차년도 조사는 가구용, 유형판별을 위한 예비조사, 유형, 개인용 공통, 신규조사자용으로 구성되며 설문지의 구성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Ⅲ-5>과 같다.

□ 3차년도 조사내용은 <표 Ⅲ-6>에 제시되어 있다.

□ 4차년도부터의 조사내용 중 공통된 부분은 <표 Ⅲ-7>에, 추가된 문항은 <표 Ⅲ-8>에 설문별로 정리되어 있다.

〈표 III-5〉 2차년도(1999년) 조사 내용

<table>
<tr><th>설문지 구성</th><th colspan="2">내 용</th></tr>
<tr><td>가구용</td><td colspan="2">▪ 가구원의 인적 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 주거관련 사항 ▪ 가구의 소득 ▪ 가구의 소비
▪ 가구의 자산 ▪ 금융 자산 및 부채</td></tr>
<tr><td>예비조사</td><td colspan="2">▪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일자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td></tr>
<tr><td rowspan="2">유형①~유형⑧</td><td>유형
①,②,
⑤,⑥</td><td>▪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근로시간관련 사항
▪ 일자리의 임금관련 사항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일자리의 형태 및 규모
▪ 일자리의 근무형태</td></tr>
<tr><td>유형
③,④,
⑦,⑧</td><td>▪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td></tr>
<tr><td>개인용 공통</td><td colspan="2">▪ 경제활동상태 ▪ 일자리의 근로시간관련 사항 ▪ 부업
▪ 직무만족도 ▪ 현재 일자리 지속여부와 교육, 기술수준 적합도
▪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 구직활동 및 희망 일자리관련 사항
▪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현재의 혼인상태 및 생활만족도</td></tr>
<tr><td>신규조사자</td><td colspan="2">▪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td></tr>
</table>

〈표 III-6〉 3차년도(2000년) 조사 내용

설문지구성	내 용	
가구용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주거관련 사항 ▪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 자녀교육관련 사항 ▪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겪는 항목
예비조사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⑧	유형 ①,②, ⑤,⑥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근로계약관련 문항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임금관련 사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구직활동 관련 사항
	유형 ③,④, ⑦,⑧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임금	▪ 경제활동상태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직무만족도 ▪ 구직활동,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 ▪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근로시간관련 사항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혼인상태
비임금	▪ 경제활동상태 ▪ 직무만족도 ▪ 구직활동 및 구직 시 어려움,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 ▪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혼인상태
미취업	▪ 경제활동상태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 ▪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줄망	▪ 혼인상태
청년용	▪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의 유형 ▪ 재학 중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실습 유무 ▪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 학교 졸업(중퇴)이후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사항 ▪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산업, 직업 및 일자리 형태와 규모 ▪ 첫 일자리의 소득 및 근로 시간,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첫 일자리 이후 구직활동 및 취업 여부	
신규	▪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표 III-7〉 4차년도~9차년도 조사 내용 (공통)

설문지 구성	내 용
가구용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사항 ▪ 주거 관련 사항 / ▪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사항 ▪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일자리의 노동조합 ▪ 근로계약관련 사항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임금관련 사항 ▪ 구직활동 관련 사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창업과정의 어려움
취업자 개인	▪ 경제활동상태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관련 사항 ▪ 직무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사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미취업자 개인	▪ 경제활동상태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건강과 은퇴	▪ 현재 건강상태와 일자리 관련 사항 ▪ 장애/장해 관련 사항 ▪ 장애를 제외한 지병에 관한 사항 ▪ 입원경험 ▪ 의료기관 이용 경험 ▪ 건강 관련 보험 및 보험료, 의료비 관련 사항 ▪ 흡연, 음주 여부 등 기타 건강 관련 사항 ▪ 부양 또는 피부양 여부 ▪ 은퇴 여부 및 은퇴 계획 ▪ 은퇴 시기 및 은퇴 당시의 자산규모 ▪ 은퇴 준비 여부 및 은퇴 이후의 변화
신규	▪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 회고적 일자리

3.2 변경사항

□ 2차년도(1999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지난 조사 이후 변동가구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분가, 사망한 가구원 관련 사항, 가구의 자산 및 부채
- 삭제 : 자녀교육관련 사항
- 개인용 설문
- 구조변경 : 일자리의 지속여부와 임금/비임금 여부를 기준으로 8개의 유형 설문 구성 임금, 비임금, 미취업자 개인에 관한 자료를 '개인용 공통'으로 통합함.
- 추가 : 사회보험급여수급 관련 사항
- 삭제 : 출생지 및 성장지, 정규교육
- 신규용 설문 추가

□ 3차년도(2000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자녀교육관련 사항, 가구단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목
- 개인용 설문
- 구조변경 : 개인용 공통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설문으로 나눔.
- 추가 : 근로계약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유형설문)
  고용상의 특성
- 파견 근로, 관리 감독 여부, 승진경험과 가능성, 부가 급여 및 복리후생(임금근로자용)
  주관적인 계층 소속감,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줄망(임금, 비임금 공통)
- 삭제 : 부업과 직업훈련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실시
- 부가조사는 3차년도 조사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년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차년도(2001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가족관계 및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와 저축액
- 삭제 : 건강상태

• 개인용 설문 :

- 구조변경 : 임금·비임금용 설문 → 취업자 공통으로 통합함. 따라서 개인용 설문은 취업자 설문과 미취업자 설문으로 구성됨.
- 추가 : 정규/비정규직 여부, 변경여부 및 변경 시기, 사업체명 및 위치(유형 1,2,5,6). 사업체 시작 동기 및 창립시기, 시작할 당시의 총 자본금, 창업훈련 경험 유무 및 창업 당시의 어려움, 사업체 운영에 대한 평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유형3, 4, 7, 8)

  졸업한 학교명, 입학 및 졸업년월, 학교유형, 소재지 등 정규교육과 관련된 항목 직업훈련 및 자격증에 관한 항목(취업자공통)
- 삭제 : 전근에 관한 사항, 주로 일하는 장소, 근로계약 갱신/연장 혹은 계속근로 여부(유형1, 2, 5, 6) 주로 일하는 장소, 연간매출액(유형3, 4, 7, 8)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부사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실시

□ 5차년도(2002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비동거 이유, 가구소비 항목 중 '용돈' 추가
- 삭제 : 가구주 및 배우자의 형제관계

• 개인용 설문 :

- 추가 : 교대제 관련 문항, 실업급여 관련 문항, 현 사업체의 자산 및 사업의 장기적 전망(유형3, 4, 7, 8), 업체 시작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항목들(비임금근로자), 수능점수 관련 항목, 비정규직 판별을 위한 항목추가
- 삭제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사업체 시작당시 상황(유형 7, 8), 현재까지 다닌 모든 정규교육 항목 삭제(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만 조사)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6차년도(2003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생활비 항목중 '피복비', 보험 종류 중 건강보험 추가
- 변경 : 자녀의 교육 종류별 수업료 항목에서 자녀 1인당 수업료로 단순화
- 삭제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기관 종류, 이용횟수 등 삭제

• 개인용 설문 :

- 추가 : 임금근로자의 유형 1, 3설문 중 기업체 규모(본사, 지점 등 포함)이외에 사업체 규모 측정항목 추가, 취업자/미취업자 설문 중 연간 근로소득을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 조사, 평생학습, 고등학생의 성적과 진학, 아르바이트 경험 등에 관한 항목 추가, 형제자매의 수
- 삭제 : 비임금 유형3설문의 현재 사업가치 및 장기적 전망, 취업자/미취업자 설문의 대학입학 수능(학력고사) 시험여부와 시험점수 등 삭제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실시

□ 7차년도(2004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분가이유에 '유학'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생활비에서 기존에 '기타'로 처리되었던 항목 중 '헌금 및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대중교통비'등이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문항에서도 '차량유지비', '통신비'등이 추가
- 변경 :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의 보기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19개로 조정
- 삭제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기관 종류, 이용횟수 등 삭제

• 개인용 설문 :

- 추가 : '차별 관련 문항' 및 위험에 대한 선호도와 경제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문항 추가
- 변경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1,2,5,6의 기업형태 설문에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추가, 교대제형태에 '4조2교대'를 추가

- 삭제 : 국민연금가입여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적 삭제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실시

□ 8차년도(2005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사교육 '문화센터'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생활비 항목표 이후에 소득과 생활비를 비교하여 생활비 충당방법을 질문함.

- 변경 : 생활비의 '문화비' 항목을 '교양오락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저축 항목의 '계'는 '곗돈 불입금'으로 용어를 구체화함.

• 개인용 설문 :

- 추가 :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3,4,7,8의 월평균근로소득 설문에서 '적자액'을 묻는 문항 추가. 교대제 형태의 문항예시를 추가하고, 교대제 근무시간 주기에 '변경없음'을 추가. 취업자 설문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무시간 변화 문항을 추가하고, 근무시간 결정주체, 일자리에 대한 전망에 관한 문항도 추가함. 또, 취업자와 미취업자 설문에는 대학이나 대학원 편입여부 문항,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 정기적인 운동, 술과 담배에 관한 문항,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와 노동조합이 갖는 영향력에 관한 의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견해, 부모님 생존여부, 14세무렵 경제형편 등의 문항이 추가됨.

- 변경 : 유형 3,4,7,8의 '가족종사자'를 '무급가족종사자'로 용어를 변경. 취업자용 설문의 직무만족도 측정문항에서는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서'라는 구절을 삭제함.

- 삭제 : 차별관련 문항과 위험에 대한 태도(복권과 현금선택)에 관한 문항은 삭제. 질병진단과 관련된 응답표에서 '없다' 항목은 삭제.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부가조사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실시

□ 9차년도(2006년) 조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 가구용 설문

- 추가 : 영어 및 논술에 대한 사교육 문항 추가, 자산관련 정보를 확대하고자 자동차 소유 및 구입가격에 대한 문항을 추가

• 개인용 설문 :

- 추가 : 취업자 미취업자 공통설문에서 장애여부, 장애등급, 장애 유형 등에 대한 문항 추가.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문항 추가.
- 변경 : 유형 1, 2, 3, 4에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시간제 전일제 여부를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조사함.
- 삭제 :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 키, 혈액형, 몸무게 문항 삭제.

• 신규용 설문 : 개인용 설문의 변경사항 모두 반영

•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실시

⊙User notes : 각 조사년도별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설문 구조에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개인용 설문의 구조는 1차년도에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개인으로 구성되었고, 2차년도에는 경제활동상태별 구분 없이 개인용 공통으로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3차년도에 개인용 설문은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개인 설문으로 구분되며 4차년도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 개인과 미취업자 개인 설문으로 구성된다.

참조 : FAQ Q23, Q24

Ⅳ. 변수 가이드

□ KLIPS 자료의 변수들은 대부분 설문지의 문항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핵심이 되는 변수들을 추가로 가공하여 제공된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문자'로 조사된 정보들은 모두 '숫자'형태로 전환되어 제공된다.

□ KLIPS 자료의 변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키(key)변수 : KLIPS는 매년 동일 가구와 동일 개인을 반복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패널구성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key변수가 부여된다. KLIPS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간 연결을 할 때 key변수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key변수의 예로 hhid, pid 등을 들 수 있다.
- 그 외의 주제별 변수 : 키변수와 구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로 설문지의 내용을 반영한 변수들이다.

⊙User notes : KLIPS 자료의 변수명은 자료별로 다음과 같은 고유의 영문 이니셜을 갖고 있으며, 영문 이니셜 뒤에는 일련의 숫자로 구성된다.

v___ : 가구자료 **p____ : 개인자료**
n___ : 신규자료 **j____ : 직업력 자료**
a___ : 부가조사자료(단, y____ : 3차년도 청년용 자료)

1. key변수의 이해와 이용

□ KLIPS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ey변수를 포함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각 자료별 key변수를 고유번호와 그 외의 key변수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의 key변수들로는 자료를 사용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구성변수와 인구학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KLIPS의 key변수들은 해당 년도마다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도 있지만, 조사 년도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띠는 변수들도 있다. 따라서 주요한 인구학적 key변수들의 1-9차년도 변수명을 정리하고 이 변수들의 이용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1 가구용 key변수

1.1.1 가구의 고유번호

□ KLIPS 가구용 자료에 담겨 있는 가구의 고유번호는 9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hhid06, hhid05, hhid04, hhid03, hhid02, hhid01, hhid00, hhid99, hhid이다.

- hhid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년도의 가구 번호(즉 원가구번호)를 의미하며 나머지 가구의 고유번호는 해당 년도의 가구번호를 의미한다.
- KLIPS 조사의 응답 가구는 매년 고정적이지 않으며, 분가 혹은 합가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가구가 생성되거나 혹은 기존의 가구가 소멸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
- 따라서, 가구번호가 missing인 경우는 당해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를 의미한다. 단, hhid의 경우에는 분가가구가 분가이전에 어떤 원가구에 소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값이 입력되어 있다.

〈표 Ⅳ-1〉 가구의 고유번호

KLIPS01H	hhid								
KLIPS02H	hhid	hhid99							
KLIPS03H	hhid	hhid99	hhid00						
KLIPS04H	hhid	hhid99	hhid00	hhid01					
KLIPS05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KLIPS06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KLIPS07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04		
KLIPS08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KLIPS09H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hhid06

1.1.2. 그 외의 key 변수

□ KLIPS의 가구용 자료에는 가구의 고유번호 외에 key가 되는 구성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유번호 외에 key가 되는 변수는 hwave01, hwave02, hwave03, hwave04, hwave05, hwave06, hwave07, hwave08, hwave09, hwaveent, sample98 등이다.

- 여기서 hwave는 각 해당년도의 응답여부를 의미한다. 즉 hwave01은 KLIPS 1차년도(1998년) 가구의 응답여부이며 hwave02는 KLIPS 2차년도(1999년) 가구의 응답 여부이다. 그 외의 가구용 구성변수와 그 의미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 KLIPS 가구용 자료는 당해년도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한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가구라면 가구용 자료상에 하나의 case로 입력된다.

- 예컨대, 9차년도 가구용 자료는 총 6438가구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9차년도에 응답한 가구는 5,002가구(hwave09=1)이다.

〈표 Ⅳ-2〉 각 연도별 조사 응답여부 판별 key 변수

hwave01 - hwave09	sample98
1-9차년도 각 차수별 응답여부	원가구 여부

1.2 개인용 key변수

1.2.1 개인의 고유번호

□ KLIPS 개인용 자료에 담겨 있는 개인의 고유번호관련 변수는 다음의 <표Ⅳ-1>과 같다. 개인용 자료에서는 key변수로 개인의 고유번호인 PID와 각 해당년도의 가구번호와 가구원 번호가 있다. PID는 KLIPS 응답 대상인 개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년도와 상관없이 불변하는 번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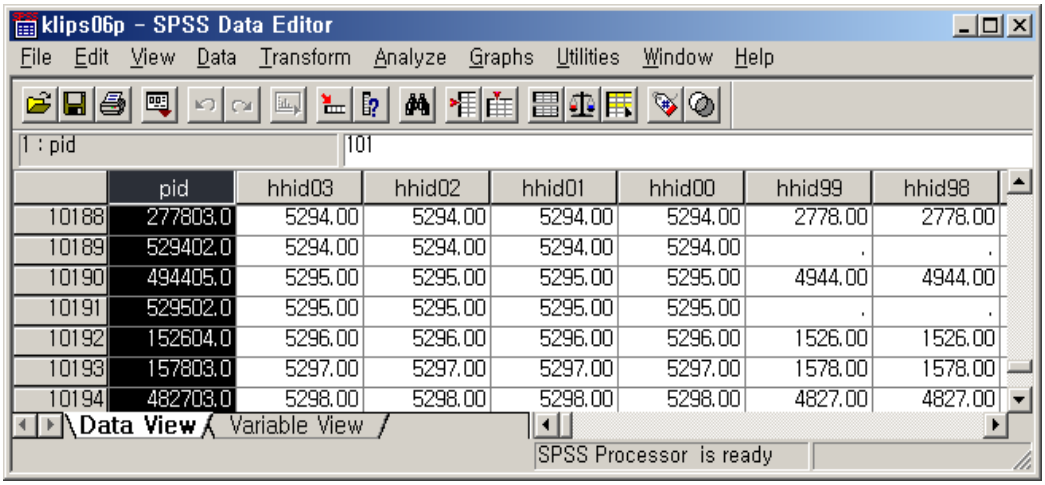
- PID는 개인이 처음으로 응답한 해의 가구번호와 그 가구에서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즉,

PID = 개인이 처음으로 응답한 해의 가구번호*100 + 몇 번째 가구원

이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PID = 494405인 개인은 현재 5295번 가구에 소속되어 있지만(hhid03= 5295) 1차년도에 처음 응답할 당시에는 4944번 가구에 소속되었던 5번째 가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PID = 529502인 개인은 5295번 가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3차년도(hhid00=5295)부터 노동패널 조사대상으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 개인의 고유번호



⊙User notes : 가구 및 개인의 고유번호는 자료간의 연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KLIPS자료의 자료간 연결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자료간의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연결 : 해당년도의 가구번호를 통해서 두 자료를 연결한다.
ex) 6차년도 가구와 개인 자료의 연결시 hhid03을 이용

나. 가구자료의 시계열 연결 : hh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이때 원가구인 경우에는 가구번호가 변동이 없으나, 분가가구의 경우에는 분가이전 원가구번호가 가구번호로 들어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 개인자료의 시계열 연결 : p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라. 개인자료와 개인자료(부가자료)의 연결 : pid를 이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FAQ Q4, Q5, Q6, Q8참조 .

1.2.2 그 외의 key 변수

□ 개인용 자료의 고유번호 외의 key가 되는 변수로는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1차 원가구원 여부, 취업상태, 고용형태, 근로시간형태, 종사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자료의 사용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 성별

- 성별 변수는 다음의 <표 Ⅳ-3>와 같으며, 자료값의 1은 남자 2는 여자를 의미한다.

〈표 Ⅳ-3〉 각 연도별 성별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남자 2=여자	P01555	P02001	P03001	P04001	P05001	P06001	P07001	P08001	P09001

◉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구자료에서 파악되지만 자료상으로는 개인자료에 key변수로 들어가 있다.
- 이때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가구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가구원이 가구주로 대체된다. 따라서 가구주와의 관계의 변수값은 조사 년도에 따라 동일개인에 대하여 고정적이지 않다.
- KLIPS자료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변수를 통하여 한 가구의 가족 구성형태 및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는 <표 Ⅳ-4>에 제시되어 있으며 변수값은 코드북의 open code를 참조하면 된다.

〈표 Ⅳ-4〉 1-9차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1차	2차 - 9차
open code	P01557	P02002 - P09002

◉ 연령

- KLIPS 자료에서 연령을 구성할 수 있는 변수로는 생년월일을 이용하는 방법과 만나이를 이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생년월일은 지난 조사시 응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을 거쳐 자료가 구성된다. 연령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생년월일과 만나이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표 Ⅳ-5〉 1-9차년도 연령 변수

		1차	2차 - 9차
생년월일	양(음)력여부	P01558	P02003 - P09003
	생년	P01559	P02004 - P09004
	생월	P01560	P02005 - P09005
	생일	P01561	P02006 - P09006
만나이		P01556	P02007 - P09007

◉ 혼인상태

- 혼인상태는 3차년도를 제외하고는 개인 및 신규설문 모두에서 조사되었다. 하지만, 3차년도의 경우에는 신규자료에서 물어보았고, 개인용 설문의 경우에는 변경여부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차년도의 개인자료의 경우 이전조사의 혼인 변수와 연결하여 현재의 혼인상태변수를 구성하여 사용해야 했다.
- 그런데 7차년도 자료부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차수별로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된 혼인상태 변수를 제공된다. 또한 혼인상태의 변화내용과 변화시기가 보정된 변수도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적절한 변수를 선택 사용하면 된다.
- 1차년도의 경우 혼인상태는 P01521-P01528의 8가지의 변수로 구성된다. 1차년도에는 현재의 혼인상태뿐만 아니라 최초로 결혼한 시기 등 혼인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다.
- 2차년도의 경우 혼인상태는 P02185-P02202의 18개의 변수로 자세하게 구성된다. P02185는 현재의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최초로 결혼한 시기와 전체 결혼 횟수 등이다.
- 3차년도의 경우 개인용 설문에서 현재의 혼인상태에 관해 묻지 않았다. 다만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지난 조사 이후 혼인상태의 변화여부와 변화횟수, 변화내용, 변화 시기 등의 변수가 있다. 따라서 3차년도 개인 자료에서 혼인상태를 구성하려면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자료에서 혼인상태를 구성하여 3차 자료에 연결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7차자료부터는 가공된 형태의 혼인상태 변수(p_mar00)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 이용상 불편을 감소시키고 있다.
- 4차년도의 경우 개인의 혼인상태는 설문지상 가구용 설문지에 한 문항으로 존재하며, 자료상에는 개인용 자료에 가구원 정보로 담겨 있다. 이때 다른 차수와는 달리 5개 항목이 아닌 3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묻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4차 변화상태 및 1-3년도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혼인상태를 구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7차년도부터는 p_mar01 변수를 사용하면 이와같은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5-9차년도의 경우 개인의 혼인상태는 개인용 및 신규용 설문지에서 최종혼인상태 및 혼인상태의 변화여부에 대한 문항이 조사되었다.

〈표 Ⅳ-6〉 각 연도별 개인용 혼인상태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9차
가공 자료	변수명	P01521	P02185	p_mar00	p_mar01	P05331	P06335	P07310 - P09310
	변수값	1=미혼 2=기혼유배우 3=별거 4=이혼 5=사별						

◉ 학력

- KLIPS의 학력 변수는 설문지상 가구용 조사에서 질문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에서 모두 제공된다. 학력변수는 학교, 이수여부, 학년 변수로 구성되므로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로의 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 학력 관련 변수는 년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1, 2차년도에는 학교, 이수여부, 학년, 전공계열의 네 가지 변수로 구성되었으나 3, 4차년도에는 전공계열 변수는 삭제되었다. 대신 4차년도 개인용 자료부터는 개인의 정규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Ⅳ-7〉 각 연도별 학력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 9차
학교	P01564	P02010	P03010	P04010	P05010 P09010
이수 여부	P01565	P02011	P03011	P04011	P05011 P09011
학년	P01566	P02012	P03012	P04012	P05012 P09012
전공계열	P01567	P02013	-	-	- -
졸업·수료·중퇴 시기(년)	-	-	-	-	P05013 P09013
졸업·수료·중퇴 시기(월)	-	-	-	-	P05014 P09014

⊙User notes : 학력변수의 구성 예는 다음과 같다.(8차년도 기준)

예1) 연속형(교육년수)

p08010(학력)=5 p08011(이수여부)=4 p08012(학년)=2의 값을 갖는 개인의 학력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따라서 이 개인의 교육년수는 9+2=11이 된다.

예2) 범주형

p08010(학력)=4 p08011(이수여부)=1의 값을 갖는 개인의 학력은 중졸로 연구자가 임의의 값을 부여하면 된다.

- 1, 2차의 전공 계열의 자료 구성은 약간 다르다. 1차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개인에 한하여 고등학교 전공계열을 조사했으며, 2차년도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이상에 재학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전공계열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1, 2차년도의 전공계열의 변수값은 다르다. 또한 1차년도 자료의 학력은 최고 대학원 석사까지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부터는 대학원 박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 '학년'은 졸업을 제외한 수료, 중퇴, 재학중, 휴학중인 개인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 한편 졸업・수료・중퇴 시기를 묻는 질문이 5차년도부터 가구용 설문에 추가되었다.

◉ 1차 원가구원 여부

- 1차 원가구원이라 함은 1차년도 표본으로 지정된 가구에 속한 개인을 뜻한다. KLIPS는 원가구로 선정된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개인을 기본적인 조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분가 혹은 혼인 등의 이유로 개인이 탈락 혹은 진입하기 때문에 '비원가구원'이 개인 조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 '원가구원'은 신규용 자료에 응답한 개인 중에도 존재한다. 즉, 1차 원가구원이면서 1차 조사 당시 조사가 누락된 개인 혹은 만15세가 되어 새로 조사된 개인은 원가구원에 속한다. 그러나, 개인자료 내에 신규조사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신규자료를 분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 개인(신규) 자료에서 **원가구원만을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개인**'을 제외하면 된다.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할 때 '비원가구원은 0의 값을 갖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 예컨대, 9차년도 개인 및 신규용 자료의 전체 가구원 11,756명 중에서 원가구원은 'w9_pl = 0'인 가구원을 제외하면 된다.

⊙User notes : KLIPS는 표본의 대표성을 갖는 동일 가구, 동일 개인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상의 이유로 원가구원 여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분석대상을 원가구원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다. 다만 가중치를 사용할 경우 이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비원가구원에 대해 '0'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한편,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에도 비원가구원은 동일한 가구내의 원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 취업/미취업 상태

- KLIPS 자료에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라 개인의 취업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 취업자 : (1) 조사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3)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사고, 휴가 또는 연가, 노사 분규,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

• 미취업자 :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일거리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지가 사업주인 사업체에서 평소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을 도운 경우를 말한다.

- 각 연도마다 설문의 형태와 자료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동일하지 않다.
- 1차년도 설문에서는 임금, 비임금, 미취업자로 구분된 설문 중 개인이 어떤 설문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변수(p01573 공통설문종류)를 통해 취업상태가 구분 가능하다.
- 2차년도 설문의 구성은 경제활동상태와 관계없이 개인용 공통 설문으로 통합되어 조사되었다. 따라서 개인용 자료의 취업상태(p02025) 변수를 통해 개인의 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취업자는 p02025=1,2,3인 경우이며, 미취업자는 나머지 모든 개인들(18시간미만 가족종사자 포함)이다.
- 3차년도의 설문의 구성은 임금근로자용, 비임금근로자용, 미취업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공통설문종류(p03022)를 통해 변수를 통해 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단 취업상태(p03029) 변수를 사용할 경우 p03029의 값이 '3'(가족종사자)인 경우는 p03030을 통해 '1'(18시간 이상)의 값은 갖는 경우만 가족종사자로 보아야 한다.
- 4~9차년도 설문의 구성은 취업자용과 미취업자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모든 응답자에게 설문한 취업/미취업 여부 변수를 통해 취업상태의 구분이 가능하다.

〈표 Ⅳ-8〉 각 연도별 취업/미취업 여부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9차
취업상태	P01573	P02025	P03022	P04022	P05022	P06022	P07021 - P09021
변수값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3=미취업자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3=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4=가족종사자 (18시간 미만)	1=임금근로자 2=비임금근로자 3=미취업자	1=취업자 2=미취업자			

◉ 경제활동상태

□ KLIPS의 개인용 설문문항 중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분류와 경제활동상태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 경제활동상태의 구분

<table>
<tr><td colspan="3">15세 이상 인구</td></tr>
<tr><td colspan="2">경제활동인구</td><td>비경제활동인구</td></tr>
<tr><td>취업자</td><td rowspan="2">실업자</td><td rowspan="2">-가사 혹은 육아
-학업
-연로
-심신장애
-기타</td></tr>
<tr><td>-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자</td></tr>
</table>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지가 없거나(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 실업자 : 현재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지난 1주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난 1주 동안 적당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KLIPS 자료를 통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될 수 있다. <표Ⅳ-9>는 각 조사년도별 경제활동상태 구분과 관련된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취업상태 변수를 통해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한 다음, 미취업자의 해당 변수를 통해 실업자를 구분하면 된다.

〈표 Ⅳ-9〉 각 연도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구분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8차
미취업자		P01573	P02025	P03022	P04022	P05022	P06022	P07021 - P09021
실업자	지난 1주간 구직여부	P01203	P02059	P03089	P04381	P05376	P06406	P07420 - P09420
	지난 1개월간 구직여부	P01204	P02060	P03090	P04382	P05377	P06407	P07421 - P09421
	취업 가능성 여부	P01205	P02061	P03091	P04383	P05378	P06408	P07422 - P09422
비경제활동인구		미취업자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1, 2차년도 자료에는 종사상 지위변수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3~9차 자료에서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변수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변수 값이 5가지로 구성된다.
-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구성하려면 p01136(유급종업원 유무)와 p01141(사업체 대표) 변수를 이용하면 되고,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구성하려면 p02025(취업상태)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표 Ⅳ-10〉 1-9차년도 종사상 지위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9차
종사상 지위	P01026	P02351	P03363	P04746	P05748	P06741	P07736 - P09736
변수값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1=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 4=고용주/자영업자 5=무급가족종사자				

◉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이 항목은 설문지상에는 1차년도에는 존재했고 2차년도에는 전년도와 비교한 변경여부만 묻고 있으며, 3차년도에는 삭제되었다가 4차년도에 다시 조사되었다.
- 자료상에는 3차년도를 제외한 1, 2, 4~9차년도에 존재한다. 따라서 3차년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구성할 때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merge)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단, 6차년도 정규/비정규 여부 변수는 missing 값이 다른 연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6차년도 조사 당시 새로 시작한 임금일자리, 즉 '유형5'에 해당하는 응답 대상자들에게 정규/비정규의 변화여부만 질문한 후 고용형태가 변하지 않은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7차년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여 코딩한 것이다. 따라서, 7차년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정규/비정규 여부는 missing으로 입력된 것이다.

〈표 Ⅳ-11〉 1-9차년도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여부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9차
1=정규직 2=비정규직	P01019	P02346	-	P04731	P05732	P06813	P07727 - P09727

◉ 근로시간 형태

-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형태를 묻고 있다.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전일제로 구분하였다.

〈표 Ⅳ-12〉 1-9차년도 근로시간 형태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9차
근로시간 형태	P01025	P02356	P03368	P04742	P05744	P06737	P07735 - P09735
변수값	1=시간제 2=전일제						

2. 오픈 코드(open code)

□ 각 변수의 변수값이 너무 많은 경우 모두 코드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코드로 처리하였다. 자료별 오픈코드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가구용 자료의 오픈 코드

□ 가구용 자료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오픈 코드로 처리했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구조사에서 파악되며 개인용 자료에도 포함된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코드값 '10')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를 통한 고유 코드값이 지정되고 이 값들을 각 가구원에게 부여된다.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는 <표 Ⅳ-13>와 같으며 오픈 코드는 코드북을 참조하면 된다.

〈표 Ⅳ-13〉 각 연도별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

	1차	2차	-	9차
가구주와의 관계	P01557	P02002	-	P09002

2.2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

□ 각 년도별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직위, 직업훈련종류, 학과, 설문지 거절 이유
- 2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직업훈련기관, 대리이유, 직위, 자격증종류
- 3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대리이유, 직위
- 4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자격증종류, 직위, 지병종류(병명), 산업, 직업, 대리이유
- 5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자격증종류, 직위, 산업, 직업, 대리이유
- 6-9차년도 : 가구주와의 관계, 직업훈련분야,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외 교육, 자격증종류, 급수, 직위, 산업, 직업, 대리이유

□ 각 연도별 개인용 자료에 공통으로 담긴 오픈 코드는 가구주와의 관계, 산업, 직업, 직위이다.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는 가구주('10')와 가구주의 배우자('20')를 중심으로 34종류로 구성된다.

2.2.1 직업코드 및 산업코드

-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입력시 1~5차년도 조사자료의 경우 산업과 직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1991년)와 한국표준직업분류(1992년)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3자리로 코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직위 코드는 649종류로 구성되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하지만, 개인·신규자료 및 직업력자료는 2002년에 개정된 새로운 표준산업·직업분류로 코드화된 '신코드'만을 제공하고 있다.

◉ 직업・산업 분류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실사 과정에서 산업과 직업을 전문가가 판별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 첫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원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표준분류 전문가가 직・산업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 둘째, 실사가 진행되면 면접원은 사업체의 이름, 사업체의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직위・직책을 Open Code로 상세히 조사한다.
- 셋째, 조사가 완료된 뒤 통계청에서 오랫동안 해당 업무 경험이 있으며 노동패널 직・산업코딩 작업을 계속 수행한 전문가가 Open Code의 내용을 보고 코딩을 부여한다.
- 마지막으로 전문가에 의해 코딩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부분을 확인한 후 입력한다.

□ 산업과 직업 코딩 작업은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년)와 한국표준직업분류(제5차 개정, 2000년)를 기준으로 하였다.

산업 코드 : 6 5 1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직업 코드 : 5 2 1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 산업과 직업 코드가 990번 미만의 3자리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3-digit)와 동일한 값이 입력되어 있다.
- 다만 산업의 경우에 농림어업은 다른 대분류와는 달리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앞자리는 0) 자료상으로는 유일하게 2자리로 구성된다.

□ 직·산업 코딩 과정에서 제공된 Open Code의 정보만으로 소분류(3-digit)까지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분류(1-digit)에 해당되는 값만을 부여하였다.

산업 코드 : 6 0 0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직업 코드 : 1 0 0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 산업과 직업 코드 숫자가 표준분류의 중분류 코드 숫자와 다른 경우는 분류 과정에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digit)만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런 경우 산업직업 코드는 대분류 값에 00 값을 붙여 세 자리 숫자로 맞춘 것이다.
- 대분류로 입력한 경우의 분류코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3〕 산업코드 및 직업코드 대분류

산업분류코드	직업분류코드
01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100 '광업' 150 '제조업' 40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50 '건설업' 50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50 '숙박 및 음식점업' 600 '운수업' 640 '통신업' 650 '금융 및 보험업' 700 '부동산, 임대업' 720 '사업서비스업' 7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0 '교육서비스업' 85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70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90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95 '산업 없음' 999 '분류불가'(직업력 자료의 경우 999 입력)	10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00 '전문가' 2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00 '사무 종사자' 400 '서비스 종사자 500 '판매 종사자' 600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00 '단순노무 종사자' 950 '군인' 995 '무직' 999 '분류불가'(직업력 자료의 경우 999 입력)

□ 노동패널 각 연도별 개인자료에서 직업 및 산업코드를 부여받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최종 일자리의 직업산업 코드, 최초 혹은 변경전 코드, 희망하는 일자리의 코드 등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료상에서도 개인자료, 신규자료, 부가조사 자료, 직업력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에 분포되어 있다.

- 여기서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코드 변수들을 소개한다.

〈표 Ⅳ-14〉 각 연도별 현재(최종) 일자리의 직업코드 변수

직업코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 9차년도
개인 자료	P01009 P01132	P02333	P03349	P04724	P05724	p06809	P07718 - P09718
직업력 자료	j620						

〈표 Ⅳ-15〉 각 연도별 현재(최종) 일자리의 산업코드 변수

산업 코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	6차	7차 - 9차
개인 자료	P01007 P01130	P02326	P03342	P04723	P05722	p06807	P07717 - P09717
직업력 자료	j618						

⊙User notes : 5차 release 이전 버전의 자료는 직업과 산업이 1992년 개정 코드인 '구코드'값으로 입력되어 있다. 따라서, 구버젼 자료의 이용자가 직업 및 산업의 구코드를 신코드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패치파일' 매뉴로 들어가면 구코드를 신코드로 전환시켜주는 SAS program file 및 SPSS syntax file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패치파일 주소 : http://www.kli.re.kr/klips/

2.2.2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코드

◉ 직업훈련 코드

□ 직업훈련 종류(분야)는 1, 4~9차년도에 조사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 종류(분야) 오픈코드의 구성은 1차년도와 4, 5차년도가 다른 코드로 구성되었다.

- 1차년도의 직업훈련종류는 707종류로 구성되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4~8차년도의 직업훈련분야는 최대 163번까지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모름/무응답은 '999'로 처리하였다.

□ 직업훈련 기관은 2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46종류로 구성된다.

□ 자격증 종류는 2, 4~9차에 조사되었으며 800종류로 구성된다.

2.2.3 학과 코드

□ 정규교육 관련 문항은 1-9차년도 자료에 모두 산재해 있으나 학과는 1차년도 개인조사, 2차년도 신규조사자, 3차년도 신규조사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 노동패널 자료에서의 해당 변수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16〉 학과 관련 변수들

1차년도 개인공통 (KLIPS01P)		2차년도 신규 (KLIPS02N)		3차년도 신규(KLIPS03N)	
P01462	<공통>교육-학교1-학과	N02350	(신규)아7-1 학과 1	N03707	(신규)아2-1 학과 1
P01468	<공통>교육-학교2-학과	N02356	(신규)아7-1 학과 2	N03713	(신규)아2-1 학과 2
P01474	<공통>교육-학교3-학과	N02362	(신규)아7-1 학과 3	N03719	(신규)아2-1 학과 3
P01480	<공통>교육-학교4-학과				

⊙User notes : 학과 코드의 이용

노동패널의 학과코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과분류코드와 연계시킬 수 있다. 교육개발원의 학과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다섯자리로 구성되며, 노동패널 자료에서 전환가능한 분류는 소분류(2-3자리)까지이다. 학과코드를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직업 및 산업전환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패치파일'매뉴로 들어가면 SAS program file 및 SPSS syntex file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패치파일 주소 : http://www.kli.re.kr/klips/

2.3 부가자료의 오픈 코드

□ 3, 4차년도에 실시된 부가조사 자료의 오픈 코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용 자료(3차) :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증 종류, 산업, 직업, 직위
- 건강과 은퇴 자료(4차) : 가구주와의 관계, 병명

□ 청년용 자료(3차)의 오픈 코드 중 가구주와의 관계, 자격증 종류, 산업, 직업, 직위는 개인용 자료의 오픈 코드와 동일하다.

□ 건강과 은퇴(4차)의 오픈코드는 중 가구주와의 관계는 개인용과 동일하며 병명 오픈코드는 지병 종류(a04061)와 병명(a04095)변수에 대한 오픈코드이다.

Ⅴ. 주제별 가이드

1. 가구자료

1.1 가구자료의 구조

□ KLIPS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로 구성되며, 가구자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패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가 된다. 가구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가구자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가구자료의 주된 내용을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Ⅳ. 변수 가이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KLIPS 자료는 key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로 구성되며, 9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 자료의 key변수와 주제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 key 변수 : hhid, hhid06, hhid05, hhid04 hhid03, hhid02, hhid01, hhid00, hhid99, hwave01, hwave02, hwave03, hwave04, hwave05, hwave06, hwave07, hwave08, hwave09, hwaveent
- 주제별 변수 : key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9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자료의 전체적인 구조는 key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의 순서대로 구성된다. key변수와 구성변수 다음에 위치하는 주제별 변수는 우선 가구원 모두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가 제시되고 설문지의 흐름을 따라 주제별 변수들이 제시된다.

□ 가구용 자료를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가구자료는 가구가 기본 분석 단위이기 때문에 가구원에 관한 정보는 한가지 주제에 관하여 변수1에서 변수15까지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9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성별변수는 1번부터 15번

가구원까지의 정보를 담은 v09166 - v09180의 15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3명이라면 가구원의 성별변수는 v09166 - v09180 중 해당되는 세 개의 변수에 유효한 값이 들어있다. 그러나 가구원 정보가 아닌 가구단위의 변수(예를 들어 가구소득, 생활비 등)는 한 가구당 하나의 변수로 구성된다.

⊙User notes : KLIPS 가구용 자료는 조사된 개인을 모두 자료에 포함하는 개인자료와는 달리 해당 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한다. 따라서 각 연도의 가구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Hwave**변수를 이용하여 해당년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2 가구자료의 내용

1.2.1 가구원 기본정보

□ 가구자료는 가구원들의 개인고유번호(PID), 성별, 연령, 학력, 분가시기 등의 기본적인 인적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각 년도별 한 가구당 최대 가구원수는 1차년도 10명, 2차년도 11명, 3~9차년도 15명이다.

□ 각 조사년도별 가구원 기본 정보 변수는 다음과 같다.

- 개인 학력 관련 사항 중 전공계열은 1, 2차에만 조사되었고 3차부터는 삭제되었다.
- 혼인상태의 경우 1~8차년도에는 개인용 자료에 있으나, 4차년도에는 4차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에 모두 담겨 있다.
- 건강상태는 2, 3차 가구용 자료에 담겨있으며 4~8차 가구용 자료에서는 삭제되었다.

⊙User notes : KLIPS자료는 설문지의 구성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료의 구성에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혼인상태는 1~9차년도는 개인설문에 있고 4차년도에는 가구용 설문에 있다. 따라서 혼인상태는 1~9차년도에는 개인용 자료에 존재하며 4차년도에는 개인용, 가구용 자료에 모두 존재한다. 건강상태는 2차년도에 추가되어 2,3차 가구용 자료에 존재하며,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가 실시되면서 가구용 설문에서 삭제되었다. 전공계열은 1,2차년도에 조사되었고 3차년도 이후에는 삭제되었다.

〈표 Ⅴ-1〉 1-9차년도 가구원 정보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PID	v01031-v01040	v02101-v02111	v03121-v03135	v04121-v04135	v05121-v05135	v06121-v06135	v07121-v07135	v08121-v08135	v09121-v09135
성별	v01041-v01050	v02134-v02144	v03166-v03180	v04166-v04180	v05166-v05180	v06166-v06180	v07166-v07180	v08166-v08180	v09166-v09180
양력/음력	v01061-v01070	v02156-v02166	v03196-v03120	v04196-v04210	v05196-v05210	v06196-v06210	v07196-v07210	v08196-v08210	v09196-v09210
생년	v01071-v01080	v02167-v02177	v03211-v03225	v04211-v04225	v05211-v05225	v06211-v06225	v07211-v07225	v08211-v08225	v09211-v09225
생월	v01081-v01090	v02178-v02188	v03226-v03240	v04226-v04240	v05226-v05240	v06226-v06240	v07226-v07240	v08226-v08240	v09226-v09240
생일	v01091-v01100	v02189-v02199	v03241-v03255	v04241-v04255	v05241-v05255	v06241-v06255	v07241-v07255	v08241-v08255	v09241-v09255
만나이	v01101-v01110	v02200-v02210	v03256-v03270	v04256-v04270	v05256-v05270	v06256-v06270	v07256-v07270	v08256-v08270	v09256-v09270
학교	v01131-v01140	v02512-v02522	v03481-v03496	v04481-v04495	v05481-v05495	v06481-v06495	v07481-v07495	v08481-v08495	v09481-v09495
이수여부	v01141-v01150	v02523-v02533	v03496-v03510	v04496-v04510	v05496-v05510	v06496-v06510	v07496-v07510	v08496-v08510	v09496-v09510
학년	v01151-v01160	v02534-v02544	v03511-v03525	v04511-v04525	v05511-v05525	v06511-v06525	v07511-v07525	v08511-v08525	v09511-v09525
전공계열	v01161-v01170	v02545-v02555	-	-	-	-	-	-	-
혼인상태	-	-	-	v04526-v04540	-	-	-	-	-
건강상태	-	v02556-v02566	v03526-v03540	-	-	-	-	-	-

1.2.2 가구소득

□ KLIPS에서 가구소득은 다음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작년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4차년도 조사부터는 '지난 한달간 가구소득'이 추가되었다.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급,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한다.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보험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수급액을 포함한다.

• 이전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현물 포함)을 포함한다.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 1회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 기타소득 : 보험금 지급(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위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금 제외),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분실물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폐품매각대금 등과 같이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다.

□ 1-9차 가구소득 항목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난 한해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1차년도에는 **지난 1년간 월평균소득**으로, 2-3차년도까지는 '**작년 한해의 월평균소득**'으로 조사되었으나 4~9차년도에는 '**작년 한해의 연간총소득'**으로 단위가 변경되었다.
- 사회보험은 1차년도에는 가구원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가구원 각각의 1회 수급액을 조사했으나, 2,3차년도에는 가구원 최대 3명까지 조사되었으며, 4차와 5차년도에는 4명까지, 6~9차년도 자료상에는 최대 5명의 가구원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전소득은 1차년도에는 지난 1년간의 월평균으로 조사되었으며, 2~8차 조사에서는 작년 한해동안의 연평균으로 조사되었다. 9차년도에는 친척/친지보조금 항목

을 '따로 사는 부모님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세분화시켰으며, 각 항목에 대해 유무 여부로 설문 구조를 변경하였다.

- 기타소득 역시 1차년도에는 지난 1년간의 월평균으로 조사되었으며, 2~9차 조사에서는 연평균으로 조사되었다. 9차년도에는 보험금 항목을 '손해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축의금, 조의금, 복권/경마 등, 교통사고 보상금 등'의 기타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조사하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유무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설문구조를 변경하였다.

□ <표Ⅴ-2>는 1-9차 가구소득 관련변수이다.

〈표 Ⅴ-2〉 1-9차 가구소득 관련 변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지난해소득	총근로소득	v01441	v02617	v03802	v04868	v05726	v06633	v07691	v08691	v09691
	금융소득	v01443	v02619- v02623	v03804- v03808	v04870- v04874	v05728- v05732	v06635- v06639	v07693- v07697	v08693- v08697	v09693- v09697
	부동산소득	v01445	v02625- v02627	v03811- v03814	v04877- v04881	v05735- v05739	v06642- v06646	v07699- v07703	v08699- v08703	v09699- v09703
	사회보험	v01422- v01439	v02631 v02633 v02635	v03819 v03821 v03823	v04886 v04888 v04890 v04892	v05744 v05746 v05748 v05750	v06651 v06653 v06655 v06657 v06659	v07707 v07709 v07711 v07713 v07715	v08707 v08709 v08711 v08713 v08715	v09707 v09709 v09711 v09713 v09715
	이전소득	v01447	v02637, v02639, v02641, v02643	v03825- v03828	v04894- v04897	v05752- v05755	v06661- v06665	v07717- v07721	v08717- v08721	v09717- v09719 v09720a- v09720c v09721
	기타	v01449	v02646- v02648	v03831- v03833	v04901- v04904	v05759- v05762	v06674- v06677	v07730- v07733	v08730- v08733	v09730a- v09730c v09731 v09732 v09921- v09923 v09733
지난달소득	근로소득	-	-	-	v04907	v05765	v06680	v07736	v08736	v09736
	금융소득				v04909	v05767	v06682	v07738	v87738	v09738
	부동산소득				v04911	v05769	v06684	v07740	v08740	v09740
	사회보험				v04913	v05771	v06686	v07742	v08742	v09742
	이전소득				v04915	v05773	v06688	v07744	v08744	v09744
	기타				v04917	v05775	v06690	v07746	v08746	v09746

□ 가구소득관련 변수 사용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KLIPS의 모든 소득항목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가구소득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국내의 통계조사로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가 있다. 이 조사의 경우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 KLIPS는 '조세'를 제외한 '세후소득'을 측정한다.

◉ KLIPS 가구소득의 추정기간은 이전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KLIPS의 가구소득은 조사 년도의 이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단 1차년도 조사의 경우 응답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각 연도별 측정의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

- 가구근로소득은 1-3차년도에는 월평균 소득을 조사하였으나 4~9차년도에는 '연간 총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이전소득과 기타소득 또한 1차년도에는 월평균으로 조사하였으나 2~8차년도에는 '작년 한해'의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 각 연도별 기구소득의 세부 항목은 차이가 있다.

- 1차년도 가구소득은 세부 항목이 없이 한달 평균 액수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 조사부터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세부 항목 중 부동산 소득의 '토지를 도지 준 것'은 3차년도에 추가되었고, 이전소득의 '친척/친지 보조금'은 9차년도에 '따로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기타 소득의 '증여 및 상속'은 4차년도에 추가되었으며, 부동산 소득의 '권리금'은 5차년도 추가되었으며, '보험금'은 '손해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으로 9차년도에 세분화시켰으며, '축의금/조의금, 당첨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재해보상금'은 9차년도에 추가되었다.

〈표 Ⅴ-3〉 1-9차년도 가구소득 세부항목

	세부항목
금융소득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사채이자수입,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 준 것(3차 추가),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	1회 수급액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정부보조금,(6차 항목세분) 사회단체 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 9차 항목세분), 기타 보조금
기타소득	보험금(손해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9차 항목세분), 퇴직금, 증여 및 상속(4차 추가), 축의금/조의금, 당첨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재해보상금(9차 추가), 기타

⊙User notes :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득을 산출할 때는 가구소득의 각각의 항목을 합하면 된다. 단 가구소득 각각의 항목을 합할 때는 우선 해당 항목의 소득 유무를 파악하고 소득이 있는 가구만 선택하여 소득액을 합한다. 또한 가구총소득 산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각각의 변수마다 'missing'값이 다르므로 코드북을 참조하여 각각의 missing값을 통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FAQ Q14 참조

1.2.3 가구소비

□ KLIPS의 가구소비는 생활비 항목과 저축으로 구성된다. <표Ⅴ-4>는 1-9차 가구소비 관련 변수이다. 연도별 가구소비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 1, 3차년도에는 생활비를 세부항목으로 조사하지 않고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고 2, 4, 5~9차년도에는 총액과 함께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조사하였다.
- 또한 세부항목 중 '통신비' 항목은 4차년도에, '용돈' 항목은 5차년도에, '피복비' 항목은 6차년도에 각각 추가되었다. 그리고 7차년도에는 '헌금 및 각종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등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에는 '문화비' 는 '교양오락비'로 항목 변경되었고, '용돈' 은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항목을 세분화시켰고, '생필품 구입비'는 추가되었다.
- 저축은 1, 2, 3차년도에는 월평균 총액만 조사하였고 4~8차년도에는 월평균 총액과 함께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였다. 9차년도에는 보장성 보험을 '보장성 보험과 종신보험'으로 세분하였다.

□ 가구소비는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단 1차년도의 경우 응답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조사했다.

〈표 Ⅴ-4〉 1-9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월평균 생활비	식비 (주식비와 부식비)		v02649		v04919	v05777	v06692	v07748	v08748	v09748
	외식비		v02650		v04920	v05778	v06693	v07749	v08749	v09749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v02651		v04921	v05779	v06694	v07750	v08750	v09750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v02652		v04922	v05780	v06695	v07751	v08751	v09751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v02653		v04923	v05781	v06696	v07752	v08752	v09752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v02654		v04924	v05782	v06697	v07753	v08753	v09753
	경조사비		v02655		v04925	v05783	v06698	v07754	v08754	v09754
	보건의료비		v02656		v04926	v05784	v06699	v07755	v08755	v09755
	문화비(TV시청료, 취미·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v02657		v04927	v05785	v06700	v07756	v08756	v09756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구입비)	-	v02658	-	v04928	v05786	v06701	v07757	v08757	v09757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v04929	v05787	v06702	v07758	v08758	v09758
	용돈		-		-	v05788	v06703	v07759	v08759	-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	-	-	-	-	v09759a
	자녀용돈				-	-	-	-	-	v09759b
	그 외 가구원 용돈				-	-	-	-	-	v09759c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		-	-	v06704	v07760	v08760	v09760
	헌금 및 각종기부금		-		-	-	-	v07761	v08761	v09761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		-	-	-	v07762	v08762	v09762
	대중교통비		-		-	-	-	v07763	v08763	v09763
	생필품 구입비		-		-	-	-	-	-	v09763a
	기타		-		v04930	v05789	v06705	v07764	v08764	v09764
	월평균 총액	v01454	v02649	v03835	v04918	v05776	v06691	v07747	v08747	v09747
	예·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v04933	v05791	v06708	v07768	v08768	v09768
	개인연금				v04935	v05793	v06710	v07770	v08770	v09770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v04937	v05795	v06712	v07772	v08772	v09772
	종신보험	-	-	-	-	-	-	-	-	v09772b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v04939	v05797	v067m4	v07774	v08774	v09774
	계(→곗돈 불입금)				v04941	v05799	v06716	v07776	v08776	v09776
	기타				v04943	v05801	v06718	v07778	v08778	v09778
	월평균 총액	v01454	v02664	v03836	v04931	v05790	v06706	v07766	v08766	v09766

1.2.4. 자산

□ 자산과 관련된 항목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자산 항목은 1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2-9차에 조사되었다. 자산의 측정은 가구 소비와 가구소득과는 달리 지난 한해가 아닌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표Ⅴ-5>는 자산 항목 중 2-9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들이다.

〈표 Ⅴ-5〉 2-9차년도 부동산 관련 변수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거주주택 외 부동산	v02701 -v02708	v03901 -v03908	v04946 -v04953	v05805 -v05812	v06721 -v06729	v07781 -v07789	v08781 -v08789	v09781 -v09789
부동산 타인 임대	v02709 -v02711	v03909 -v03911	v04954 -v04956	v05813 -v05815	v06730 -v06733	v07790 -v07793	v08790 -v08793	v09790 -v09793
부동산 임차	v02712 -v02719	v03912 -v03919	v04957 -v04964	v05816 -v05823	v06734 -v06742	v07794 -v07802	v08794 -v08802	v09794 -v09802

□ 부동산 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른 자산 항목들과는 달리 시가 총액 또는 보증금 총액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연속형으로 우선 측정한 다음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에 대하여 범주형으로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주형의 응답 범주는 2차년도에는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3-9차년도에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표Ⅴ-6>은 자산항목 중 2-9차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이다. 금융자산 관련 변수 중 기타 금융자산종류는 1, 2차년도에는 별도로 코드화하지 않았지만 3-9차년도에는 별도로 코드화하여 하나의 변수로 포함되었다.

〈표 Ⅴ-6〉 2-9차년도 금융자산 관련 변수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은행예금	v02720 -v02721	v03920 -v03921	v04965 -v04966	v05824 -v05825	v06743 -v06744	v07803 -v07804	v08803 -v08804	v09803 -v09804
주식, 채권, 신탁	v02722 -v02723	v03922 -v03923	v04967 -v04968	v05826 -v05827	v06745 -v06746	v07805 -v07806	v08805 -v08806	v09805 -v09806
저축성 보험	v02724 -v02725	v03924 -v03925	v04969 -v04970	v05828 -v05829	v06747 -v06748	v07807 -v07808	v08807 -v08808	v09807 -v09808
아직 타지 않은 계	v02726 -v02727	v03926 -v03927	v04971 -v04972	v05830 -v05831	v06749 -v06750	v07809 -v07810	v08809 -v08810	v09809 -v09810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돈	v02728 -v02729	v03928 -v03929	v04973 -v04974	v05832 -v05833	v06751 -v06752	v07811 -v07812	v08811 -v08812	v09811 -v09812
기타	v02730 -v02731	v03930 -v03932	v04975 -v04978	v05834 -v05836	v06753 -v06754	v07813 -v07814	v08813 -v08814	v09813 -v09814

1.2.5 부채

□ 2-9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는 <표Ⅴ-7>과 같다. 가구 부채에 대한 조사는 조사 년도별로 변동이 있다.

- 1차년도에는 부채의 세부 항목의 구분 없이 부채여부, 총 부채액, 월평균 부채 상환금만을 조사했으나, 2차년도부터는 다음의 총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부채액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표 Ⅴ-7〉 2-9차년도 가구부채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금융기관 부채	v01451- v01453	v02732- v02734	v03933- v03935	v04979- v04981	v05837- v05839	v06757- v06759	v07817- v07819	v08817- v08819	v09817- v09819
비금융기관 부채		v02735- v02737	v03936- v03938	v04982- v04984	v05840- v05842	v06760- v06762	v07820- v07822	v08820- v08822	v09820- v09822
개인적으로 빌린 돈		v02738- v02740	v03939- v03941	v04985- v04987	v05843- v05845	v06763- v06765	v07823- v07825	v08823- v08825	v09823- v09825
전세금 임대보증금		v02741- v02743	v03942- v03944	v04988- v04990	v05846- v05848	v06766- v06768	v07826- v07828	v08826- v08828	v09826- v09828
부어야 할 계		v02744- v02746	v03945- v03947	v04991- v04993	v05849- v05851	v06769- v06771	v07829- v07831	v08829- v08831	v09829- v09831
기타		v02747- v02749	v03948- v03951	v04994- v04997	v05852- v05855	v06772- v06774	v07832- v07834	v08832- v08834	v09832- v09834

1.2.6 주거지

□ 주거지는 이사여부, 주거지 변동사항,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작 시기 등에 관하여 조사되었다. 9차년도를 기준으로 주거지의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입주형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주택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기타
- 주택의 평수 : 대지면적, 연건평, 실제사용평수
- 거주시작시기 : 거주시작 년, 월
- 거주지의 시가, 임대보증금 혹은 전(월)세금

〈표 Ⅴ-8〉 1-9차년도 주거지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이사여부	-	v02601	v03601	v04601	v05592	v06592	v07592	v08592	v09592
변동사항	-	v02602-v02605	v03602-v03605	v04602-v04605	v05593-v05594	v06593-v06596	v07593-v07596	v08593-v08596	v09593-v09596
변동종류	-	-	-	-	v05595	-	-	-	-
입주형태	v01365	v02606	v03606	v04606	v05596	v06598	v07598	v08598	v09598
주택종류	v01366	v02607	v03607	v04607	v05597	v06599	v07599	v08599	v09599
대지면적, 연건평,평수	v01367-v01369	v02608-v02610	v03608-v03610	v04608-v04611	v05598-v05601	v06600-v06603	v07600-v07603	v08600-v08603	v09600-v09603
시가	v01370	v02611	v03611	v04612	v05602	v06604	v07604	v08604	v09604
보증금 월세	v01371-v01372	v02612-v02613	v03612-v03613	v04613-v04614	v05603-v05604	v06605-v06606	v07605-v07606	v08605-v08606	v09605-v09606
거주 시작시기	v01373-v01374	v02614-v02615	v03614-v03615	v04615-v04616	v05605-v05606	v06607-v06608	v07607-v07608	v08607-v08608	v09607-v09608

□ 1-9차 주거지 항목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사여부와 주거지 변동 사항은 2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주택의 평수는 1-3차년도에는 대지면적과 연건평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4차년도 이후에는 대지면적, 연건평, 실제평수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주택 종류는 2차에는 5개의 항목, 3차에는 9개의 항목, 4차-7차에는 5개의 항목, 8차부터는 6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각각의 항목의 내용에도 변동이 있다.

⊙User notes : KLIPS 가구용 자료의 주거지 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2차와 3차 자료에서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기는 전년도 조사 이후 이사하였거나 이사하지 않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2, 3차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했다. 그러나 8차자료부터는 해당변수를 가공하여 붙여두었으므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 해당변수를 사용하면 된다.(FAQ Q19참조).

1.2.7 자녀교육

□ 자녀교육은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와 비용'과 '탁아모 이용실태와 비용'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고, 2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년도에 조사되었다.

□ <표Ⅴ-9>는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은 차수별로 차이가 있다.

- 1차에는 조사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3차 이후로는 0세 -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한편 7차년도 조사부터는 대학생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조사하였다.
- 이용기관 종류의 항목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3차년도 이후에 조사되었다.

⊙User notes :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과 관련하여 6차년도 조사 이후 가장 큰 변동사항은 사교육 이용기관 종류별로 조사되었던 항목들이 자녀 당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5차년도 조사에서는 자녀가 2명이고 두 명이 각각 3개씩의 학원에 다닐 경우 그 가구에 대해서는 총 6개의 사교육종류별로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등을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6차년도 조사이후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총 2개의 월평균수업료만을 파악하게 된다.

한편 7차년도 조사의 큰 변화로는 대학생이상 자녀의 사교육비를 조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수, 정규학교 등록금, 그 외 지출 비용 등이 조사되었다.

〈표 Ⅴ-9〉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 조사내용

조사년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1차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	이용기관 종류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0세 ~ 고등학생이하(재수생포함)	이용기관 종류 종류별 이용횟수와 이용시간 종류별 월평균 수업료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6차년도		자녀당 이용여부 자녀당 월평균 수업료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0세 ~ 고등학생이하(재수생포함) 대학생 이상 자녀(휴학 중인 자녀 포함)	고등학교이하 자녀당 이용갯수 고등학교이하 자녀당 월평균 수업료 대학생이상 자녀당 정규학교 등록금 대학생이상 자녀당 그 외 지출 비용 가구 전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정도

□ 탁아모 이용실태의 조사 내용은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유사하며, 그 내용은 탁아모 종류, 탁아모 이용 횟수와 시간, 비용, 경제적 부담정도 등이다.

□ 탁아모 이용실태는 1차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만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3, 4차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조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탁아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3, 4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그러나, 5차년도 조사부터는 탁아모 이용실태와 관련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 자녀교육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변수구성에 있어서 한 자녀가 이용하는 하나의 기관(혹은 탁아모)단위로 변수가 구성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교육 문항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의 번호와 엄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자녀번호와 엄마번호는 자녀와 엄마의 가구내 개인번호를 의미한다.

- 자녀번호를 가구원 정보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가구번호와 자녀(엄마)번호를 조합하여 merge한다. - FAQ Q12 참조

2. 개인자료

2.1 개인자료의 구조

□ KLIPS 가구용 자료가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다면 개인용 자료는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분석단위로 한다. 개인자료는 가구자료와 동일하게 key변수와 주제별 변수로 구성된다.

□ 9차년도를 기준으로 개인용 자료의 key변수와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는 다음과 같다.

- key변수 : pid, hhid06, hhid05, hhid04, hhid03, hhid02, hhid01, hhid00, hhid99, hhid98, hmem06
- 주제별 변수 : key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주제별 변수는 그 변수가 어떤 설문지에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변수레이블 앞에 '(가구정보)', '(공통)', '(취업)', '(미취업)', '(주된 일자리)'라는 라벨이 붙는다.

◉ 주제별 변수의 구성

- (가구정보) : 가구자료에서 조사된 가구원 정보를 개인자료에 연결한 변수이다. 개인의 주된 인구학적 특성을 담고 있다.
- (공통) : 취업자 개인과 미취업자 개인 설문 중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설문내용에 관한 변수로 각 변수에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의 응답 내용이 들어 있다.
- (취업) : 취업자 설문 중 취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변수이다.
- (미취업) : 미취업자 설문 중 미취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변수이다.
- (주된 일자리) : 취업자가 응답한 유형 설문의 내용 중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자리 관련 변수들이다.

□ 개인 자료에서 변수레이블 앞에 '(주된 일자리)'라고 입력된 변수들은 취업자설문과 유형설문을 토대로 별도로 가공된 자료이다. 이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KLIPS는 개인이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유형 설문을 통해 모든

일자리에 관한 응답을 받고 있다. 단 취업자 개인 설문은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받는다.

- 주된 일자리는 현재의 일자리(유형1, 3, 5, 7 설문) 중에서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로 정의된다.

□ 개인용 자료의 (주된 일자리)변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사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 산업, 직업, 직위
- 기업의 형태 및 규모
- 고용형태와 근로계약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 근로시간, 임금
-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
- 노동조합

2.2 개인자료의 내용

2.2.1 평소의 경제활동

□ 평소의 경제활동은 개인용 자료의 (공통)변수로 지난주 주요 활동과 지난주 소득활동, 지난주 직장유무, 지난주 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다.

□ 평소 경제활동 관련 문항은 1차년도에는 가구용 설문지에 있었으나 자료상에는 가구용과 개인용 모두에 제공된다. 2~8차년도에는 개인용 설문에서 묻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에서 제공된다.

〈표 V-10〉 평소의 경제활동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 9차
평소 활동	-	-	p03024	p04023	p05023	p06023	p07022-p09022
지난 1주 주요활동	p01568	p02021	p03025	p04024	p05024	p06024	p07023-p09023
지난 1주간 소득활동	p01569	p02022	p03026	p04025	p05025	p06025	p07024-p09024
지난주 일자리 소유여부	p01570	p02023	p03027	p04026	p05026	p06026	p07025-p09025
지난주 일하지 않은 이유	p01571	p02024	p03028	p04027	p05027	p06027	p07026-p09026

2.2.2 구직활동

□ 구직활동은 취업자의 구직활동과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으로 구분된다.

- 1차년도 개인용 자료에서 취업자의 구직활동 관련해서는 희망 종사상 지위, 희망 근로시간, 희망하는 일의 종류, 구직방법, 구직시 어려움, 구직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은 실업자의 구직활동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 2차년도의 구직 관련 변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의 구직 과정 관련 사항과 취업 중 구직활동(on the job search)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3차년도에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의 구직 과정 관련 사항과 취업 중 구직 활동(on the job search)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4, 5, 6, 7, 8, 9차년도의 구직활동 관련 변수구성은 3차와 동일하다. 단 4차년도부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구직 방법 외에 성공한 구직방법과 구체적인 일자리 진입방법 변수가 추가되었고, 구직방법에 대한 세부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9차년도에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변수 중 지난 조사이후 구직활동여부, 마지막 구직활동시기(년, 월), 지난주 일자리 제의 여부, 제의받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표 V-11〉 1-9차년도 구직활동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취업자의 구직활동	p01415-p01439	p02307-p02322	p03304-p03317	p04704-p04719	p05704-p05719	p06704-p06714	p07704-p07714	p08704-p08714	p09704-p09714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p01206-p01236 (실업자) p01248-p01272 (비경제활동인구)	p02062-p02094	p03097-p03125	p04381-p04387	p05376-p05382	p06412-p06420	p07426-p07434	p08426-p08434	p09426a-p09426e p09426-p08434

2.2.3 고용형태(정규/비정규여부) 및 근로계약

□ KLIPS에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의미한다. 정규직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자기 응답식으로 측정되었다. 그밖에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관련 항목은 Ⅳ. 변수 가이드의 1.key 변수의 이해와 활용에 제시되어 있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관련변수는 근로계약기간유무, 근로계약기간, 계속근로가능여부, 근로계약문서 수령여부, 근로계약갱신여부, 향후근무예상기간으로 구성된다. 근로계약관련변수의 연도별 변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8차년도 조사에서 근로계약기간 유무와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 계속 근로 가능 여부는 2차를 제외한 1, 3, 4, 5차년도에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문서 수령여부는 3~9차년도에 조사되었다.
- 근로계약 갱신여부는 3차, 5차, 6차, 7차, 8차, 9차년도에 조사되었다.

〈표 Ⅴ-12〉 1-9차년도 근로계약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근로 계약 기간 유무	P01020	P02357	P03369	P04735	P05736	p06730	p07728	p08728	p09728
근로 계약 기간	p01021-p01023	p02358-p02360	p03370-p03372	p04736-p04738	p05737-p05739	p06730-p06732	p07729-p07731	p08729-p08731	p09729-p09731
불규칙적인 일자리 여부	-	-	-	-	P05742	p06735	p07733	p08733	p09733
근로 계약 문서 수령	-	-	P03375	P04741	P05743	p06736	p07734	p08734	p09734
근로 계약 갱신 여부	-	-	P03373	-	P05741	p06733	p07732	p08732	p09732

□ 노동패널조사에서 '향후 이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는 1~4차년도 조사까지는 임금근로자의 유형설문에서 조사되어 왔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5차년도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2002년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통해 유

사한 문항이 설문되었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5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취업자 공통 설문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 이중 향후 계속 근로가능기간에 대해서도 4차년도 조사에서 '1년이상'과 '1년미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즉, 기간제(단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5차년도 이전 조사에서도 파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차년도 이후에는 향후 근로가능 기간에 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응답항목을 통일시켜 '(1) 1년이하(___개월), (2) 1년~3년 이하 (3) 3년 초과'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 그 외에 호출 근로나 시간제 근로와 같은 형태는 노동패널내의 기존 유형설문에서 판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표 Ⅴ-13>과 같이 파견/용역근로여부, 독립도급여부, 가내 근로 여부 등에 대해서만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Ⅴ-13〉 비정규직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계속 근로 가능 여부	P01024	-	P03374	P04739	p05349	p06043	p07032	p08032	p09032
향후 계속근로 가능기간	-	-	-	p04740	p05350, p05351	p06044, p06045	p07033, p07034	p08033, p08034	p09033, p09034
계속근로 불가능이유	-	-	-	-	p05352	p06046	p07035	p08035	p09035
파견/용역 여부	-	-	-	-	p05353	p06047	p07036	p08036	p09036
독립도급 여부	-	-	-	-	p05354	p06048	p07037	p08037	p09037
가내(재택) 근로 여부	-	-	-	-	p05355	p06049	p07038	p08038	p09038

⊙User notes : 비정규직 근로자의 판별(FAQ Q25참조)

5차년도 조사부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2002년)의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측정가능한 비정규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기준 <표Ⅳ-13>을 참조할 것.
2.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정규직 여부 <표Ⅳ-11>을 참조할 것.
3.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근로(단기계약,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가내근로, 시간제 근로)

※ 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근로(alternative work arrangements)'와 관련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변수명
단기계약	p05736(=1) & p05749(=2) & p05350(=1)
호출근로	p05742(=1)
파견근로	p05353(=2)
용역근로	p05353(=3)
독립도급근로	p05354(=1)
가내근로	p05355(=1)
시간제 근로	p05744(=1)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부가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주엽 외, 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2.2.4 근로시간

□ 정규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변수이다. 정규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정규근로시간유무여부, 주당정규근로시간 및 일수, 초과근로여부, 주당초과근로시간 및 일수 등을 묻고 있다.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9차년도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에는 주당정규근로시간과 주당초과근로시간에 관한 변수만 있고 주당정규근로일수와 주당초과근로일수에 관한 정보는 없다.
- 초과근로일수는 2차년도에는 월평균 초과근로일수로 측정되었으나, 3차년도 이후 주당 초과근로일수로 측정되었다.

□ 근로시간관련 변수를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과 근로시간관련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에 따라 근로시간 응답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을 구성할 때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 1차년도에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일한 달'과 '가장 적게 일한 달'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 2차년도에는 지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평상시와 비교하여 어땠는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다.
- 1-6차년도에는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각 요일별 근무시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3-4차년도에는 근로시간단축 견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8차년도에는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 주5일제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여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P08500-P08514).

〈표 Ⅴ-14〉 1-9차 근로시간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정규근로시간 유무	P01053	P02363	P03377	P04748	P05750	p06743	p07738	p08738	p09738
주당정규근로시간 및 일수	P01054	P02366 P02367	P03380 P03381	P04751 P04752	P05753 P05754	p06746 p06747	p07741 p07742	p08741 p08742	p09741 p09742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일수(임금)	P01060	P02364 P02365	P03378 P03379	P04749 P04750	P05751 P05752	p06744 p06745	p07739 p07740	p08739 p08740	p09739 p09740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일수(비임금)	P01163	P02364a P02365a	P03378a P03379a	p04749a p04750a	p05751a p05752a	p06811 p06812	p07749 p07750	P08749 P08750	P09749 P09750
초과근로 여부	P01055	P02368	P03382	P04753	P05755	p06748	p07743	p08743	p09743
주당초과근로시간 및 일수	P01056	P02369 P02370	P03383 P03384	P04754 P04755	P05756 P05757	p06749 p06750	p07744 p07745	p08744 p08745	p09744 p09745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	P01057	P02371	P03385	P04756	P05758	p06751	p07746	p08746	p09746
초과근로수당 지급방법	P01058	P02372	P03386	P04757	P05759	p06752	p07747	p08747	p09747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P01059	P02373	P03387	P04758	P05760	p06753	p07748	p08748	p09748

⊙User notes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에 따라 해당 문항이 달라진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때는 정규 근로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정규 근로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참조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FAQ Q26참조

2.2.5 임금 및 소득

□ 임금 및 소득과 관련된 정보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연간매출액과 소득액을 측정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지급주기, 임금결정방식, 임금 수준, 성과급적용여부, 임금내용 등의 자세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는 <표Ⅴ-15>와 같으며, 임금관련 변수의 년도별 변동사항과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금수준은 해당하는 임금결정방식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의 구성과 자료의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임금수준의 자료의 구성은 1차년도에는 연봉제, 일당제, 시간급제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었고 2차년도에는 도급제를 제외한 6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3차년도에는 도급제와 기타를 제외한 5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4차년도에는 기타를 제외한 6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 임금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구분 여부와 각각의 액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월평균 임금은 임금유무의 임금 액수로 구성되었다. 7차년도부터 공제되는 세금액이 추가되었다.
- 9차년도부터 임금수준 변수 중 연봉액과 월급액 변수를 기존의 월평균 임금 변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표 Ⅴ-15〉 1-9차년도 임금근로자의 임금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임금지급방법	p01077	p02374	p03388	p04759	p05761	p06754	p07751	p08751	p09751
임금결정방식	p01078	p02375	p03389	p04760	p05762	p06755	p07752	p08752	p09752
임금수준	p01079- p01081	p02376- p02382	p03390- p03395	p04761- p04767	p05763- p05768	p06756- p06761	p07753- p07758	p08753- p08758	p09755- p09758
성과급 관련	p01082- p01085	p02383- p02386	p03396- p03399	p04768- p04771	p05770- p05773	p06762- p06765	p07759- p07762	p08759- p08762	p09759- p09762
임금내용	p01087- p01089	-	-	-	-	-	-	-	-
월평균임금	p01090 p01091	p02387 p02388	p03400 p03401	p04772 p04773	p05774 p05775	p06766 p06767	p07763 p07764	p08763 p08764	p09763 p09764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							p07765	p08765	p09765

□ 1-9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관련 변수는 <표Ⅴ-16>과 같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연간매출액과 월평균 소득으로 조사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1-9차년도 변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차-3차년도 까지 연간 매출액은 개방형으로 측정하였고 모름일 경우 범주형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4차년도 부터는 개방형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연간매출액의 범주형의 세부항목 중 2, 3차년도에는 '(14)모르겠다'가 추가되었다.
- 월평균 소득관련 변수는 1-9차년도가 동일하다.
- 8차년도 부터 적자액 정보가 추가되었다.

〈표 Ⅴ-16〉 1-9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연간매출액	p01144 p01145	p02394 p02395	p03404 p03405	p04776	p05778	p06770	p07769	p08769	p09769
월평균소득	p01146 p01147	p02396 p02397	p03406 p03407	p04774 p04775	p05776 p05777	p06768 p06169	p07770 p07171	p08770 p08171	p09770 p09171
월평균 적자액								P08771a	P09771a

⊙User notes :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할 때 missing 값이 많다는 질문이 많다. 그러나,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응답대상이 아니다. 또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사례들을 통제하고 나면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에도 missing값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AQ Q27참조

2.2.6 직업훈련 및 자격증

□ 직업훈련은 3차년도를 제외한 1, 2, 4, 5, 6, 7, 8, 9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조사년도별로 내용의 구성상 많은 차이가 있다. 공통된 내용은 직업훈련여부, 직업훈련 시기 및 기간, 직업훈련 종류, 비용부담, 희망하는 직업 훈련 등이다.

□ 조사년도별 직업훈련 관련 사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2차년도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 한 가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1차년도에는 직업훈련의 개수는 조사되지 않았다.
- 4~9차년도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부터 총 세 가지 직업훈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응답 기간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1차년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2차년도에는 지난 조사 이후 받은 직업훈련에 한하여 응답받았으며, 4차년도에는 3차년도에 조사가 누락되었던 관계로 1999년 1월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 부터는 다시 '지난 조사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표 V-17〉 1-9차 직업훈련 관련 변수

	1차	2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직업훈련 여부 및 개수, 교육훈련시기 및 기간, 훈련 종류, 직업훈련 비용 부담, 희망 직업훈련,	P01440-P01453	P02095-P02115	P04120-P04191	P05131-P05205	P06116-P06178	P07105-P07173	P08105-P08173	P09105-P09173

- 직업훈련의 비용부담관련해서 1, 2차년도에는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 4, 5차년도에는 비용부담주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육훈련을 받는데 직접 지불한 비용까지 조사하였다.

□ 자격증과 관련된 조사 내용은 <표Ⅴ-18>과 같다.

- 자격증 관련 내용은 2차와 4, 5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최대 9개까지, 4, 5차년도에는 최대 6개까지 자격증의 종류와 급수, 취득시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2차년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개인이 소지한 모든 자격증에 관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4차년도에는 1999년 1월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 5차년도 조사부터는 소지한 자격증의 유형이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또는 외국자격증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다.
- 7차년도 부터 자격증 유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자격증의 급수 정보를 자격증 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에 맞춰 대체한 것이다.

〈표 Ⅴ-18〉 자격증 관련 변수

	2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자격증소지 여부, 자격증 개수, 자격증 유형, 자격증 종류, 취득시기	P02116-P02162	P04192-P04217	P05206-P05237	p06179-p06205	p07174-p07195	p08174-p08195	p09174-p09195

2.2.7 사회보험

□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설문지상 가구용과 개인공통, 유형 설문지에 존재하며 자료상에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에 있다.

- 가구용 설문지에서는 한 가구 당 최대 3명의 가구원에 한하여 사회보험수급자 유

무, 사회보험 수급자 이름과 가구원 번호, 연간 총수급액을 묻고 있다.

- 개인공통 설문지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종류, 수급기간, 수급방식, 1회 수급액을 묻고 있다.
- 유형설문지에서는 직장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문항은 개인자료의 '주된 일자리'에 아래 표와 같은 변수형태로 입력되어 있다. 또한, 개인이 1개 이상의 임금 일자리를 갖고 있을 경우, 모든 임금 일자리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므로 동일한 내용이 직업력 자료에도 입력되어 있다.

□ <표Ⅴ-19>은 1-9차 사회보험 관련 변수이다.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1차년도에는 가구용 자료에만 있으며 2-8차에는 가구용과 개인용 자료에 모두 존재한다.

<표 Ⅴ-19> 1-9차년도 사회보험 관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가구자료	v01378-v01439	v02628-v02635	v03816-v03823	v04883-v04892	v05741-v05750	v06650-v06659	v07704-v07715	v08704-v08715	v09704-v09715
주된 일자리	-	p02400-p02402	p03410-p03414	p04777-p04781	p05779-p05783	p06771-p06775	p07774-p07778	p08774-p08778	p09774-p09778
취업자 개인	-	p02163-p02184	p03126-p03158	p04218-p04260	p05238-p05280	p06233-p06275	p07218-p07259	p08218-p08259	p09218-p09259
직업력 자료	j401-j405								

2.2.8 대학입학시험 점수

□ 5차년도 조사에서는 만30세 이하인 모든 개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혹은 학력고사)를 본 적인 있는지 여부, 시험을 친 연도, 시험점수 등을 질문하였다.

- 시험점수는 학력고사(340점 만점), 200점 만점 수능, 300점 만점 수능,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응답항목은 모두 1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 6차년도 조사에서는 현재 대학 혹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응답자들에 대하여 학업성취도(GPA)를 질문하였다.

- 1학년일 경우에는 입학시 수능성적을 4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13개의 범주항목으로 조사하였다.

- 2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지난 해'의 평균학점을 '총점___중 평균 ___학점'으로 질문하였다.

〈표 V-20〉 5차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관련 변수

		취업자 공통 신규 조사자
5차조사	대학 시험 경험 여부	p05325
	최근 시험 연도	p05326
	시험 종류	p05327
	시험 점수	p05328-p05330
6차조사	대학재학자의 학년	p06317
	수능점수(1학년)	p06318
	총점 및 평점(2학년이상)	p06319, p06321

2.2.9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의 측정

□ 한국노동패널의 직무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사항은 "이상호, 노동패널의 직무만족도 측정, 노동리뷰 2006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klips 테크니컬 리포트)을 참고하기 바란다.

①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 요인별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1차년도 조사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직무만족도 측정문항이다.

- 설문의 개발은 미네소타대학교의 직업심리연구소(Vocational Psychology Research)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 & Hulin(1969)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이중 가장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축약형(reduced form)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Ⅴ-21〉 1-9차년도 요인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변수

1차년도			응답항목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9차년도
응답 항목	임금	비임금							
(1) 임금 및 보수	p01069	p01171	(1) 임금 또는 소득	p02045	p03075	p04082	p05082	p06100	p07089-p09089
(2) 취업의 안정성	p01070	p01172	(2) 취업의 안정성	p02046	p03076	p04083	p05083	p06101	p07090-p09090
(3) 하고있는 일의 내용	p01071	p01173	(3) 하고있는 일의 내용	p02047	p03077	p04084	p05084	p06102	p07091-p09091
(4) 근로환경	p01072	p01174	(4) 근로환경	p02048	p03078	p04085	p05085	p06103	p07092-p09092
(5) 인사고과의 공정성	p01073	-	(5) 근로시간	p02049	p03079	p04086	p05086	p06104	p07096-p09096
(6) 개인의 발전가능성	p01074	p01175	(6) 개인의 발전가능성	p02050	p03080	p04087	p05087	p06105	p07094-p09094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p01075	-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p02051	p03081	p04088	p05088	p06106	p07095-p09095
(8) 복지후생	p01076	-	(8) 인사고과의 공정성 (비임금제외)	p02052	p03082	p04089	p05089	p06107	p07097-p09097
* 근로시간	-	p01176	(9) 복지후생 (비임금제외)	p02063	p03083	p04090	p05090	p06108	p07093-p09093

- 이 중에서 ①~⑦까지의 항목은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⑧, ⑨번 항목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되었다.
- 단, 1차년도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제외한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② 전반적 직무만족도(global measure)

□ 전반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단일항목으로 이루어진 측정이며, 두 번째는 5개의 항목들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의 측정이다.

□ 우선 단일항목으로 측정되는 '전반적 직무만족도' 설문은 3차년도부터 조사되어 왔다. 측정항목은 '(1)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5) 매우 불만족스럽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2〉 단일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설문 항목	3차	4차	5차	6차	7차-9차
___님께서는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p03084	p04091	p05091	p06109	p07098-p09098

□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설문은 5차년도부터 조사되고 있다. 문항의 개발은 Brayfield & Rothe (1951)의 척도에서 5개 문항을 선별한 것으로, 아래 표의 질문에 대해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아주 그렇다'까지 역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V-23〉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반적 직무만족도 변수

응답 항목	5차	6차	7차-9차
①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p05097	p06095	p07084-p09084
②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p05098	p06096	p07085-p09085
③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p05099	p06097	p07086-p09086
④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이을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	p05100	p06098	p07087-p09087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p05101	p06099	p07088-p09088

2.2.10 조직몰입도(organizational commitment)의 측정

□ 조직몰입도에 대한 측정 역시 5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설문의 개발은 Porter et al. (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에 기초하여 우수한 문항들을 선별한 것이다. 응답항목은 '(1) 매우만족'부터 (5) 매우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Ⅴ-24〉 조직몰입도의 측정 변수

응답 항목	5차	6차	7차-9차
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만한 좋은 직장이다.	p05092	p06100	p07079-p09079
② 나는 이 직장에 들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p05093	p06101	p07080-p09080
③ 직장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p05094	p06102	p07081-p09081
④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p05095	p06103	p07082-p09082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	p05096	p06104	p07083-p09083

2.2.11 기타 변수

□ 앞에서 언급된 변수 외에 매년 특별한 주제(건강상태, 계층소속감, 사회연결망, 생활만족도 등)에 관한 여러 문항이 조사되었다.

□ <표Ⅴ-25>은 1-9차년도 기타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의 년도별 차이점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상태 변수는 2, 3차 가구용 자료에 담겨 있으며,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부가 조사가 실시되면서 삭제되었다.
- 6차년도 조사부터는 4차년도 부가조사 문항 중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제약이나 장애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질병 현황에 대해서는 6차년도에만 파악하였다.
- 생활만족도는 1차년도를 제외한 2-9차년도에 모두 조사되었으며, 2차와 3, 4차의 문항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 주관적 계층 소속감은 2, 3, 5차년도에 조사되었으며 2차년도에는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계층소속감을 동일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나, 3, 5차년도에는 이를 따로 분리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6차년도에는 제외되었다.
- 경제적 여건은 3, 4차년도에 네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6차년도에는 제외되었다.
- 사회 연결망은 3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8차년도 부터 건강유지를 위해 평소 하는 일, 운동, 흡연 및 음주습관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 장애관련 문항은 4차년도(2001년) 건강관련 부가조사에서 조사하였다. 이후 관련 문항들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9차년도에 장애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 8차년도 부가조사인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설문 중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에 관한 3개 문항을 9차년도 조사에 추가하였다.

〈표 Ⅴ-25〉 1-9차년도 기타 변수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건강상태	V02556-V02566	V03526-V03540	부가조사 참조	-	p06367-p06391	p07335-p07343	p08335-p08343	p09335-p09343
장애또는장해 여부	-	-	부가조사 참조	-	-	-	-	p09601-p09644
생활만족도	P02203-P02207	P03167-P03173	P04363-P04369	P05356-P05362	p06360-p06365	p07328-p07334	p08328-p08334	p09328-p09334
주관적 계층소속감	P02208	P03174-P03175	-	P05363-P05364	-	-	-	-
경제적 여건	-	P03176-P03179	P04370-P05473	P05365-P05368	-	-	-	-
사회적 연결망	-	P03180-P03195	-	-	-	-	-	-
차별과 위험인식	-	-	-	-	-	p07367-p07419	-	-
건강유지와 운동, 흡연, 음주습관							p08530-p08542	p09530-p09542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부가조사 참조	p09651-p09653

3. 신규자료

3.1 신규자료의 구조

□ 신규자료는 신규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된다. 신규용 설문지는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으며 자료상에도 2차자료부터 포함된다. 신규용 자료는 만15세가 되어 처음 조사되거나 합가(合家)등의 이유로 추가된 가구원의 정보를 담고 있다. 신규자료의 내용은 개인자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개인 자료의 조사 내용이 반영된다.

□ 신규자료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 key변수와 가구원 정보
- 가 : 임금 첫 번째 일자리(주업)
- 나 : 비임금 첫 번째 일자리(주업)
- 다 : 임금 두 번째 일자리(부업)
- 라 : 비임금 두 번째 일자리(부업)
- 마 : 현재 경제활동
- 바 : 미취업 상태
- 사 : 모든 응답자
- 아 : 정규 교육, 직업 훈련
- 자 : 사회보험 및 기타

□ 개인 설문이 개인의 일자리별로 여러 개의 설문을 받도록 한 것과는 달리 신규용 설문은 개인당 최대 2개까지의 일자리에 대한 설문만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2 신규자료의 내용

□ 신규자료는 개인용 자료의 모든 내용을 반영한다. 단 신규용 자료는 처음 조사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
- 부모님의 학력
- 만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님)의 경제활동상태
- 출생지와 만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 형제자매 수 및 학력
- 출산력, 군복무경험, 종교

※ 이용자들이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를 merge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신규자료 변수들 중 개인자료와 일치하는 것들은 개인자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위의 여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자료(KLIPS02P~KLIPS09P)만 분석하더라도 신규조사 응답자 케이들까지 함께 분석 사례수에 포함된다.

□ 신규용 자료의 내용은 개인용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단 구성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 Ⅴ-26>은 9차년도를 기준으로 신규자료의 내용과 개인자료의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 개인용 자료의 가구원 정보관련 변수들은 신규자료 해당 케이들에게도 적용된다.
- 신규용 자료의 '가'와 '나'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개인용 자료의 주된 일자리의 변수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 신규용 자료의 '다'와 '라'의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의 내용은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 하나의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용 자료와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는 개인자료의 (공통)과 (취업)의 해당 변수와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한 것이다.
- 현재의 미취업 상태는 개인 자료의 (공통)과 (미취업)의 해당 변수와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한 것이다.
- 이전 일자리에 관한 내용은 신규자료에만 있는 것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표 Ⅴ-26〉 개인자료에 포함된 신규자료의 변수들(9차년도 기준)

신규자료		개인자료
가구원정보	-	P09001-P09017
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	N09024-N09181	P09701-P09815
나. 가장 중요한 일자리	N09184-N09248	
다.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	N09252-N09346	신규/직업력 자료에만 존재
라. 두 번째 중요한 일자리	N09347-N09407	
마. 현재의 경제활동	N09408-N09412 N09413-N09431	P09022-P09028 P09084-P09101
바. 현재의 미취업 상태	N09432-N09463	P09420-P09450
사. 이전 일자리	N09464-N09538	신규/직업력 자료에만 존재
아.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	N09539-N09653 N09659-N09771	P09260-P09309 P09105-P09217
자. 기타사항 중		신규자료에만 존재
군복무경험	N09654-N09656	
출생지 및 14세무렵 성장지	N09814-N09818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N09819-N09828	
종교	N09944	
출산력	N09870-N09874	
형제자매 수 및 학력	N09845-N09851	

⊙User notes : 신규용 자료에는 14세 당시의 성장지, 14세 무렵 부모님의 직업, 군복무경험, 출생지, 형제자매 수 등 개인용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의 신규자료와 개인자료를 연결하여야 한다. 신규용 자료를 개인용 자료와 연결하는 방법은 개인용 자료를 기준으로 신규용 자료의 변수의 배열과 내용을 개인용 자료와 일치시켜 두 자료를 Case Merge 하면 된다.

FAQ Q3참조

4. 직업력 자료

4.1 직업력 자료의 구조

□ KLIPS의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와 1차 조사 이후로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직업력 자료를 통해 개인이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 가구용 자료가 한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개인용 자료가 한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면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직업을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로 한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 조사의 유형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며 개인 자료의 주된 일자리 정보 또한 직업력 자료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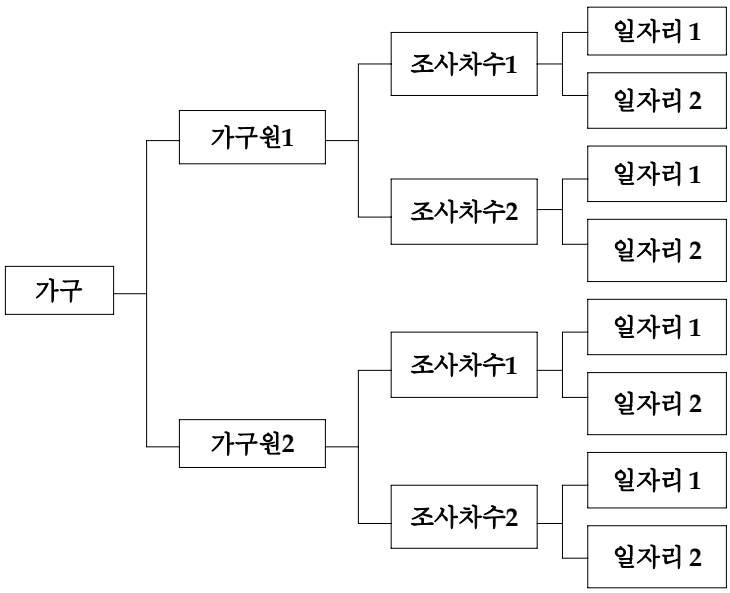
□ 직업력 자료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는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을 포함한다. 즉 원가구원은 물론 비원가구원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직업력 자료의 변수는 key 변수, 구성변수, 그 외의 주제별 변수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ey 변수 : pid, hhid98, hmem98, hhid99, hmem99, hhid00, hmem00, hhid01, hmem01, hhid02, hmem02, hhid03, hmem03, hhid04, hmem04, hhid05, hmem05, hhid06, hmem06
- 구성변수 : jobwave, jobseq, jobnum, ju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mainjob
- 그 외의 주제별 변수 : key 변수와 구성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 직업력 자료의 구조를 [그림Ⅴ-1]을 통해 살펴보자. 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1과 가구원2는 각각 조사차수 1, 2에 두 개씩의 일자리를 가지므로 직업력 자료에 이들의 일자리 정보는 8개의 행을 차지하게 된다.

〔그림 Ⅴ-1〕 직업력 자료의 구조



4.2 직업력 자료의 내용

□ 직업력 자료에서 key가 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jobwave

- '일자리 발견 차수'를 의미하며 해당 직업이 조사된 차수를 나타낸다.
- '0'은 1차년도 조사 당시의 회고적 일자리를 의미한다.
- 1부터 5까지는 각 일자리가 조사된 차수를 의미한다.

• jobseq

- '개인이 가진 일자리 순서'를 의미하며 동일한 일자리가 지속된다면 항상 동일한 jobseq를 갖는다.

• jobnum

- '일자리 번호'를 의미한다.

- 1차년도에 조사된 회고적 일자리는 발견된 순서대로 한자리의 값이 부여된다.
- 1차년도 조사 차수 바로 직전에 그만둔 일자리에 대해서는 '100'값이 부여된다.
- 회고적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는 세자리의 값을 가진다. 백단위는 조사 차수를 의미하며 십-일단위는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발견된 순서대로의 일련번호이다.

• jubnumc
- '지난 조사 당시의 일자리 번호(jobnum)'를 의미한다.

• jobcens
- 이전 조사와 현 조사 시점의 일자리의 보유/미보유 여부를 의미한다.
- '0'은 회고적 일자리에 관한 자료이다.
  '1'은 이전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도 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2'는 이전 조사시 보유했고, 현재 미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3'은 이전 조사시 미보유했고, 현재 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4'는 이전 조사시 미보유했고, 현재 미보유된 일자리를 의미한다.

• jobtype
- '일자리의 형태(임금/비임금)'를 의미한다.
- '1'은 임금근로자, '2'는 비임금근로자, '0'은 모름/무응답 혹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 jobclass
- '일자리 유형'을 의미한다.
- 해당 일자리가 유형 1 - 유형 8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의미한다. 유형 설문지는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으므로 1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와 신규조사자에게서 추출된 일자리는 이 변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 mainjob
- 해당 jobwave에서의 '주된 일자리 여부'를 의미한다.
- '1'은 주된 일자리를 의미하며, '0'은 기타 일자리를 의미한다.

□ 앞에서 살펴본 주요 변수 외에 직업력 자료를 구성하는 변수들과 그 내용은 <표 Ⅴ-27>과 같으며 변수 사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수에 따라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되거나 혹은 비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변수가 있는 반면 모든 취업자에게 해당되는 변수도 있다.
-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주당 평균 초과근무일수'의 경우 3차조사까지는 월평균 근무일수와 월평균 초과근무일수임에 유의해야 한다.
- '승진가능여부'(j163)는 2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주근무처'(j506)는 3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노조가입경로'(j510)와 '노조비가입 이유'(j511)는 3차, 4차에 조사되었다.
- 사회보험 세부 항목 중 '특수직역연금'(j402)과 산재보험(j405)은 3, 4차년도에 조사되었다.
- 전근관련 사항(j110-j119)은 2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 실업급여 신청여부, 액수, 수령기간 등(j611-j616)은 5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교대제 유무, 형태, 근로시간 변경 주기(j621-j623)는 5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월평균 임금 및 처음월평균임금의 세금액(j730, j731)은 7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 비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및 처음월평균 적자액(j802, j803)은 7차년도부터 추가되었다.

〈표 Ⅴ-27〉 직업력 자료의 변수

내 용	9차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임금)	J001-J006
구직활동 관련(임금/비임금)	J007-J022
사업체명 및 위치 변경(임금/비임금)	J102-J109
전근관련 및 주근무처(임금)	J110-J119, J506
업종, 직종(임금/비임금) 및 직위(임금)	J120-J139, J617-J620
고용형태(임금)	J141-J145
종사상 지위(임금/비임금)	J146-J150
근로시간 형태(임금)	J151-J155
근로계약기간 및 승진 가능 여부(임금)	J156-J163
근로시간 및 초과수당 관련(임금)	J201-J212
임금(임금) 및 소득(비임금) 관련 사항	J301-J321, J322-J327
사회보험관련(임금)	J401-J405
기업 형태 및 규모(임금)	J501-J504
가족종사자의 수(비임금)	J505
노동조합 관련(임금)	J507-J511
퇴직 및 퇴직금 관련(임금)	J601-J608
실업급여 관련(임금)	J611-J616
교대제 관련(임금)	J621-J623
(처음)월평균임금의 세금액	J730-J731
비임금 근로자의 (처음)월평균 적자액	J802-J803

⊙User notes :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취업시기는 1999년 5월 3일인데 퇴직시기는 1999년 3월 1일로 퇴직 시기가 취업시기보다 앞서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실사과정에서 발생한 응답자 혹은 면접원 오류로 확인된다.

□ 이상에 언급된 내용은 토대로 다음의 <예시>를 통해 직업력 자료의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 <예시>의 6개의 행이 동일한 pid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jobseq(일자리의 번호)를 보면 3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이 사람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3개의 일자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번을 가지는 일자리들은 모두 동일한 일자리들이 다음 차수에도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jobwave(일자리 발견차수)를 첫 번째 행의 일자리는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회고적 일자리를 의미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는 '1'의 값을 갖으며 따라서 이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이 후에도 2, 3, 4, 5까지는 각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조사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 jobnum(일자리 번호) 중 1'과 '100'의 값을 갖는 두 일자리는 1차년도에 조사된 회고적 일자리이며, 특히 '100'은 1차년도 당시 가장 최근에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101'은 1차년도에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 '201'은 2차년도에 발견된 첫 번째 일자리이다. 이런식으로 '301', '401', '501'까지 이 개인은 매년 한 개씩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jobnumc(지난 조사당시의 일자리번호)를 통해서 이 개인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동일한 일자리를 계속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obnum '201'옆의 칼럼이 '101'이므로 이것은 현재 일자리 번호가 '201'번인 일자리가 지난조사 당시에는 '101'번이었던 일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jobseq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동일한 '3'값을 갖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 jobcens(일자리 지속 여부)는 위의 두 개의 일자리는 '0'의 값을 가지며, 세 번째 행에서는 '3'값을 가지며 이후부터는 '1'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개의 일자리는 회고적 자료임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일자리는 이전조사시 미보유했고 1차년도 조사당시 가진 일자리임을 의미한다. 2차년도에는 이전조사시 보유했고 2차년도 조사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이므로 '1'값을 가지며, 이는 3-5차년도까지 반복된다.
- jobtype(일자리의 형태)는 모두 '2'의 값을 가진 것을 보아 세 일자리 모두 비임금 형태의 일자리인 것을 알 수 있다.
- jobclass(일자리 유형)은 2차년도부터 '3'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일자리는 유형3, 즉 비임금근로 중 이전조사시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전년도까지의 값이 'missing'인 이유는 당연하게도 '유형설문지' 자체가 2차년도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mainjob(주된 일자리 여부)는 1차년도부터부터 시작된 jobseq '3'의 일자리가 모두 주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예 시〉

pid	jobwave	jobseq	jobnum	jobnumc	jobcens	jobtype	jobclass	mainjob
13801	0	1	1	.	0	2	.	0
13801	1	2	100	.	0	2	.	0
13801	1	3	101	.	3	2	.	1
13801	2	3	201	101	1	2	3	1
13801	3	3	301	201	1	2	3	1
13801	4	3	401	301	1	2	3	1
13801	5	3	501	401	1	2	3	1

5. 부가조사자료

5.1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층 자료

5.1.1 청년층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3차년도(2000년) 조사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 3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1970년 5월 1일 이후부터 1985년 4월 30일까지 출생한 개인
- 조사목적 : 청년 실업 문제와 청년 유휴인력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규명과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됨.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청년층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1.2 청년층 자료의 내용

□ 청년층 자료의 내용은 <표Ⅴ-28>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학력관련 변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4년제),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유형과 계열/전공, 학교 이름, 소재지, 졸업/그만둔 시기와 재학여부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졸업 당시의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자격증은 재학 중 혹은 졸업하면서 취득한 자격증 여부와 자격증 종류를 묻고 있다.
- 재학 중 직업훈련은 재학 중 취업을 위해 받은 훈련, 교육, 실습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다.
- 재학 중 취업(아르바이트)은 일한 내용과 일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직활동과 취업 경험은 졸업/중퇴/휴학 이후 구직활동방법과 기간, 취업제의 경험 유무와 취업 제의 거절 이유, 2개월 이상 취업 경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첫 일자리는 최종적인 학업 종료 이후 첫 일자리의 업종, 직종, 직위, 종사상 지위, 일자리 규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V-28〉 3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3차
학력 및 졸업당시 건강상태	Y03101-Y03161
자격증	Y03162-Y03167
재학 중 직업훈련	Y03168-Y03181
재학 중 취업(아르바이트)	Y03201-Y03205
구직활동과 취업 경험	Y03206-Y03218
첫 일자리	Y03301-Y03344

⊙User notes : 청년용 자료에서 학력변수(Y03101-Y03105)는 최종학력을 응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현재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력을, 졸업이나 중퇴 한 경우 졸업이나 중퇴 한 최종 학력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응답자에 따라서 최종 학력 이전의 모든 학업 스토리 혹은 부분적 학업 스토리를 기재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기재할 수 있는 최대치인 5개의 학력 변수가 생성되었다.

청년용 자료를 다른 개인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할 때는 pid를 key변수로 사용하면 된다. FAQ Q4참조.

5.2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자료

5.2.1 건강과 은퇴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4차년도(2001) 조사
- 조사대상 : 건강 - 15세 이상 모든 개인 설문 조사 대상자
  은퇴·노후생활 - 만45세 이상 응답자
- 조사목적 :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은퇴 및 노후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함.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건강과 은퇴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2.2 건강과 은퇴 자료의 내용

□ 건강과 은퇴 자료의 내용은 <표Ⅴ-29>와 같다.

- 건강상태는 현재와 1년 전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에 제한을 받았던 경험을 묻고 있다.
- 장애/장해는 장애/장해 여부와 종류, 장애/장해 판정 여부와 급수, 장애와 관련된 근로의 제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병은 지병의 유무와 종류, 지병 시작 시기 등을 묻고 있다.
- 입원 경험과 건강진단은 입원 경험 및 입원 이유와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 의료기관 이용은 의료기관 이용경험과 이용 의료기관 형태 및 이용 의료 서비스 종류를 묻고 있다.
-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다.
- 건강관련 사항은 흡연과 음주, 운동 관련 사항을 묻고 있다.
- 피부양과 부양은 피부양 여부와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다.
-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하는데 제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출산휴가 사용 여부 등을 묻고 있다.
- 은퇴와 노후 생활은 은퇴 상태와 은퇴 계획, 은퇴 시기, 은퇴자의 생활비 조달 방법 등을 묻고 있다.

〈표 Ⅴ-29〉 4차년도 부가조사 -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4차
건강상태와 근로	A04021-A04024
장애/장해	A04025-A04059
지병	A04060-A04070
입원 경험과 건강진단	A04071-A04083
의료기관 이용	A04084-A04099
건강보험	A04100-A04114
건강관련 사항	A04115-A04124
피부양과 부양	A04125-A04138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	A04139-A04154
은퇴와 노후 생활	A04155-A04188

5.3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5.3.1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6차년도(2003) 조사
- 조사대상 : 만 50세 이상(1953년 4월 30일 이전에 출생) 모든 개인
- 조사목적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령자들의 노후 대책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설계되었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가구정보와 중고령자 부가조사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3.2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은 <표Ⅴ-30>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은퇴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은퇴자'를 정의하고 은퇴 연령 및 은퇴이유, 그리고 은퇴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은퇴할 당시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특성은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가 은퇴한 후에 다시 재취업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여전히 주된 일자리인지를 판별한다. 그 다음으로는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산업, 직업, 재직기간,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형태, 사업체의 규모, 근로시간, 임금 등을 조사하였다.
- 개인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를 45세 전후로 보고 이 당시의 취업활동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종사상 지위와 산업, 직업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 고령자들의 소득원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자산 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 공적이전, 사적이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미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자료에서 가구단위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자료에서도 개인단위의 근로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중고령자 자료의 소득

자료까지 분석에 적용할 경우 고령자의 소득원천에 대해 보다 상세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자의 경제생활은 가족내의 경제적 교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므로 이를 파악하였다. 자녀의 수 및 가족내 어떤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혹은 반대로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누가 담당하는지, 혹은 했는지도 조사하였다. 친구 및 친지와의 교류 정도, 친목모임, 종교모임 등 노후 활동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난 2주 동안의 건강상태와 질병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표 Ⅴ-30〉 6차년도 부가조사 -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6차
은퇴여부, 은퇴년도, 은퇴이유, 은퇴계획연령	A06023-A06031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의 특성	A06032-A06056
만 45세 당시의 취업활동	A06057-A06065
현재의 소득원천, 연금	A06084-A06095
자녀의 수 및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A06096-A06132
부양의무 및 사회관계	A06133-A06149
건강 상태	A06150-A06153

5.4 7차년도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5.4.1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7차년도(2004) 조사
- 조사대상 : 모든 개인
- 조사목적 : 2004년부터 7월부터 실시되는 '법정근로시간단축'이 경제생활 및 여가생활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위해 설계되었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근로시간과 여가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4.2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근로시간과 여가 자료의 내용은 <표Ⅴ-31>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정기휴일, 휴무(법정공휴일, 명절, 기타 휴가)에 대해 직장에서의 제공여부와 실제로 응답자가 쉰 날. 연월차 휴가 및 수당 여부, 하계휴가 및 생리휴가 사용 여부 및 회수
-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 근무시간의 규칙성 여부, 평일 근무 중 시간 배분, 주5일제의 효과, 휴일(법정공휴일 및 명절, 기타 휴무, 하계휴가)관련 사항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임금/비임금) : 근로소득, 휴가일수, 실근로시간, 취업기회 등의 증감 여부,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증감 여부, 2002년 1월 이후 정규근로시간 단축 여부
- 여성의 출산휴가 : 출산 경험여부, 출산 당시 취업형태, 출산휴가 여부
- 일상의 시간배분 : 평소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조사함.
- 여가관련 사항 : 지난 주 여가활동여부/소요시간/경비 등, 여가 활동의 순위, 지난 1년간의 독서량, 신문 구독량, TV시청시간, 종교활동 참여수준

〈표 Ⅴ-31〉 7차년도 부가조사 -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7차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A07002-A07103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	A07104-A07176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A07177-A07190
여성의 출산휴가	A07191-A07196
일상에서의 시간배분	A07197-A07229
여가활동	A07230-A07265

5.5 8차년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5.5.1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8차년도(2005) 조사
- 조사대상 : 모든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일부
- 조사목적 :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제, 다양한 형태의 노사의사소통체계 등의 실태와 의식을 사업체 단위가 아닌 근로자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다.
- 조사내용 및 자료의 구조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설문지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자료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5.5.2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자료의 내용은 <표Ⅴ-32>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 가입과 참여 : 직장의 노조 존재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 노조 가입과 탈퇴 의사 여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수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협력수준, 단체협상의 적용 수준, 노조 비가입 이유, 이전 일자리에서의 노조가입 경험, 자발적 이직 여부
- 노사협의회 운영 :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관심수준 및 의식,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식
- 인적자원관리와 근로자 대표제도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제외한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소통제도의 존재여부,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 직무상의 의사결정 참여와 영향력 수준, 임금, 근로시간, 노동강도 등에 대한 불만 및 의사소통경로, 고용주와의 신뢰관계 수준
-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 노동조합의 근로조건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견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견해, 노동조합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견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

- 응답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가치관 : 우리나라 고용주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견해, 응답자 개인의 사회적 가치관

〈표 Ⅴ-32〉 8차년도 부가조사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8차
노동조합 가입과 참여	A08001-A08028
노사협의회의 운영	A08029-A08042
인적자원 관리와 근로자 대표제도	A08043-A08019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A08110-A08136
응답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관	A08137-A08145

5.6 9차년도 청년용 부가조사

5.6.1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의 구조

- 조사시기 : 9차년도(2006) 조사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층(1971-1991년 출생자)
- 조사목적 : 청년층의 성장당시 가족 및 학교생활과 현재의 구직활동, 취업, 임금 등과 같은 노동시장 행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내용 : 취학전, 취학이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사교육, 성적, 일자리 경험, 첫 일자리의 특성, 가족들과의 일상적 관계, 청년층 무업자(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행태 등.

5.6.2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내용

□ 청년층 자료 내용은 <표Ⅴ-33>과 같으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학교생활 및 교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시의 사교육 경험, 사교육 종류, 어학연수 경험, 성적, 학업력(Educational history)

-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 대학교 입학여부, 전공, 편입여부, 학점, 졸업여부
  대학원 입학여부, 전공, 진학 이유 등

- 졸업 후 첫 일자리 경험 : 졸업 후 구직활동, 졸업후 첫 일자리 종사상지위, 근무형태, 고용형태, 기업형태, 소득, 근로시간, 전공 및 교육수준 일치도, 그만둔 시기 및 이유

- 성장기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 성장기 당시 부모와의 동거여부, 모친의 직업유무, 14세 당시의 집안형편, 문화활동 참여, 가족관계

- 무직자의 행태 및 청소년기의 일탈행위 : 무직자의 행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절의 휴학, 지각, 결석, 폭행, 술, 담배 등의 일탈행위

〈표 Ⅴ-33〉 9차년도 부가조사 -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의 변수

내 용	9차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학교생활 및 교육	A09001-A09048
대학교 진학	A09049-A094i3
대학원 진학	A09051-A095F2
졸업 후 첫 일자리 경험	A09061-A09096
성장기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A09098-A09163
무직자의 행태 및 청소년기의 일탈행위	A09164-A09193

<부록 1> 9차년도 KLIPS 자료를 이용한 문헌 목록

◈ 기초분석보고서

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2008,『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출판예정

◈ KLIPS Research Brief

최효미, 2007, “KLIPS에 나타난 소비 문항의 소고(小考), 『노동리뷰』 1월호

최효미, 2007,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노동리뷰』 4월호

이상호, 2007,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장애인구의 규모 및 노동시장 성과분석”, 『노동리뷰』 7월호

배기준, 2008, “직무만족도의 변화 분석”, 『노동리뷰』 4월호

◈ KLIPS Technical Report

성재민, 2007, “응답사례금, 조사에 영향이 있는가?”, 『노동리뷰』 10월호

신선옥, 2008,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응답자 태도에 면접원이 미치는 효과”, 『노동리뷰』 1월호

◈ 주제별 문헌 목록

<교 육>

- 김희삼, 이삼호, 2008,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의 선별”,「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기헌, 2008,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 지속성에 미치는 영

향”,「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유경원, 2008,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비정규직>

- 남재량, 2008,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 연구: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우영, 2008, “비정규직 결정의 동태성과 남녀간 비정규직 격차분석”,「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배화숙, 2008, “비정규직 유형별 직무 및 일상생활 만족도 차이 연구”,「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소 득>

- 정철, 김봉근, 박명호, 2008, “엥겔곡선이동과 실질소득추정”,「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성제, 최상희, 윤정란, 2008,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 시계열적 변화와 소득항목별 영향력”,「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석상훈, 2008,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중고령자>

- 이승렬, 2008, “중고령자의 건강과 노동공급: 패널토빗모형에 기초한 노동시간 결정 분석”,「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강성호, 김경아, 2008, “노동시장 참여형태별 성별 노후소득수준 격차 분석”,「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지경, 김하늬, 2008,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과 소득액 결정요인”,「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임 금>

- 이병훈, 홍석범, 2008, “임금 결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엄동욱, 2008, “기업 임금체계의 변화와 연공임금: 근속과 경력에 대한 보상 차이를 중심으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임찬영, 2008, “전공-직무매치와 근속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노동이동>

- 윤윤규, 2008,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이행경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홍성민, 박진희, 2008, “산업인력 경력개발 경로(Career Path)의 특성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국민연금>

- 김용하, 2008, “퇴직연금의 수급가능성과 연금휴대성”,「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 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을식,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공급”,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만족도>

- 김태일, 한경희, 2008, “1990년대말 이후 직무 여건 변화가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재호, 2008, “중고령자의 행복경제학: 이전소득과 자녀의 왕래 빈도가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손용진, 2008, “사적 경제적 이전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40, 50, 6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빈곤과 가계경제>

- 남상호, 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경우, 2008,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와 근로빈곤층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지경, 송현주, 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 이재성, 2008,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노사관계, 고용, 하청 및 기업지배 구조의 요인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혜민, 2008,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탈출 결정요인”,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정의신, 2008, “사적이전과 계층에 관한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조민수, 200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박소영, 김하나, 2008,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직업훈련이 미치는 영향”,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FAQ	노동패널 잘 쓰는 방법?

노동패널자료의 조사차수가 늘어나면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할 수 없었던 많은 실증연구들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패널자료 분석에 뛰어들었던 많은 연구자들이 이내 분석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변수가 워낙 많고 자료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9차 조사 자료에만 총 2,752개의 변수들이 개인용・가구용・신규용・부가조사용・직업력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변수들 중에서 분석모형에 사용할 변수들을 일일이 찾아내야 한다. 고생끝에 필요한 변수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적절한지 난감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패널자료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자료를 이리저리 만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드북과 데이터만 갖고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어렵다. **동일한 변수라도 각 연도별로 항목값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각각의 변수에 대해 설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노동패널을 처음 사용하는 연구자라면 자료를 만지기 전에 아래의 절차를 밟기를 추천한다.

1. 먼저 유저가이드 1장 한국노동패널소개와 3장 자료의 주요 특성 부분을 읽어본다.
2. 자료를 열어보기 전에 먼저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특히 관련 문항들의 전후구조에 유의한다.
3. 다음으로 설문지에 분석주제와 관련된 문항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한다.
4. 설문지에서 체크한 문항들이 실제로 코드북의 변수값과 일치하는지를 체크한다.
   - 이때 해당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 유저가이드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저가이드의 변수가이드와 주제별 가이드에는 연구자들이 놓치기 쉬운 데이터의 핵심 내용을 최소한으로 요약한 것이므로 참조가 될 것이다.
5. 데이터 기초분석을 통해 관련 변수들의 빈도값이 코드북에 나와있는 빈도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missing값의 처리에 주의한다.

◎ FAQ에 사용된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

1. 아래의 예제 프로그램들은 노동패널 9차년도 Release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주의할 점은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경로(SAS의 경우 library name의 경로)을 지정해 주어야 된다는 점이다.

2. 아래의 예제 프로그램들은 단지 '예제'일 뿐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즉, 해당주제와 분석목적에 따라 노동패널팀 필자들과는 얼마든지 다른 정의와 구분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 면에서도 얼마든지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Q 1 노동패널자료를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없을까?

연구자라면 누구나 자료에 대한 욕심을 갖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료를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정보들에 더욱 접근하고 싶어한다. 노동패널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왜 9차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안나오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노동패널팀에서는 이제 겨우 9차년도 자료를 release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연구자들을 위해 우선 노동패널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래는 9차년도 자료가 release 되기까지의 과정이다.

① 조사설계 : 2006년 1~3월
② 현장실사 : 2006년 4~9월
③ 원자료 생성 및 1차 클리닝(실사업체) : 2006년 10월 ~2007년 1월
④ 원자료 가공 및 2차 클리닝(노동연구원 패널팀) : 2007년 2~7월
⑤ 학술대회용 자료 공개 : 2007년 9월
⑥ 자료 분석을 통한 feed back →에러의 심화체크: 2007년 9월 ~ 2008년 2월
⑦ 자료 CD, 유저가이드, 코드북 제작 : 2008년 3~5월
⑧ release버젼 자료 공개 : 2008년 6월

이상과 같이 약 2년 6개월의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년도의 조사 및 데이터 발간 작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준비 과정을 앞당기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술대회에 연구계획서를 신청하는 것 뿐이다.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접수는 매년 6월 경에 공고가 나가서 8월 초까지 접수를 받으며, 일정한 통과절차를 거치면 학술대회용 CD를 제공받게 된다.

Q 2 SAS나 SPSS 파일을 다른 통계패키지 파일로 바꾸고자 할 때

노동패널 자료는 SAS 8.0, SPSS 11.0 이상의 버젼에서 만들어졌다. 만일 SPSS 사용자라면 낮은 버젼의 패키지를 사용하더라도 자료를 불러오거나 다른 패키지로 전환할 때 별도의 주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SAS의 경우 각 버젼마다 데이터파일의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에 변환해야 한다. 만일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자료를 불러올 수 없다면 자료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므로 다시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엑셀을 이용한 자료의 분석은 제약이 매우 크다. 엑셀로 전환가능한 최대 변수의 갯수는 255개인데, 노동패널자료의 변수 갯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료 전체를 엑셀로 바꾸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SAS나 SPSS에서 필요한 변수들만을 “keep”한 후 이를 엑셀로 변환해주는 수밖에 없다.

SAS나 SPSS이외에 다른 통계패키지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우선 데이터를 ASCII파일이나 data파일로 바꾼 후, 다시 해당 패키지 파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많은 통계패키지들이 SAS와 SPSS파일을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3 신규자료를 꼭 써야하는 이유, 그리고 개인자료와 신규자료 합치기 SAS Set 문, SPSS Add 문 사용

※ 8차년도 release 자료부터는 신규자료에 수록된 관측치들이 개인자료(klips02p-klips08p)에도 동시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아래의 설명과 예제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사용하면서 Case merge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예컨대, 가구자료를 패널화하는 경우) 아래의 예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노동패널자료는 개인자료 외에도 신규자료가 존재한다. 신규자료는 새로이 조사가구에 결혼 등의 이유로 들어오게 된 가구원, 15세 이상이 되어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응답하게 된 가구원 등이 응답대상이다. 이들은 개인설문(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유형설문)에는 응답하지 않고 신규설문에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응답된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가 바로 신규자료이다. 이들 상당수가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람들이므로 모집단을 유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단위의 분석을 실시할 때 해당변수와 일치하는 내용을 신규자료로부터 추출한다면 분석모형에 포함될 수 있는 케이스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신규조사를 통해 새로 진입하는 개인들의 상당수가 원표본에 속하는 가구원 중에서 새로 15세가 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모집단 중 일부를 체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자료를 개인자료와 병합(merge)하는 것은 자료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일반적인 분석상황에서 반드시 신규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붙여 함께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
*=======================;
*     SAS- Set문의 사용     ;
*=======================;

data a1; set kli.klips09p (keep=pid p09017 p09027);
if p09017 in (1,2,3);                    * 신규조사 응답자는 관측치에서 삭제;
  rename p09027=employ;                  * 현재의 취업형태;

data  a2; set kli.klips09n(keep=pid n09023);
  rename n09023=employ;                  * 주된 일자리;

data key; set a1 a2;
proc freq  data=key; tables employ;
run;


*=======================.
*     SPSS - Add문의 사용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p.sav' /* 9차년도 개인자료 */
/keep pid p09017 p09027.
rename variables (p09027=employ).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a1.sav'.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n.sav' /* 9차년도 신규자료 */
/keep pid n09023.
rename variables (n09023=employ).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a2.sav'.


* 두 데이터 합치기 (케이스 머지): 데이터 경로를 정확히 써 주세요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a1.sav'.
add files /file=*
/file='D:WKLIPSW1to9 DATA(SPSS)Wa2.sav'.
frequencies variables=employ.
execute.
```

Q 4 개인자료와 부가자료 합치기
기준 변수 PID를 이용한 Merge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신규)에 있는 핵심 변수들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가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45세 당시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지위와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비교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만45세 당시의 일자리 정보는 중고령자 자료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직업력 자료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직업력 자료는 가장 최근찻수 자료만 있음을 상기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변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병합해야 한다.

```
*=======================;
*     SAS - Merge문의 사용  ;
*=======================;

data a1; set kli.klips06a(keep = pid a06058);     * 종사상 지위;
  flag =1; * 부가조사에 응답한 모든 개인에 1값을 부여;

  proc sort; by pid;  run;

data a2(keep=pid j150); set kli.klips09w;         * 현재 종사상 지위;
  if jobwave=6 and mainjob=1;                     * 9차년도 주된 일자리 정보만 남기고 삭제;

proc sort; by pid; run;

data a3; merge a1 a2; by pid;
 if flag=1;                              *부가조사에 응답한 케이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

proc freq; table a06058*j150;
run;


*=======================.
*     SPSS - Match문의 사용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6a.sav'
/keep pid a06058.
compute flag=1.
```

```
sort cases by pid.
save out='D:₩KLIPSW1to9 DATA(SPSS)₩a1.sav'.

get file='D:₩KLIPSW1to9 DATA(SPSS)₩klips09w.sav'
/keep pid j150 jobwave mainjob.
select if (jobwave=6 and mainjob=1).
sort cases by pid.
save out='D:₩KLIPSW1to9 DATA(SPSS)₩a2.sav'

match files /file=*
/table='D:₩KLIPSW1to9 DATA(SPSS)₩a1.sav'
/by pid.

crosstabs /tables=a06058 by j150.
execute.
```

위의 프로그램은 SAS의 merge문과 SPSS의 match문을 이용하여 variable merge를 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case merge와는 달리 SPSS에서는 반드시 기준변수로 자료를 '정렬(sorting)'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Q 5 가구자료와 개인자료 합치기
기준 변수 HHID**를 이용한 Merge

노동패널자료에서는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병합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예컨대,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총소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한다고 하자. 그리고 설명변수를 가구총소득, 자산, 부채, 총가구원수, 가구주의 성별, 연령,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변수들로 구성한다.

이 때 다른 모든 변수들은 가구자료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는 개인자료에서 별도로 구성한 다음 가구자료로 붙여야 한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

① 먼저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를 케이스 merge한다.
② FAQ 24의 절차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를 구성한다.
③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만을 “keep”한다. 개인자료의 경우 ‘p09002 = 10’인 경우가 가구주에 해당한다.
④ 9차년도 개인자료와 9차년도 가구자료를 각각 hhid06를 기준으로 정렬("sort")한다.
⑤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병합은 앞서 FAQ Q4에서 다룬 ‘기준변수’를 이용한 variable merge를 이용하면 된다.

만일 8차년도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merge한다면 -> hhid05
만일 7차년도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merge한다면 -> hhid04

이런 식으로 기준변수를 정하여 merge하면 된다.

Q 6 직업력자료에 개인의 성별, 연령 붙이기

개인단위의 일자리 정보를 모두 수록한 자료가 바로 직업력 자료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직업력 자료에는 개인의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정보가 자료에 붙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직업력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단위로 케이스가 만들어진 데이터 셋이다. 즉 한 개인이 1차 조사부터 지금까지 총 20개의 일자리를 가졌었거나 가졌다면 20개의 '행'이 생성된다. 더구나, 그 개인이 15세이후부터 1차조사 시점 직전까지 5개의 일자리를 가졌었다면, 20개의 일자리에 5개를 더하여 총 25개의 일자리 '행'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직업력 자료의 크기가 이미 방대하기 때문에 직업력 자료에는 가급적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즉, 개인의 인적정보는 연구자가 개인(신규)자료에서 붙여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직업력 자료에 개인의 인적정보를 붙이는 작업은 앞서 Q4에서 배웠던 '기준변수를 이용한 데이터 merge'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
*=======================;
*     SAS - Merge문의 사용  ;
*=======================;

data a1; set kli.klips09p(keep=pid p09001 p09007);
          rename p09001=sex p09007=age;
          proc sort; by pid;

data a2; set kli.klips09w; if jobwave=9;

proc sort; by pid;

data work; merge a1 a2; by pid;  if jobwave=9;
run;
```

```
*=========================.
*      SPSS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p.sav'
/keep pid p09001 p09007
/rename (p09001=sex) (p09007=age).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k09p.sav'.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w.sav'.
filter off.
use all.
select if(jobwave=9).
execute.

sort cases by pid.
match files /file=*
/table='D:WKLIPSW1to9 DATA(SPSS)Wk09p.sav'
/by pid.
execute.
```

Q 7 원가구와 분가가구의 차이

노동패널조사는 가구패널조사로 1차년도 당시에 조사된 가구 5,000개 가구를 원가구로 해서 매해 추적 조사한다. 따라서, 노동패널의 모든 가구는 「원가구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1번가구부터 5000번 가구까지의 「원가구번호」를 갖게 된다. 9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hhid변수가 이 가구의 「원가구번호」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가·합가·소멸 등의 이유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이나 분가 등의 이유로 원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에 대해서는 5001번부터 새로운 가구번호가 부여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분가가구라 하더라도, 1차년도 당시에 조사된 가구(즉 원가구)에 있던 가구원(즉 원가구원)이 분가하였을 경우에만 분가가구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가가구 내에 다른 가구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가구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가구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원가구일 경우에는 원가구번호인 hhid와 당해연도 가구번호인 hhid06(9차)는 같은 번호를 갖게 되지만, 분가가구의 경우에는 hhid와 hhid06는 다른 가구번호를 갖게 된다.

참고로 각년도별 분가가구번호를 살펴보면, 5000번 이내는 1차(1998) 원가구의 번호이며, 5001~5258번은 2차(1999)에 분가한 가구, 5259~5444번은 3차(2000)에 분가한 가구, 5445~5742번은 4차(2001), 5743~5982번은 5차(2002), 5983~6261번은 6차(2003), 6262~6525번은 7차(2004), 6526~6818번은 8차(2005), 6819~6972번은 9차(2006)에 분가한 가구의 번호이다.

Q 8 hhid~hhid06 중에서 어떤 것을 가구 id로 사용해야 할까?

SAS 및 SPSS문 활용 예 : 가구데이터의 연도간 merge

위의 Q7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패널의 가구번호는 크게 당해연도 가구번호와 원가구번호로 구성된다. 노동패널 가구용 데이터에는 가구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는 노동패널 조사에 "한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모든 가구"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9차년도 가구용 데이터에는 hhid, hhid99,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hhid06과 같이 9개의 가구번호가 있다. 이들은 각각 원가구번호(hhid), 2차가구번호(hhid99), 3차가구번호(hhid00), 4차가구번호(hhid01), 5차가구번호(hhid02), 6차가구번호(hhid03), 7차가구번호(hhid04), 8차가구번호(hhid05), 9차가구번호(hhid06) 를 의미한다. 원가구번호는 Q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년도 조사당시의 가구번호를 의미하며, 2~9차 가구번호는 각 해마다 조사된 가구번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가구일 경우 해당년도의 가구번호가 missing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892번이었던 가구가 3차년도에 5150번 가구로 분가한 후, 5차년도에는 조사에 실패했다면, 이 가구의 가구번호는 hhid-892, hhid99-missing, hhid00-5150, hhid01-5150, hhid02-missing, hhid03부터 hhid06 까지 5150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일 연구자가 동일한 가구끼리 연도간 merge를 할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구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가구의 변동과 같은 특정상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원가구번호가 아닌 당해연도 가구번호를 기준으로 merge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예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   SAS - 가구용 데이터의 년도간 merge    ;
*====================================;

libname kli'D:WKLIPSW1to9 DATA(SAS)';

data k08h; set kli.klips08h;
hid=hhid05;
proc sort; by hid; run;

data k09h; set kli.klips09h;
hid=hhid06;
proc sort; by hid; run;

data klpsh; merge k08h k09h; by hid; run;


*====================================.
*   SPSS - 가구용 데이터의 년도간 merge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8h.sav'.
compute hid=hhid05.
sort cases by hid.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k8h.sav'.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h.sav'.
compute hid=hhid06.
sort cases by hid.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k9h.sav'.

*머지 -> “add variables” -> key를 hid로 해서 “both files provide cases" 방식으로 머지.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8h.sav'.
EXECUTE.

MATCH FILES /FILE=*
 /FILE='D:WKLIPSW1to9 DATA(SPSS)Wk9h.sav'
 /RENAME (HHID HHID00 HHID01 HHID02 HHID03 HHID04 HHID05 HHID99 HWAVE01 HWAVE02 HWAVE03 HWAVE04
HWAVE05 HWAVE06 HWAVE07 HWAVE08 HWAVEENT SAMPLE98 version = d0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BY hid
 /DROP= d0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EXECUTE.
```

Q 9 15세 이상 가구원 수, 15세 미만 가구원수 구하기

가구자료를 이용한 분석모형을 구성할 때 가구원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예컨대, 소득불평등 지표를 구성할 때 가구원수는 '조정계수'로 사용된다. 총가구원수는 가구자료에 변수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5세 이상 가구원수 같은 변수들이 중요할 수 있다. 여성노동시장 참가여부 모형을 구성할 때 5세미만 자녀수, 혹은 3세미만 자녀수 등이 중요한 도구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원 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성해야 한다. 9차년도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15세 이상/미만 가구원수를 구해보자.

```
*=======================================;
*   SAS - 가구원수 만들기 (Array 문의 활용)    ;
*=======================================;

data a1; set kli.klips09h;
     if hwave09 = 1;                    * 8차에 응답한 가구들만 추출;
          array p[15] tnum1-tnum15;     * 15x1 dummy array 생성;
          array y[15] v09256-v09270;    * 첫가구원의 만나이 ~ 15번째 각원의 만나이;
do i=1 to 15;
          if y[i] => 15 then p[i]=1;    * 15세 이상인 가구원에 대해 더미=1;
end;

tnum= sum(of tnum1-tnum15);
num=v09100-tnum;

label tnum='15세이상 가구원 수'
       num='15세미만 가구원 수';

proc means; var v09100 tnum num; run;


*=======================.
*    SPSS- Count 문의 활용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h.sav'
/keep hwave09 v09256 to v09270 v09100.

/* 15세 미만 가구원 수 count 하기 */
```

```
count age15=v09256 to v09270 (0 thru 15).

compute rnum=v09100-age15.
compute tnum=v09100.

filter off.
use all.
select if (hwave09=1). /* 9차 응답자만 남기기 */
execute.

descriptives
variables=tnum age15 rnum
/statistics=mean stddev min max.
```

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총 9차년도 응답가구인 총 5,002케이스의 평균값이 아래와 같이 나올 것이다. 9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 평균 가구원 수는 3.1명이며, 15세 이상 가구원수는 2.5명이다. 또한, 15세미만 가구원수는 0.5명으로 나타난다.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가구원수	3.1	1.3	1	10
15세이상가구원수	2.5	1.1	1	9
15세미만가구원수	0.5	0.8	0	4

Q 10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 추출하기
SAS Array 문, SPSS Repeat 문 이용

가구자료를 이용하는 분석모형에서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핵심적인 변수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가구자료는 이들 정보에 대해 1가구 내 최대 15명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째 가구원의 정보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 SAS 사용자는 array문을, SPSS 사용자는 repeat문을 사용하여 쉽게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구성할 수 있다.

```
*=======================;
*     SAS- Array문의 사용   ;
*=======================;

data a1; set kli.klips09h;

if hwave09=1;
          array x[15] v09181-v09195;    * 가구주와의 관계.. 값이 10이면 본인(가구주);
          array y[15] v09166-v09180;    * 가구원의 성별;
          array z[15] v09256-v09270;    * 가구원의 만나이;

do i=1 to 15;                           * 한 가구의 i 번째 가구원;
          if x[i]=10 then hsex=y[i];
          if x[i]=10 then hage=z[i];
end;

proc freq; table hsex;
proc means; var hage;
run;


*=======================.
*    SPSS- Repeat문의 사용  .
*=======================.

*9차년도 가구용자료를 불러온 상태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h.sav'

do repeat
head = v09181 v09182 v09183 v09184 v09185 v09186 v09187 v09188 v09189 v09190 v09191 v09192
v09193 v09194 v09195 /
```

```
sex  = v09166 v09167 v09168 v09169 v09170 v09171 v09172 v09173 v09174 v09175 v09176 v09177
v09178 v09179 v09180 /
age  = v09256 v09257 v09258 v09259 v09260 v09261 v09262 v09263 v09264 v09265 v09266 v09267
v09268 v09269 v09270 .
if (head = 10) hsex = sex.
if (head = 10) hage = age.
end repeat.

fre hsex.
DESCRIPTIVES
  VARIABLES=hage
  /STATISTICS=MEAN STDDEV MIN MAX .
```

Q 11 가구자료에서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추출
SAS Transpose 문, SPSS Restructure 기능 이용

가구자료에 수록된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등의 정보들은 노동패널팀에서 자체 가공하여 개인자료에 "(가구정보)"라는 라벨이 붙은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자료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가구자료에서 가구원의 인적 특성 정보들을 별도로 추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구상황에 따라 개인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 특성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범용 통계패키지들은 행단위의 연단보다는 열단위(변수단위)의 연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의 적절한 조작이 필요하다.

가구자료의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1가구에 소속된 가구원일 경우 1개 case내에 붙어 있다. 예컨대, 1가구에 소속된 가구원이 10명이라면 1부터 15번째 가구원의 성별변수들 사이에 흩어져서 각각의 값이 들어가 있다.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가로형태로 붙어있는 성별변수를 개인 케이스별로 잘라내어 다시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케이스는 조사된 개인수에 따라 늘어나겠지만, 성별변수는 원래 15개에서 1개로 줄일 수 있다.

〈가구자료의 가구원 정보〉

가구원의 인적정보(최대 15명)					
v08166	v08167	…	v08256	v08257	…
1번째 가구원의 성별	2번째 가구원의 성별	…	1번째 가구원의 만나이	2번째 가구원의 만나이	…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
1번째 가구원			
2번째 가구원			
…			
1번째 가구원			
2번째 가구원			
…			

아래 프로그램들은 가로로 15개씩 나열되어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로 세로 형태로 전치(transpose) 시켜 묶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① 9차년도 가구자료로부터 1부터 15번째 가구원들의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변수를 추출하여 4개의 취합된 data set로 묶는다.
② 이렇게 생성된 4개의 데이터를 case merge하여, hhid06 기준으로 붙인다.

SAS는 이를 위해 transpose 문을, SPSS는 restructure 기능을 사용한다. 두 코드를 비교해보면, 결국 동일한 변환과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
*     SAS - Transpose 문의 사용     ;
*================================;

data a1; set kli.klips09h ;
keep      hhid06
          v09121-v09135 /*pid*/  v09166-v09180 /*sex*/  v09181-v09195 /*가구주와의 관계*/
          v09256-v09270;/*만나이*/
if hwave09=1;

proc sort; by hhid06;
run;

data a1; set a1;
proc transpose data=a1 out=trans1(drop=_name_  rename=(col1=pid)); by hhid06;
          var v09121-v09135; /* 1~15 번째 가구원의 pid */
proc transpose data=a1 out=trans2(drop=_name_  rename=(col1=sex)); by hhid06;
          var v09166-v09180; /* 1~15 번째 가구원의 성별 */
proc transpose data=a1 out=trans3(drop=_name_  rename=(col1=rel)); by hhid06;
          var v09181-v09195; /* 1~15 번째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
proc transpose data=a1 out=trans4(drop=_name_  rename=(col1=age)); by hhid06;
          var v09256-v09270; /* 1~15 번째 가구원의 만 나이 */

data fnl; merge trans1 trans2 trans3 trans4; by hhid06;
if pid^=.; /* 결측치 처리 */
drop _label_;

proc means; var sex rel age;
proc freq; tables sex rel age;
run;
```

```
*================================.
*   SPSS - Restructure 기능의 사용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h.sav'
/keep hhid06 hwave09 v09121 to v09135 v09166 to v09180 v09181 to v09195 v09256 to v09270.

/* data restructure (variables into cases) 메뉴에서 실행하는 법*/
/* data -> restructure -> variables into cases -> more than one (4) : pid, sex, rel, age */
/* 각각의 1~15가구원 변수들을 pid, sex, rel, age 로 묶어 지정,  */
/* HHID06을 fixed variable 로 지정한다 */

VARSTOCASES /ID = id
/MAKE pid FROM v09121 v09122 v09123 v09124 v09125 v09126 v09127 v09128 v09129 v09130 v09131
v09132 v09133 v09134 v09135
/MAKE sex FROM v09166 v09167 v09168 v09169 v09170 v09171 v09172 v09173 v09174 v09175 v09176
v09177 v09178 v09179 v09180
/MAKE rel FROM v09181 v09182 v09183 v09184 v09185 v09186 v09187 v09188 v09189 v09190 v09191
v09192 v09193 v09194 v09195
/MAKE age FROM v09256 v09257 v09258 v09259 v09260 v09261 v09262 v09263 v09264 v09265 v09266
v09267 v09268 v09269 v09270
/INDEX = Index1(15) /KEEP =  HHID06 hwave09 /NULL = KEEP.

/* 이번 차수 조사된 가구와 가구원만 남기고 결측치 처리하기 */
filter off.
use all.
select if (hwave09=1 and sex>0).
execute.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tempW9q11dat.sav'.

/* 필요없는 변수 제거 및 최종 데이터 저장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tempW9q11dat.sav'
/drop index1 id hwave09.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tempW9q11dat.sav'.
execute.
```

Q 12 사교육 자녀번호와 엄마번호 사용하기

SAS와 SPSS 활용 예 : 가구원정보와 자녀(엄마)번호 연결하기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는 사교육에 관한 변수들을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변수를 가구원 정보와 연결하여 사용하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가구원 정보와 사교육에 응답한 자녀번호(혹은 엄마번호)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는 자녀번호와 엄마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갖춰지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자녀번호와 엄마번호는 각각 한 가구당 5쌍씩 있다. 자녀번호-1 (v09611)은 첫 번째 자녀가 그 가구의 몇 번째 가구원인지를 기록하며, 엄마번호-1 (v09612)은 자녀-1 의 엄마가 그 가구의 몇 번째 가구원인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노동패널 9차년도 가구자료(KLIPS09H)를 열어서 9차년도 가구번호(hhid06)가 5150인 가구를 살펴보자. FAQ Q7 에서도 보았듯이, 이 가구는 원가구번호가 892이며, 3차년도에 분가한 가구이다. 그런데, 3차년도 분가 당시 원가구 892번 가구에서 총 4명의 각원이 함께 분가하였다. 이때 분가한 가구원들의 pid는 순서대로 89201, 89203, 89204, 89205 였다 (한 개인의 pid는 절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이 가구의 첫 자녀번호 (v09611)를 살펴보면 3이다. 즉, 5150 가구의 3번째 가구원임을 알 수 있다. 한 가구의 pid는 v09121부터 v09135 까지 15개의 값이 옆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아이의 pid는 3번째 가구원의 pid (v09123)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아이의 엄마에 대해 알아보자. 첫 아이의 엄마의 번호 (v09612) 는 2이므로, 엄마의 pid 는 두 번째 가구원의 pid (v09122)에서 찾으면 된다. 5150 가구에는 아이가 둘이고, 각각의 pid가 89204 와 89205임을 직접 확인 해 보자.

이와 같이, 자녀번호와 엄마번호를 이용하면 5쌍의 자녀/엄마 각각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여러 변수에 대해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에는 array (SAS) 혹은 vector (SPSS)를 이용해서 작업할 변수들을 묶은 뒤 do 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아래 예제들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필요한 가구원 정보를 추출 한 뒤, Q11에서와 마찬가

지로 transpose (SAS) 혹은 restructure (SPSS)를 사용하여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두 예제는 구현방식만 다를 뿐 논리적 구성은 똑같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두 예제는 각 case(아이) 별로 아이의 성별, 나이, 엄마 정보, 그리고 사교육정보를 가로로 추출한다. 엄마의 pid 가 기록되어있으므로 엄마의 개인설문 정보와의 merge 도 손쉽게 할 수 있다.

```
*=================================================================================;
*   SAS - 자녀별 성별, 나이, 엄마정보, 사교육정보 추출하기: Array 문, Transpose 문 사용  ;
*=================================================================================;

/* 9차년도 가구자료 중 고교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만 남기기 */
data a1; set kli.klips09h;
if v09609=1;
run;

data a2; set a1;
/* 길이 15의 array 3개를 생성 */
array ppid[15] v09121 - v09135;
array ssex[15] v09166 - v09180;
array aage[15] v09256 - v09270;

/* 예) i=4 일때: v09622=4 즉 두번째 자녀번호가 4 (두번째 아이가 4번째 가구원) 인 경우, 그 아이의 pid(chpid2)
는 4번째 가구원의 pid, 그 아이의 성별(sex) 은 4번째 가구원의 성별, 그 아이의 나이(chage2) 는 4번째 가구원의 만
나이로 기록. */

do i=1 to 15;
          if v09611=i then  do; chpid1=ppid[i]; sex1=ssex[i]; chage1=aage[i]; end;
          if v09622=i then  do; chpid2=ppid[i]; sex2=ssex[i]; chage2=aage[i]; end;
          if v09633=i then  do; chpid3=ppid[i]; sex3=ssex[i]; chage3=aage[i]; end;
          if v09644=i then  do; chpid4=ppid[i]; sex4=ssex[i]; chage4=aage[i]; end;
          if v09655=i then  do; chpid5=ppid[i]; sex5=ssex[i]; chage5=aage[i]; end;

          if v09612=i then  do; mompid1=ppid[i]; momage1=aage[i]; end;
          if v09623=i then  do; mompid2=ppid[i]; momage2=aage[i]; end;
          if v09634=i then  do; mompid3=ppid[i]; momage3=aage[i]; end;
          if v09645=i then  do; mompid4=ppid[i]; momage4=aage[i]; end;
          if v09656=i then  do; mompid5=ppid[i]; momage5=aage[i]; end;
end;
run;

data a2; set a2; proc sort; by hhid06;
/* Transpose 문의 활용. 5개씩의 DATA를 하나로 묶되, hhid06 기준으로 정렬한다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drop=_name_ rename=(col1=chpid)); by hhid06;
          var chpid1-chpid5;     /* 자녀 pid */
```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2(drop=_name_ rename=(col1=sex)); by hhid06;
          var sex1-sex5;          /* 성별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3(drop=_name_ rename=(col1=chage)); by hhid06;
          var chage1-chage5;     /* 자녀 나이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4(drop=_name_ rename=(col1=mompid)); by hhid06;
          var mompid1-mompid5;  /* 엄마 pid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5(drop=_name_ rename=(col1=momage)); by hhid06;
          var momage1-momage5;  /* 엄마 나이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6(drop=_name_ rename=(col1=numb)); by hhid06;
          var v09613 v09624 v09635 v09646 v09657; /* 사교육기관 이용갯수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7(drop=_name_ rename=(col1=type1)); by hhid06;
          var v09614 v09625 v09636 v09647 v09658; /* 사교육 종류 (1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8(drop=_name_ rename=(col1=cost1)); by hhid06;
          var v09615 v09626 v09637 v09648 v09659; /* 사교육 비용 (1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9(drop=_name_ rename=(col1=type2)); by hhid06;
          var v09616 v09627 v09638 v09649 v09660; /* 사교육 종류 (2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0(drop=_name_ rename=(col1=cost2)); by hhid06;
          var v09617 v09628 v09639 v09650 v09661; /* 사교육 비용 (2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1(drop=_name_ rename=(col1=type3)); by hhid06;
          var v09618 v09629 v09640 v09651 v09662;  /* 사교육 종류 (3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2(drop=_name_ rename=(col1=cost3)); by hhid06;
          var v09619 v09630 v09641 v09652 v09663; /* 사교육 비용 (3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3(drop=_name_ rename=(col1=type4)); by hhid06;
          var v09620 v09631 v09642 v09653 v09664; /* 사교육 종류 (4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4(drop=_name_ rename=(col1=cost4)); by hhid06;
          var v09621 v09632 v09643 v09654 v09665; /* 사교육 비용 (4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5(drop=_name_ rename=(col1=type5)); by hhid06;
          var v09620a v09631a v09642a v09653a v09664a; /* 사교육 종류 (5번째) */
proc transpose data=a2 out=trans16(drop=_name_ rename=(col1=cost5)); by hhid06;
          var v09621a v09632a v09643a v09654a v09665a; /* 사교육 비용 (5번째) */

/* 앞서 만든 16개 dataset 을 횡으로 붙이기 */
data fnl; merge trans1 trans2 trans3 trans4 trans5 trans6 trans7 trans8 trans9 trans10 trans11 trans12
trans13  trans14 trans15 trans16; by hhid06;
drop _label_;
if chpid^=.;  /* 결측치 처리 */

totcost = sum(of cost1-cost5);    /* 한 아이당 총 사교육 비용 */
proc freq data=fnl; tables totcost;
run;
```

```
*=======================================.
*   SPSS - Vector 문, Restructure 기능의 사용   .
*=======================================.

get file = 'D:WKLIPSW1to9 DATA(SPSS)Wklips09h.sav'.

/* pid, sex, age 를 1~5 아이까지 기록할 공벡터 생성 및 V1,V2,V3 벡터로 v09121~v09270 묶기 */
VECTOR pid (5) sex (5) age (5)
/V1=v09121 to v09135
/V2=v09166 to v09180
/V3=v09256 to v09270 .

LOOP #i=1 to 15.
if (v09611=#i) chpid1 = V1(#i).
if (v09611=#i) sex1 = V2(#i).
if (v09611=#i) chage1 = V3(#i).
if (v09622=#i) chpid2 = V1(#i).
if (v09622=#i) sex2 = V2(#i).
if (v09622=#i) chage2 = V3(#i).
if (v09633=#i) chpid3 = V1(#i).
if (v09633=#i) sex3 = V2(#i).
if (v09633=#i) chage3 = V3(#i).
if (v09644=#i) chpid4 = V1(#i).
if (v09644=#i) sex4 = V2(#i).
if (v09644=#i) chage4 = V3(#i).
if (v09655=#i) chpid5 = V1(#i).
if (v09655=#i) sex5 = V2(#i).
if (v09655=#i) chage5 = V3(#i).

if (v09612=#i) mompid1 = V1(#i).
if (v09612=#i) momage1 = V3(#i).
if (v09623=#i) mompid2 = V1(#i).
if (v09623=#i) momage2 = V3(#i).
if (v09634=#i) mompid3 = V1(#i).
if (v09634=#i) momage3 = V3(#i).
if (v09645=#i) mompid4 = V1(#i).
if (v09645=#i) momage4 = V3(#i).
if (v09656=#i) mompid5 = V1(#i).
if (v09656=#i) momage5 = V3(#i).
END LOOP.
EXECUTE.

VARSTOCASES /ID = id
 /MAKE chpid FROM chpid1 chpid2 chpid3 chpid4 chpid5       /* 자녀 pid */
 /MAKE mompid FROM mompid1 mompid2 mompid3 mompid4 mompid5 /* 엄마 pid */
 /MAKE sex FROM sex1 sex2 sex3 sex4 sex5                   /* 자녀 성별 */
 /MAKE chage FROM chage1 chage2 chage3 chage4 chage5       /* 자녀 나이 */
```

```
 /MAKE momage FROM momage1 momage2 momage3 momage4 momage5 /* 엄마 나이 */
 /MAKE numb FROM v09613 v09624 v09635 v09646 v09657 /* 사교육기관 이용갯수 */
 /MAKE cost1 FROM v09615 v09626 v09637 v09648 v09659 /* 사교육 종류 (1번째) */
 /MAKE type2 FROM v09616 v09627 v09638 v09649 v09660 /* 사교육 비용 (1번째) */
 /MAKE cost2 FROM v09617 v09628 v09639 v09650 v09661 /* 사교육 종류 (2번째) */
 /MAKE type1 FROM v09614 v09625 v09636 v09647 v09658 /* 사교육 비용 (2번째) */
 /MAKE type3 FROM v09618 v09629 v09640 v09651 v09662 /* 사교육 종류 (3번째) */
 /MAKE cost3 FROM v09619 v09630 v09641 v09652 v09663 /* 사교육 비용 (3번째) */
 /MAKE type4 FROM v09620 v09631 v09642 v09653 v09664 /* 사교육 종류 (4번째) */
 /MAKE cost4 FROM v09621 v09632 v09643 v09654 v09665 /* 사교육 비용 (4번째) */
 /MAKE type5 FROM v09620a v09631a v09642a v09653a v09664a /* 이용 종류 (5번째) */
 /MAKE cost5 FROM v09621a v09632a v09643a v09654a v09665a /* 이용 종류 (5번째) */
 /INDEX = Index1(5)
 /KEEP =  HHID06
 /NULL = KEEP.
execute.

compute totcost=sum(cost1 to cost5).            /* 한 아이당 총 사교육비용 */
select if (chpid>0).                            /* 결측치 처리 */
save out = 'C:Wq12_ch.sav'.
```

Q 13 사교육 이용기관의 변동사항 : 연도별 차이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의 사교육에 관한 변수들을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특히 사교육 이용기관은 해마다 사회적 변화를 적당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항목이 변경·추가되어 왔으므로,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사교육 이용기관과 관련된 변수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사교육기관의 항목은 그 숫자도 많은데다가 연도별로 계속 항목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또 어린이방(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놀이방과 사설놀이방, 5차부터 사라진 탁아소와 유아원 등의 항목간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아래의 항목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관련항목 :Ⅴ. 주제별 가이드, <표 5-9> 참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주요 특징	사교육관련 문항의 유무		○	×	○	○	○	○	○	○	○
	'탁아모' 관련 문항의 유무		○	×	○	○	×	×	×	×	×
이용 기관	탁아소		○	×	○	○	×	×	×	×	×
	어린이방 (어린이집)	국공립(국립·사립·구립등) 어린이집	○	×	○	○	○	○	○	○	○
		민간 어린이집					○	○	○	○	○
	놀이방 (혹은 사설놀이방)		○	×	○	○	○	○	○	○	○
	유아원		○	×	○	○	×	×	×	×	×
	직장보육시설		○	×	○	○	○	○	○	○	○
	시간제유치원(:정규시간이외에보육을 맡아주는 경우1)		○	×	○	○	○	○	○	○	○
	종일제유치원(:정규시간이외에보육을 맡아주는 경우1)								○	○	○
	정규유치원(: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경우)		○	×	○	○	○	○	○	○	○
	(보육/교육기관) 기타		×	×	○	○	○	○	○	○	○
	학원	보습학원	○	×	○	○	○	○	○	○	○
		예체능학원	○								
	개인·그룹과외		×	×	○	○	○	○	○	○	○
	학습지		×	×	○	○	○	○	○	○	○
	방과후교내보충학습		×	×	○	○	○	○	○	○	○
	방과후교실		×	×	○	○	○	○	○	○	○
	동거하고있는 가족/친지		○	×	○	○	×	×	○	○	○
	비동거하고있는 가족/친지		○	×	○	○	×	×	○	○	○
	동거하는 타인		○	×	○	○	×	×	○	○	○
	비동거하는타인		○	×	○	○	×	×	○	○	○
	(탁아모 관련) 기타		○	×	○	○	×	×	×	×	×
	어학연수		×	×	×	×	×	×	○	○	○
	인터넷(온라인 교육)유료강좌		×	×	×	×	×	×	○	○	○
항목수			14	0	18	18	12	12	19	19	19

주: 1차에는 놀이방으로 조사되었으나, 5차부터는 놀이방이 삭제되고 사설놀이방으로 변경

Q 14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방법
SAS Array문 활용 예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노동패널 가구용 자료에서 조사되는 가구소득 항목은 ① 근로소득 ② 금융소득 ③ 부동산소득 ④ 사회보험 수혜금 ⑤ 이전소득 ⑥ 기타소득 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구용 자료에 있는 소득들은 이미 가구 단위로 합산이 되어 있는 값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구용 자료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한 값을 의미한다. 만일 연구자가 가구원 각각의 소득을 알고 싶다면, 개인용 자료에서 가구원 각각의 근로소득을 추출하여야 한다.

만일 가구의 총소득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6가지 항목별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은 다시 세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의 경우 ㉠ 은행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 주식/채권 매매차익 ㉣ 배당금 ㉤ 기타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가구의 금융소득은 이들을 모두 합한 값이 된다.

```
*=========================;
*     SAS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
*=========================;

data a1; set kli.klips09h;

*income;

/*결측치 처리*/

array x[32]          v09691 /*작년한해 총근로소득*/
                     v09693-v09697 /*작년한해 총금융소득*/
                     v09699-v09703 /*작년한해 총부동산소득*/
                     v09717-v09719 v09720a v09720b v09720c v09721 /*작년한해 총이전소득*/
                     v09730a v09730b v09730c v09731 v09732 v09921-v09923 /*작년한해 총기타소득*/
                     v09707 /*사회보험소득 1*/
                     v09709 /*사회보험소득 2*/
                     v09711 /*사회보험소득 3*/
                     v09713 /*사회보험소득 4*/
                     v09715; /*사회보험소득 5*/
```

```
do i = 1 to 32;
          if x[i]=999999 then x[i]=.;
end;


/*항목별 소득총계*/
inc_e=v09691;                                                                    /*earned income*/
inc_m=sum(of v09693-v09697);                          /*monetary income*/
inc_p=sum(of v09699-v09703);                          /*real estate income*/
inc_i=sum(of v09707 v09709 v09711 v09713 v09715); /*social insurance*/
inc_t=sum(of v09717-v09719 v09720a v09720b v09720c);                    /*transfer income*/
inc_o=sum(of v09730a v09730b v09730c v09731 v09732 v09921-v09923);          /*other income*/

/*소득유무*/
inc_ey=v09690;        inc_my=v09692;        inc_py=v09698;
inc_iy=v09704;        inc_ty=v09716;        inc_oy=v09729;


/*소득이 0원인 경우의 처리*/
if inc_my=1 & inc_m=. then inc_m=0;
if inc_py=1 & inc_p=. then inc_p=0;
if inc_iy=1 & inc_i=. then inc_i=0;
if inc_ty=1 & inc_t=. then inc_t=0;
if inc_oy=1 & inc_o=. then inc_o=0;

/*ANNUAL TOTAL INCOME*/
inc=sum(of inc_e inc_m inc_p inc_i inc_t inc_o);
          if inc=. then inc=0;


 proc print; var inc;
run;


*============================.
*     SPSS - 가구 총소득 구성하기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h.sav'.

/* 결측치 처리 (transform -> recode into same variables 메뉴 사용) */
RECODE
  v09691 v09693 to v09697 v09699 to v09703 v09707 v09709 v09711 v09713 v09715 v09921 to v09923
  v09717 to v09719 v09720a v09720b v09720c v09721 v09730a v09730b v09730c v09731 v09732 (999999=SYSMIS) .
EXECUTE.
```

```
*항목별 소득총계.
compute inc_e=v09691.
compute inc_m=sum(v09693 to v09697).
compute inc_p=sum(v09699 to v09703).
compute inc_i=sum(v09707, v09709, v09711, v09713, v09715).
compute inc_t=sum(v09717 to v09719, v09720a, v09720b, v09720c, v09721).
compute inc_o=sum(v09730a, v09730b, v09730c, v09731, v09732, v09921, v09922, v09923).



*소득유무.
compute inc_ey=v09690.
compute inc_my=v09692.
compute inc_py=v09698.
compute inc_iy=v09704.
compute inc_ty=v09716.
compute inc_oy=v09729.

*annual total income.
compute inc=sum(inc_e, inc_m, inc_p, inc_i, inc_t, inc_o).
execute.
```

Q 15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의 차이점

노동패널 가구용 조사에서는 지난해 연평균 가구소득과 지난 한달간 소득을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연평균가구소득'과 '지난한달간 소득'은 말 그대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의미하며 단지 시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소득항목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일까. 예컨대 어떤 가구가 2006년에 분가하였다고 하자. 혹은 지난해 가구내 모든 구성원들이 실직상태였다가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가구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가구들은 지난 해 소득에는 없었으나, 지난 한달 간 소득은 존재하는 가구들이다. 반대로 지난해에는 정상적인 가구소득이 관찰되었지만 두 달 전에 실직한 가구원이 있다면, 지난해 연평균가구소득을 월평균으로 바꾼 값이 지난 한 달간 소득에 비해 클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분석상의 시의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연단위로 행해지는 조사이며,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연구자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난해 연평균가구소득만'을 질문할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하더라도 2년 전의 연평균가구소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 2008년도 release data 이용시 → 9차년도 가구용 자료 이용 가능(2006년에 조사한 데이터) → 2005년도 한해 동안의 연평균 가구의 근로소득이 파악됨). 그러나, '지난한달간 소득'은 소득 추정기간이 짧아, 지난한달 동안만 가구소득이 유난히 높았을(혹은 낮았을) 경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평균가구소득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보다 세부적 항목 단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반면, 지난한달간 소득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 총액만이 파악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지난한해 연평균 가구소득]이나 [지난한달간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1~8차년도 가구소득 관련변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문 **Ⅴ. 주제별 가이드, 1.2.2 가구소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Q 16 생활비 항목에 대한 설명

생활비는 지난 한해 동안의 가구전체가 지출한 생활비 총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가구자료에서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와 같이 생활하는데 드는 돈만을 의미하므로, 가구 전체의 소비수준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즉,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의 액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액 등은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관련 설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생활비 항목은 1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고, 매해 항목이 수정되어 왔으며 9차년도에는 총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되었다(본문 Ⅴ. 주제별 가이드; 1.2.3 가구소비; <표 Ⅴ-4> 1~9차년도 가구소비 관련 변수 참조).

또한 생활비의 항목별 액수 뿐 아니라 전체 월평균 생활비 액수 또한 묻고 있으므로, 생활비 총액만 필요할 경우 '생활비 총액' 변수(9차년도 : v09747)만을 사용해도 된다. 다만 '생활비 항목별 액수의 총합'과 '생활비 총액'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에게 두 항목이 대략적인 일치는 권고하지만 이를 강제적 지침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편향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Q 17 금융자산과 부채 변수 구성하는 방법

SAS 및 SPSS 활용 예 : 자산과 부채액 구성하기

1. 금융 자산

금융자산과 금융소득을 혼동하는 연구자들이 종종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 혹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과 같이 가지고 있는 돈의 총액을 의미하는 저량(stock) 변수인 반면, '금융소득'은 이러한 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금)을 의미하는 유량(flow) 변수이다.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가구용 설문에서는 금융자산의 소유여부를 각 항목별로 질문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 총액을 질문한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가구의 '금융자산' 전체 액수를 필요로 한다면 각 항목에 대한 총액을 모두 합산해서 사용해야 한다(※ 주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

2. 가구 부채

'가구부채'는 '금융자산'과 유사한 구조로 조사되고 있다. 즉 항목별로 부채유무를 질문한 후, [예]라고 응답한 경우 현재 상환해야할 잔액을 묻는다. 따라서, 현재 가구에 남아있는 부채의 총액은 각 항목의 잔액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다만, 부채항목에는 이외에도 '현재까지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액수를 각각의 항목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잔액'및 '원금과 이자상환금'을 합산할 경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의 부채액도 구할 수 있다.

```
*=================================;
*   SAS - 가구 자산과 부채 구성하기     ;
*=================================;

data a1; set kli.klips09h;

*금융자산;
   array af[6] v09804 v09806 v09808 v09810 v09812 v09814;
       do i = 1 to 6;
            if af[i] = 999999 then af[i] = .;
          end ;
if v09803=1 or v09805=1 or v09807=1 or v09809=1 or v09811=1 or v09813=1 then fin_y=1 ;

    fin1 = v09804;              * 은행예금 액수;
    fin2 = v09806;              * 주식, 채권, 신탁 액수;
    fin3 = v09808;              * 저축성보험 액수;
    fin4 = v09810;              *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fin5 = v09812;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돈 액수;
    fin6 = v09814;              * 기타 금융자산 액수;
    fin = sum(of fin1-fin6);    * 금융자산 총액 ;

* 부채;
    array a[6] v09818 v09821 v09824 v09827 v09830 v09833;
          do i = 1 to 6;
            if a[i] = 999999 then a[i] = .;
          end ;
if v09817=1 or v09820=1 or v09823=1 or v09826=1 or v09829=1 or v09832=1 then deb_y=1 ;

  * 부채 총액;
    deb = sum (of v09818 v09821 v09824 v09827 v09830 v09833);

  * 항목별 부채액수;
          deb1 = v09818;
          deb2 = v09821;
          deb3 = v09824;
          deb4 = v09827;
          deb5 = v09830;
          deb6 = v09833;
run;
```

```
*=================================.
*  SPSS - 가구 자산과 부채 구성하기    .
*=================================.

*9차년도가구자료를 불러온 후 실행.
RECODE
  v09804 v09806 v09808 v09810 v09812 v09814 (999999=SYSMIS)  .
EXECUTE .
if (v09803=1 or v09805=1 or v09807=1 or v09809=1 or v09811=1 or v09813=1) fin_y=1.

compute fin1 = v09804.            /* 은행예금 액수.
compute fin2 = v09806.            /* 주식, 채권, 신탁 액수.
compute fin3 = v09808.            /* 저축성보험 액수.
compute fin4 = v09810.            /* 아직 타지 않은 계 액수.
compute fin5 = v09812.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액수.
compute fin6 = v09814.            /* 기타 금융자산 액수.
compute fin = sum(fin1 to fin6). /* 금융자산 총액.

*부채.
RECODE
  v09818 v09821 v09824 v09827 v09830 v09833  (999999=SYSMIS)  .
EXECUTE .

if (v09817=1 or v09820=1 or v09823=1 or v09826=1 or v09829=1 or v09832=1) deb_y=1.

*부채 총액.
compute deb = sum(v09818,v09821,v09824,v09827,v09830,v09833).


*항목별 부채액수.
compute deb1 = v09818.
compute deb2 = v09821.
compute deb3 = v09824.
compute deb4 = v09827.
compute deb5 = v09830.
compute deb6 = v09833.
execute.
```

Q 18 부동산 자산의 시가 관련 문항의 구조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① ‘현재 집을 제외한 부동산’ ②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 ③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임차’에 대해서 묻고 있다(※ 현재 ‘본인의 가족만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의 보증금’은 주거관련 문항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설문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후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시가 총액을 질문한다. 그런데, 응답자가 부동산의 시가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범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범주화 된 문항에 응답하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시가총액을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분석에서 모두 제외시키면, 실제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속형 부동산 시가총액을 범주화하거나, 범주형 부동산 시가를 연속형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Q 19 2, 3차년도 가구자료의 주택종류와 평수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에서 입주형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거주시기는 전년도 조사이후에 이사하였거나 이사하지는 않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1차년도 조사 이후에 주거사항이 변화가 없는 가구라면, 2차~3차 가구자료에서 주택종류와 평수가 missing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2차~3차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자료에서 해당 변수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8차년도 release 자료부터는 해당 변수를 가공하여 해당차수의 데이터에 붙여두었으므로,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Q 20 지니계수 구하기

최근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활용도가 빈번한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구하는 예제를 살펴보자.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 소득'(혹은 가구소비)과 관련된 변수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Q14 가구소득 구성하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래는 SAS를 이용한 지니계수 산출프로그램이다. SPSS 프로그램은 생략한다.

```
*=================================;
*   SAS - 지니 계수 구하기          ;
*=================================;
*여기서 inc 변수는 앞서 Q14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구총소득 변수임;

data a2; set a1(keep=inc);
k=1;
proc sort; by descending inc;
proc means noprint; var inc;
output out=in1 sum=sinc n=n1;
data in1; set in1; k=1;

data b2; merge a2 in1; by k;
isi=_n_*inc/sinc;
proc means noprint; var isi;
output out=gini sum=ssi n=n1;
data gini; set gini;
gini=1-1/n1-2*ssi/n1;
proc print; var gini;
run;
```

Q 21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구하기

빈곤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사용된다. 빈곤율을 산출하는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사용한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의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기초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하의 가구로 정하여 계산한다. 또한 절대빈곤율 계산에서의 차상위계층이란 빈곤선의 120%의 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가구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70%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아래는 SAS를 이용한 빈곤율 산출프로그램 예제이다. SPSS 프로그램은 생략한다.

```
*═══════════════════════;
*  (SAS문) 빈곤가구 구하기  ;
*═══════════════════════;
/*──────빈곤가구 구하기──────*/

data a2; set a1(keep=hhid inc v09100 hwave09);
if inc=0 then inc=.;
if inc=. then delete;

incm=inc/12; /* 월소득 */
fnum=v09100;
if fnum > 6 then fnum=6;  /* 가구원 수가 6이상이면 전부 6으로 간주 */
if hwave09=1 then do;
                    if fnum=1 & 0 < incm < 36.8 then pov=1;  /*빈곤층*/
          else      if fnum=2 & incm < 61.0 then pov=1;      /* 보건복지부 지정 빈곤 Definition */
          else      if fnum=3 & incm < 83.9 then pov=1;
          else      if fnum=4 & incm < 105.5 then pov=1;
          else      if fnum=5 & incm < 120.0 then pov=1;
          else      if fnum=6 & incm < 135.4 then pov=1;
```

```
          else      if fnum=1 & 35.6 <= incm < (36.8*1.2) then pov=2;       /*차상위*/
          else      if fnum=2 & 58.9 <= incm < (61.0*1.2) then pov=2;
          else      if fnum=3 & 81.0 <= incm < (83.9*1.2) then pov=2;
          else      if fnum=4 & 101.9 <= incm < (105.5*1.2) then pov=2;
          else      if fnum=5 & 115.9 <= incm < (120.0*1.2) then pov=2;
          else      if fnum=6 & 130.8 <= incm < (135.4*1.2) then pov=2;
else pov=0;
end;

proc sort; by hhid; run;
proc freq; table pov; run;

/*―――――――상대빈곤가구 구하기―――――――*/

data a3; set a1(keep=hhid inc v09100 hwave09);
if inc=0 then inc=.;
if inc=. then delete;
fnum=v09100;
flag=1;
incr=inc/sqrt(fnum);
proc sort; by hhid; run;
proc means noprint; where hwave09=1; var incr;
output out=a4 median=incrmd;
run;

data a4; set a4;
flag=1;
run;

/* (Note) a3는 가구수만큼 케이스가 많은 데이터셋이고, a4는 means 프로시저의 결과값중 incr의 중위수만 들어가 있는, 케이스 한개짜리 데이터셋이다. a3의 각 케이스마다 동일한 incrmd가 붙어있는 a5 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a3, a4 에다가 flag 라는 가변수를 포함시킨 뒤, 아래와 같이 merge by 문을 이용하면 된다. */

data a5; merge a3 a4; by flag;
if hwave09=1 then do;
                              if incr < (incrmd*0.5)  then rpo=1; /*빈곤*/
          else      if incr < (incrmd*0.7)  then rpo=2; /*차상위*/
          else      if incr < (incrmd*1.5)  then rpo=3; /*중산층*/
          else      rpo=4; /*상위*/
end;

proc sort; by hhid; run;
proc freq; table rpo; run;
```

Q 22 개인의 인적특성(성별, 연령, 학력) 변수들이 필요할 때

개인의 학력,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적특성 정보는 가구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구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이와 같은 인적특성 항목들은 개인, 신규, 부가자료에도 붙여서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에는 개인의 인적특성 변수를 가구자료로부터 추출하여 붙이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개인 및 신규 설문지는 15세 이상인 가구원들에게만 배포되므로, 15세 미만 학령기 아동의 인적 특성과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자료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추출하여야 한다(FAQ Q11을 이용하기 바란다). 가구자료의 개인정보 관련변수는 9차년도 가구자료 기준으로 v09106부터 v09555까지이다.

Q 23 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 구분의 기준

1. 종사상 지위의 구분

노동패널자료에서 종사상 지위 즉, 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고용주・가족종사자를 구분하는 조사항목은 유형설문에 있다. 유형마다 문항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유형 1, 2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여부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3, 4도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는지를 묻는다.
유형 5, 6은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7, 8도 현재 종사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유형 1~4는 지난 조사로부터 이어져온 일자리이므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변했는지”만을 질문하면 충분하다. 유형 5~8은 새로 시작한 일자리이므로 현재 종사상 지위를 질문해야 한다. 분석을 위해 종사상 지위 변수가 필요할 때에는 “p09736 : (주된일자리)종사상지위-현재(또는 최종)” 변수를 이용하면 된다. 직업력을 이용할 경우 “j150 : 종사상의 지위-현재(또는 최종)”을 이용하면 된다. 유형 1~4에 응답한 경우 이전년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가져와 채워 놓았다.

2. 임금/비임금의 구분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분할 경우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된 종사상 지위 변수 외에도 취업자 개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는 “p09027 : (공통)취업형태” 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변수는 “문4 그렇다면 ____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데, 취업자 개인 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취업형태 변수와 유형설문을 통해 조사되는 종사상 지위 변수가 일치하는 응답을 주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다룰 때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응답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경계가 불분명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이 그대로 설문조사에 투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클리닝 과정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팀의 권고는 임금/비임금 근로를 구별할 때에는 취업형태(p09027) 변수 보다는 종사상 지위(p09736) 변수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 관련 변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결측치(missing value)를 줄이는 방법이다.

Q 24 경제활동상태 변수 만들기

경제활동상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주제별 가이드 페이지 ____ 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예제를 통해 경제활동상태를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아래 예제는 9차년도 개인자료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인의 종사상지위와 경제활동상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종사상 지위는 유형설문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취업/미취업 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공통과 미취업자공통 설문을 통해 구성된다(FAQ Q23을 참조하라).

이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기본적으로 취업자 및 미취업자 공통 설문변수를 기준으로 만들것을 권고한다.

```
*================================;
*    SAS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
*================================;

data a1(keep= pid hhid06  empst econst); set kli.klips09p;

/*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
if p09736 ^=.                    then      empst=p09736; /* 임금근로자: 1=상용 2=임시 3=일용 */
else if p09736= 4 & p09721=1     then      empst=4;    /* 고용주 */
else if p09736= 4                then      empst=5;    /* 자영업자 */
else if p09736= 5 & p09028=1     then      empst=6;    /*가족종사자 (주당18시간이상) */

/* 경제활동상태 */
if p09021=1                      then      econst=1; /* 취업자 */
else if p09420 =1 & p09422=1     then      econst=2; /* ILO 기준 실업자 */
else                                       econst=3; /* 비경제활동인구 */
proc freq; table empst econst; run;

*================================.
*  SPSS를 이용한 경제활동상태의 구성 .
*================================.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p.sav'.

*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compute empst=p09736.                    /* 임금근로자 1=상용, 2=임시, 3=일용 .
if (p09736=4)                 empst=5.   /* 자영업자 .
if (p09736=4 and p09721=1)    empst=4.   /* 고용주 .
if (p09736=3 and p09028=1)    empst=6.   /* 가족종사자 (주18시간이상) .

*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 .
compute econst=3.                        /* 비경제활동인구 .
if (p09021=1) econst =1.                 /* 취업자 .
if (p09420=1 and p09422=1) econst=2.     /* ILO 기준 실업자 .

FREQUENCIES
  VARIABLES=empst econst
 /ORDER=  ANALYSIS .
execute.
```

Q 25 노동패널자료의 정규/비정규직 비중은 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낮을까?

노동패널자료의 신뢰성을 문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패널자료의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한다. 사실 이런 지적이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999년 이후 50%를 넘어선 반면, 노동패널자료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고작해야 22~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도 측정하고 있다. 즉,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해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역시 22~23% 정도만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무리 조사표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경활조사」보다 절반이상 낮은 수준의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실업률,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자 비율,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 거의 대부분의 핵심변수들은 기준통계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독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노동패널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패널팀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상 지위

노동패널의 종사상 지위 구분은 순수하게 근로계약만을 기준으로 (임시직은 1년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종사상 지위를 정하고 있다. 우선, 노동패널과 같이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1차적으로 상용직, 임시·일용직 여부를 구분한다. 그러

나, 상용직이라고 응답했다 하더라도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의 규범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지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여부, 부가급여의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차별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으로 다시 재분류한다.

이러한 조사상의 차이로 인해 노동패널과 경활조사는 동일한 이름의 '종사상 지위'를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표본의 차이, 조사원의 전문성 등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2.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측정

종사상 지위 이외에도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조사연도에는 이른바 '자기 선언적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 측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선언적 규정이란 앞서 종사상 지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설문지 상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를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 문항에도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80%이상이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났다(노동패널 홈페이지 : 리서치브리프 No1.「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참조).

3.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측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패널은 5차년도 조사부터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을 도입하였다. 즉, 통계청의 비정규직 측정을 위한 부가조사문항을 반영하여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시근로자(contingent work)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독립도급, 가내근로 등 대안적 고용형태(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통계청의 부가조사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4. 노동패널 비정규직 측정의 특징

따라서, 종사상 지위가 통계청 조사와 그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나 이는 조사 설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용어 기준에 의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동패널에서는 퇴직금, 부가급여 등 일자리 특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통제할 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통계청 조사와 거의 비슷한 종사상 지위 비중이 산출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양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보다 풍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해보았다. 아래 표를 보면 우선, 종사상 지위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 비율은 21.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상용직 전일제 근로자만을 정규직으로 보았을 때에는 비정규직이 23.8%로 증가하였다. 세 번째, 상용직 전일제 중에서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거나 부가급부상의 차별적인 적용을 받을 경우를 정규직에서 제외할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42.4%로 증가하였다. 네 번째, 세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고용형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4.8%까지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율이 통계청의 경활조사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략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기준		빈도	비율
기준1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	893	21.9
기준2	기준1+상용직이면서 시간제라고 응답한 경우	972	23.8
기준3	기준2+퇴직금 비적용 및 주요 부가급부 차별적용	1822	42.4
기준4	기준3+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 호출, 기간제 근로자	2253	54.8
전체		4083	100.0

주 : 신규자료 제외. 6차년도 자료를 이용했으므로, 9차년도 release자료와 다소 빈도차이가 있을 수 있음.
퇴직금 비 제공자 : 5인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비율임.
부가급부 : 유급휴가 및 병가 차별적용, 여성의 경우 생리 및 출산휴가 차별적용.

Q 26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변수에 결측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이는 노동패널의 근로시간 변수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이다. 주로 “p09739 : (주된일자리)주당 평균 근무시간(임금)” 변수만을 이용하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패널에서는 **유형설문**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조사한다. 유형설문에서의 근로시간 관련 항목은 임금근로자일 경우와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각각 질문 형태가 다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①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②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했는지
③ 정해져 있을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나 되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임금근로자일 경우 한 문항으로 간단하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질문한다. 아래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수 생성방법 예제이다.

```
*=====================;
*    SAS 근로시간 변수 생성 ;
*=====================;

data a1; set kli.klips09p;
array x[*] p09739 p09741 p09744;
/*
p09738 : 주된일자리 정규근로시간 여부 y/n = 1/2
p09739 : 주된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p09741 : 주된일자리 주당 정규 근로시간

p09743 : 주된일자리 초과근로여부 y/n = 2/1
p09744 : 주된일자리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
```

```
do i=1 to 3;
          if x[i]=999 then x[i]=.;
end;

if (p09738=2) then worktime=p09739;   /*평균근로시간 */
else if (p09738=1 and p09743=1) then worktime=p09741;
else if (p09738=1 and p09743=2) then worktime=sum(p09741, p09744); /*정규+초과근로시간*/

/*proc freq; table worktime;*/
proc freq; table p09739 p09741 p09744; run;
proc print; where p09744>168; var pid p09744; run;  /* 불가능한 초과근로시간  */

data hours; set a1(keep=worktime);
proc chart data=hours ;
   vbar worktime;
   title 'Hours Worked Per Week';
run;

*=====================.
*    SPSS 근로시간 변수 생성 .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p.sav'.
recode
          p09739 p09741 p09744 (999=sysmis).
execute.
if (p09738=2) worktime=p09739.
if (p09738=1 and p09743=1) worktime=p09741.
if (p09738=1 and p09743=2) worktime=sum(p09741, p09744).
execute.
GRAPH  /HISTOGRAM=worktime .
```

Q 27 임금 및 소득 변수의 평균값 추이가 들락날락하고, 너무 큰 값이 나올 때

임금, 소득 변수의 평균값을 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응답의 처리이다. 노동패널의 임금 및 소득 변수는 모두 6자리로 top-coding을 하며, 무응답일 경우 '999999'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무응답을 결측치로 바꿔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값이 커지거나 추이가 안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패널팀에서 일괄적으로 무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자의 입장에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무응답과 결측값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문제이므로 999999를 결측치로 재처리해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100억에 달하는 월평균임금을 보고한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top-coding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임금, 소득 관련 변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기초통계량을 구하여 코드북에 기재된 빈곤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무응답 값을 처리하기를 권장한다.

Q 28 개인자료에 부업 관련 정보를 붙이고자 할 때

개인자료에는 주업과 관련된 정보만 들어 있다. 따라서 부업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직업력을 이용해 부업 관련 정보를 찾아낸 후 이를 개인자료에 다시 붙여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차년도에 조사된 개인의 부업을 찾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직업력에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이들 개인의 부업이 된다.

① 조사년도를 의미하는 jobwave변수가 7,
② 주업을 의미하는 mainjob이 0,
③ 일자리의 현재 지속여부를 알 수 있는 jobclass가 1, 3, 5, 7.(1, 3, 5, 7만 남기는 이유는 이들 일자리가 조사시점 현재 지속 중인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걸러진 데이터를 개인자료와 pid를 기준으로 붙이면 된다.

Q 29 부모님의 학력,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가구자료를 이용해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복잡한 작업일 뿐 아니라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학력을 찾을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신 1차년도 조사에서 모든 응답개인들에게 부모의 학력과 14세 당시 부모의 직업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정보는 1차년도 개인자료와 매 회의 신규자료에 들어있다. 다만, 이 경우 설문이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을 기준으로 묻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어머니의 직업은 14세 당시 아버지가 없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4차년도 신규조사자부터 질문했으므로 불완전한 정보이다.

예제를 통해 9차년도 개인자료에 부모의 학력과 14세 당시 부모의 직업 관련 변수를 붙이는 방법을 예시하겠다.

```
*==================================;
*    SAS - 부모의 학력 및 14세당시 부모직업;
*==================================;

/* 먼저1차년도 개인자료에서 아버지의 학력변수를 빼낸다*/
data a1; set kli.klips01p (keep=pid p01507 p01508);
rename    p01507=psch1        /*<공통>부모-교육수준 (학교) */
          p01508=psch2;       /*<공통>부모-교육수준 (졸업여부) */

if pid>0 then year=1998;
proc sort; by pid; run;


/* 2~9차년도까지 신규자료의 아버지의 학력 변수도 가져와야 완전한 데이타가 구축됨. */
data a2; set kli.klips02n (keep=pid n02411 n02412);
rename    n02411= psch1
          n02412= psch2;
if pid>0 then year=1999;
proc sort; by pid; run;

data a3; set kli.klips03n (keep=pid n03779 n03780);
rename    n03779= psch1
          n03780= psch2;
```

```
if pid>0 then year=2000;
proc sort; by pid; run;

data a4; set kli.klips04n (keep=pid n04852 n04853);
rename    n04852= psch1
          n04853= psch2;
if pid>0 then year=2001;
proc sort; by pid; run;

data a5; set kli.klips05n (keep=pid n05878 n05879);
rename    n05878= psch1
          n05879= psch2;
if pid>0 then year=2002;
proc sort; by pid; run;

data a6; set kli.klips06n (keep=pid n06803 n06804);
rename    n06803= psch1
          n06804= psch2;
if pid>0 then year=2003;
proc sort; by pid; run;

data a7; set kli.klips07n (keep=pid n07802 n07803);
rename    n07802= psch1
          n07803= psch2;
if pid>0 then year=2004;
proc sort; by pid; run;

data a8; set kli.klips08n (keep=pid n08827 n08828);
rename    n08827= psch1
          n08828= psch2;
if pid>0 then year=2005;
proc sort; by pid; run;

data a9; set kli.klips09n (keep=pid n09825 n09826);
rename    n08825= psch1
          n08826= psch2;
if pid>0 then year=2007;
proc sort; by pid; run;

/* 모두 하나의 데이터로 붙이기 */
data pschool;  set a1 a2 a3 a4 a5 a6 a7 a8 a9; run;

/* "잘 모르겠음"미싱처리하기 */
data b1; set pschool;
if 8<=psch1<=9 then psch1=.;
if 6<=psch2<=9 then psch2=.;
proc sort; by pid; run;
```

```
/* 신규/개인 불완전 구분으로 인한 중복 케이스 삭제 */
data b2 b3; set b1; by pid;
if first.pid then output b2; else output b3; run; /* 중복되는 pid 중 첫번째 entry만 취한다 */

data pschool; set b2;
proc sort; by pid; run;       /* B2만 사용한다 */


/* 9차 개인/신규 데이터 구성하기 */
data p1; set kli.klips09p;
proc sort; by pid; run;

                              /* 개인과 신규자료 붙일때는 반드시 변수명을 일치시켜주자! */
data p2; set kli.klips09n;
proc sort; by pid; run;

data p3; set p1 p2;
proc sort; by pid; run;


/* 9차년도 개인/신규 데이터에 아버지 학력 붙이기 */
data fnl; merge pschool p3; by pid; run;

*=====================================.
*   SPSS - 부모의 학력 및 14세 당시 부모직업.
*=====================================.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1p.sav'
/keep pid p01507 p01508
/rename (p01507=psch1) (p01508=psch2).
if (pid>0) year=1998.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tempWpschool1.sav'.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2n.sav'
/keep pid n02411 n02412
/rename (n02411=psch1) (n02412=psch2).
if (pid>0) year=1999.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tempWpschool2.sav'.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3n.sav'
/keep pid n03779 n03780
/rename (n03779=psch1) (n03780=psch2).
if (pid>0) year=2000.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tempWpschool3.sav'.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4n.sav'
/keep pid n04852 n04853
```

```
/rename (n04852=psch1) (n04853=psch2).
if (pid>0) year=2001.
save out='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4.sav'.

get file='D:₩KLIPS₩1to9 DATA(SPSS)₩klips05n.sav'
/keep pid n05878 n05879
/rename (n05878=psch1) (n05879=psch2).
if (pid>0) year=2002.
save out='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5.sav'.

get file='D:₩KLIPS₩1to9 DATA(SPSS)₩klips06n.sav'
/keep pid n06803 n06804
/rename (n06803=psch1) (n06804=psch2).
if (pid>0) year=2003.
save out='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6.sav'.

get file='D:₩KLIPS₩1to9 DATA(SPSS)₩klips07n.sav'
/keep pid n07802 n07803
/rename (n07802=psch1) (n07803=psch2).
if (pid>0) year=2004.
save out='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7.sav'.

get file='D:₩KLIPS₩1to9 DATA(SPSS)₩klips08n.sav'
/keep pid n08827 n08828
/rename (n08827=psch1) (n08828=psch2).
if (pid>0) year=2005.
save out='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8.sav'.

get file='D:₩KLIPS₩1to9 DATA(SPSS)₩klips09n.sav'
/keep pid n09825 n09826
/rename (n09825=psch1) (n09826=psch2).
if (pid>0) year=2006.
save out='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9.sav'.


* merging all data .

get file='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1.sav'.
add files /file=*
/file='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2.sav'.
add files /file=*
/file='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3.sav'.
add files /file=*
/file='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4.sav'.
add files /file=*
/file='D:₩KLIPS₩1to9 DATA(SPSS)₩temp₩pschool5.sav'.
add files /file=*
```

```
/file='D:WKLIPSW1to9 DATA(SPSS)WtempWpschool6.sav'.
add files /file=*
/file='D:WKLIPSW1to9 DATA(SPSS)WtempWpschool7.sav'.
add files /file=*
/file='D:WKLIPSW1to9 DATA(SPSS)WtempWpschool8.sav'.
add files /file=*
/file='D:WKLIPSW1to9 DATA(SPSS)WtempWpschool9.sav'.

sort cases by pid.
save out='D:WKLIPSW1to9 DATA(SPSS)WtempW9pschool.sav'.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tempW9pschool.sav'.
recode psch1 (8 thru 9 = sysmis).
recode psch2 (6 thru 9 = sysmis).
execute.

aggregate
/outfile='D:WKLIPSW1to9 DATA(SPSS)WtempW9pschool_a.sav'
/break=pid
/psch1 = max(psch1) /psch2=max(psch2).

get file='D:WKLIPSW1to9 DATA(SPSS)Wklips09p.sav'.
sort cases by pid.
match files /file=*
/table ='D:WKLIPSW1to9 DATA(SPSS)WtempW9pschool_a.sav'
/by pid.

execute.
```

찾 아 보 기

(ㄱ)

가구가중치 23
가구소득 63
가구소비 66
가구용 설문 27
가구원 기본정보 61
가구자료 29
가구주와의 관계 45
가구추계자료 24
가족종사자 49
가중치 19
개인가중치 23
개인용 설문 27
개인자료 30
개인효과(individual effects) 2
건강과 은퇴 자료 99
건강상태 88
경제활동상태 50
경제활동인구 50
계속응답 가구 12
계속응답 가구원 13
계층 소속감 88
교육년수 47
군부 18
근로시간 형태 53
금융자산 68

(ㄷ)

대리응답 6
대리응답 비중 7
대우패널 9
대체가구접촉수 19
대체성공가구비율 19
대체성공가구수 19
대학입학시험 84
동부 18
동시생태효과(cohort effect) 3

(ㅁ)

만나이 45
면접원 교육 8
면접원 오류 96
면접타계식 6
모집단 16
목표표본가구 18
무응답(nonresponse)조정 20
무응답조정가중치 22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16
미취업자 49

(ㅂ)

보육기관 71
보정(imputation) 22
부가조사자료 30
부동산 68

부채 69
분가가구 14
비경제활동인구 50
비원표본 가구 14
비율조정(ratio estimating procedure) 22
비표본가구원 23

(ㅅ)
사교육 71
사회보험 64, 83
사회적 연결망 89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20
상태간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 3
생활만족도 88
성별 44
세후소득 65
스케일 조정 24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2, 8, 20, 37
신규자료 30
신규조사자 15
실업자 51

(ㅇ)
연령 45
예비조사(pilot survey) 3
오픈 코드(open code) 53
요인별 직무만족도 85
원표본가구 11
원표본가구원유지율 10
유치조사 6
유형설문 28
유효표본가구 10
읍면부 17
응답확률추정치(fitted probability) 20
이수여부 47
입주형태 70

(ㅈ)
자격증 58, 83
자녀교육 71
자산 68
전반적 직무만족도 86
전화조사 6
정규/비정규 여부 52
조사 기간 8
조사구 16
조사내용 31
조사내용 변경사항 35
조사대상 5
조사방법 5
조사설계(survey design) 3
조사추적 원칙 5
조직몰입도 87
종단면 가중치 19, 48
종사상 지위 51
주거지 70
주택종류 70
중고령자 부가조사 101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85
직업력(work history) 92
직업력자료 30
직업훈련 코드 57
직접조사 6

(ㅊ)
청년층 자료 98
총접촉가구수 19
최초성공가구비율 19
최초성공가구수 19
최초접촉가구수 19
취업/미취업 상태 49
취업자 49

(ㅋ)
키(key)변수 40

(ㅌ)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 3
특정연령효과(age effect) 3

(ㅍ)
표본설계방법 16
표본유지율 9
표본추출과정 16
표본추출확률 20
표본탈락(panel attrition) 21
표본틀 16

(ㅎ)
학과 코드 58
학교 47
학년 47
학력 47
학업성취도(GPA) 85
한국리서치 8
한국표준산업분류 54
한국표준직업분류 54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 22
혼인상태 46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 92
횡단면가중치 19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 2

(1)
1차 원가구원 여부 48

(2)
2단층화집락계통추출법 16

(D)
Duncan 22

(E)
ED 21

(G)
GSOEP 9

(I)
imputation 22

(J)
jobcens 94
jobclass 94
jobnum 93
jobseq 93
jobtype 94
jobwave 93
jubnumc 94

(K)
key 변수 60
KLIPS 9

(M)
mainjob 94

(P)
PID 43
PSID 9

◈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배기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9차년도 User's Guide

• 발행연월일	2008년 6월 25일 인쇄 2008년 6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최 영 기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 대표 (02) 785-0141 Fax (02) 786-1862
• 조판 · 인쇄	(주)이환D&B (02) 2254-4301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